

백암 박은식 선생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백암 박은식의 독립운동사 서술과 독립운동



- 일 시 : 2025년 10월 23일(목) 13:30-18:00
-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주 최 : 백암학회 ·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 후 원 :  국가보훈부

2. 백암 박은식의 독립운동사 서술과 독립운동

학술회의 순서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20 개회식

사회 : 유상수 한성대학교

국민의례

인사말

윤경로 백암학회 회장

기념 촬영

14:20~16:20 주제발표

사회 : 유상수 한성대학교

제1주제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서술

발 표: 노관범 서울대학교 토 론: 최기영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제2주제 朴殷植 『韓國痛史』의 사학사적 검토

발 표: 조범성 숭실대학교 토 론: 박경 동덕여자대학교

제3주제 1925년, 박은식과 중국의 반일시민운동

발 표: 배경한 전 신라대학교 토 론: 조건 동국대학교

제4주제 박은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大同과 彈劾

발 표: 조규태 한성대학교 토 론: 박종연 국가기록원

16:20~16:40 휴식

16:40~17:50 종합토론

좌장 : 윤경로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발표자 및 토론자, 총괄토론자 김용달

17:50~18:00 폐회

차례

주제발표

〈제1주제〉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서술	5
발 표: 노관범(서울대학교)	
토 론: 최기영(서강대학교 명예교수)	46
〈제2주제〉 朴殷植 『韓國痛史』의 사학사적 검토	51
: 당대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발 표: 조범성(숭실대학교)	
토 론: 박경(동덕여자대학교)	92
〈제3주제〉 1925년, 박은식과 중국의 반일시민운동	95
-上海 지역 언론 게재 서거·장례·추도 기사와 『五九月刊』 게재 논설 5편의 분석-	
발 표: 배경한(전 신라대학교)	
토 론: 조 건(동국대학교)	144
〈제4주제〉 박은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大同과 彈劾	149
발 표: 조규태(한성대학교)	
토 론: 박종연(국가기록원)	194

본 자료집은 "국가보훈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나
그 세부내용은 국가보훈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 서술

노관범(서울대학교)

1. 머리말
2. 유학자 박은식의 역사 읽기
3. 언론인 박은식의 역사 읽기와 쓰기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 서술

노관범
서울대학교

1. 머리말

본고는 박은식 서거 100주기를 맞이하여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서술을 검토하는 글이다. 필자는 오래 전 박은식 서거 80주기 기념 학술 행사¹에 말석으로 참여해 박은식의 자강론에 관하여 발표한 일이 있다. 20년이 지나 다시 영예로운 자리에 초청받아 감사 말씀을 드린다. 돌이켜보면 박은식에 대한 공부를 틈틈이 계속하며 박은식의 삶과 생각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고민을 담아 작은 책을 만들었다.² 작년에는 박은식의 글을 한

1 정확한 행사 이름은 〈백암 박은식 선생 서거 80주년 추도식 및 ‘백암 박은식 유업의 현대적 의의’ 학술회의〉이다. 2005년 10월 27일(목) 서울 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제1부 추도식(윤병석, 김국주, 이수성, 박유철), 제2부 학술회의(발표: 신용하, 한시준, 김삼웅, 유준기, 김동환, 노관범, 孫科志), 제3부 종합토론(사회: 윤경로, 토론: 박결순, 김희곤, 김순석, 배용일, 박성수, 김도형, 배경한)으로 구성되었다.

2 노관범, 2021, 『백암 박은식 평전』, 도서출판 이조

글로 번역하여 문선집을 냈다.³ 지난 세월을 추억하니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오늘 필자의 발표 주제는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 서술이다. 100주기의 학술 행사에 어울리는 주제일지 다소 미미한 느낌도 준다. 사실 이 주제는 어느 정도 교과서적인 이해가 정착해 있다. 대중적인 감성에서 보면 박은식은 한국 근대 민족주의 역사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오늘날 한국 근대사의 고전적인 저술로 저명한 『한국통사』(1915), 곧 한국의 아픈 역사를 지었고, 이 책 「서언」에서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니 역사를 보존하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밝혔다.⁴ 이 책 「결론」은 역사가 있는 곳에 국혼이 있음을 말하고 한인 동포가 이 책에서 국혼을 발견하기를 기대했다.⁵

이렇게 보면 『한국통사』는 국혼의 역사서라 이룰만하다. 박은식은 국혼의 역사가라 이룰만하다. 『한국통사』의 「서언」은 박은식의 역사관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명언이 수록된 명논설처럼 보인다.⁶ 『한국통사』의 서론이나 결론이 선언적으로 명논설처럼 읽히는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3 노관범 편역, 2024, 『박은식 신규식』, 창비

4 『韓國痛史』, 「緒言」: 蓋國形也, 史神也, 今韓之形毀矣, 而神不可以獨存乎? 此痛史之所以作也, 神存而不滅, 形有時而復活矣.

5 『韓國痛史』, 「結論」: 史之所存, 國魂所存也...幸我同胞, 認以爲國魂所存, 而勿棄擲也否?

6 『신동아』는 '민족을 지도한 오피니언 리더'의 대표적인 논설을 추천받아 별책부록을 간행했는데 이 때 『한국통사』의 「서언」은 「유교구신론」과 함께 박은식의 대표작으로 명논설 후보에 올랐다.(신동아 편집실, 1979, 『근대한국명논설집』, 동아일보사, 284쪽)

『국통사』의 실제적인 역사 서술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그다지 진척되지 못했다. 사실 『한국통사』에 앞서 이미 『대동고대사론』(1911)에서도 역사가 없으면 정신이 없고 따라서 민족도 없다는 위기의식⁷이 검출되는데, 이것은 국망의 충격으로 분출한 특정한 국면의 역사의식일 수도 있다.

박은식의 역사학이나 역사관은 대개 『한국통사』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국 근대 역사학의 성립이라는 시야에서 박은식의 역사학에 접근하는 거시적인 이해⁸와 함께 박은식의 역사관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⁹는 대개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을 중심으로 하였다. 크게 보면 이 틀 안에서 박은식의 역사관에서 자강(自強)과 인도(人道)¹⁰ 또는 자강과 인도와 혁명(革命)¹¹을 검출한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필자는 박은식의 『한국통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의 두 가지 문제를 새삼 깨달았다. 『한국통사』가 다루는 세칭 개항기 한국사 그 자체가 단지 ‘근대 한국’의 단일한 시공간으로 구성되지

7 『大東古代史論』有民族而後有歷史，然無歷史則亦無民族矣，何則歷史者民族之精神。

8 김용섭, 1976,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성립」, 『한국의 역사인식』하, 창작과비평사

9 홍이섭, 1968, 「박은식의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국사의 방법』, 탐구당 ; 신일철, 1974, 「박은식의 「국혼」으로서의 국사 개념」, 『한국사상』11 ; 이만열, 1976, 「박은식의 사학사상」, 『숙대사론』 9 ; 신용하, 1982, 「박은식의 역사관」, 『박은식의 사회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영우, 1994, 「1910년대 박은식의 민족주의 사학」,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10 윤병희, 1992, 「백암 박은식의 역사의식」,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 논총』,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1 노관범, 2009, 「『한국통사』의 시대사상」, 『한국사상사학』

는 않았고 실제로는 ‘한국과 세계’라는 복합 공간, ‘전통과 근대’라는 복합 시간에 위치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데 생각이 미쳤다.¹² 『한국통사』의 이해 맥락을 놓고 보더라도 『한국통사』의 출현에 개입하는 근대 중국의 맥락, 『한국통사』의 역사의식에 개입하는 전근대 조선의 맥락을 고려하면 공간적 복합성과 시간적 복합성에 유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¹³

오늘 발표도 대략 이런 복합성의 시각에서 박은식의 역사학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된 관심은 『한국통사』의 편찬자로서 역사가 박은식이 출현하기 전에 조선말기 유학자 박은식과 대한제국기 언론인 박은식이 존재했음을 고려하여 유학자 박은식의 역사서 경험과 언론인 박은식의 역사서 경험을 역사가 박은식의 역사관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데 있다. 이것은 우선 시간적으로 유학자 박은식이 경험한 전근대의 역사 문헌과 근대의 역사 문헌이 공히 박은식의 역사관의 형성에 작용하여 이후 역사가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 서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취한다. 전근대 유학의 역사 문헌과 근대 서학의 역사 문헌이 박은식의 역사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중시한다.

아울러 언론인 박은식의 경우 그가 한국의 유력한 언론 매체의 하나인

12 노관범, 2022, 「‘조선과 세계’라는 복합 공간과 ‘전통과 근대’라는 복합 시간」, 『역사학보』255

13 노관범, 2023, 「박은식 『한국통사』의 새로운 이해 맥락」, 『진단학보』140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주필로서 한국의 시국 현실에 맞추어 세계 근대사의 사론을 쓰기도 했고 한국 당대사의 요목을 쓰기도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을사늑약과 고종 퇴위로 국망의 현실인식을 체감하는 시기에 그는 언론인으로 세계사를 읽었고 한국사를 썼다. 이 역시 박은식의 역사관의 형성에 작용하여 이후 역사가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 서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유학자 박은식과 언론인 박은식의 두 시점에서 박은식의 역사서의 복합성을 세계사와 한국사의 구도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얻는다. 20세기 한국 사회가 박은식의 역사서를 한국사로 읽는 사고에 친숙했다면 21세기 한국 사회는 박은식의 역사서를 세계사로 읽는 사고에 진입할 때도 되었다. 필자의 이 글은 그러한 방향에서의 소론이다.

2. 유학자 박은식의 역사 읽기

박은식은 조선 철종 10년(1859) 황해도 황주 주남에서 아버지 박용호(朴用浩)와 어머니 교하(交河) 노씨(盧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통사』 「결론」에서 스스로 황해도 바닷가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했고, 그와 절친한 김택영은 송서(送序)를 써 주며 박은식의 출생지를 황주 산산(蒜山) 아래라고 기록했다. 산산은 황주의 해변에서 가까운데 임진왜란 당시 황주 선

비 이사림과 백성들이 이곳에서 일본군을 막아냈다. 산산에서 멀지 않은 황주와 봉산의 접경 지역에는 정방산이 있는데 병자호란 당시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은 청군의 저지에 실패했다. 유년기의 박은식은 고향에 전해 오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사적을 보고 들으며 일찍부터 국난의 역사를 일깨웠을지도 모른다.

박은식의 가문은 조부 박종록(朴宗祿)이 농업 경영과 친족 구휼에 힘써서 명망이 있었고 조모 연안(延安) 이씨(李氏)도 규문의 법도를 지켜서 가풍(家風)을 칭송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박은식의 부친 박용호는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보람을 얻지 못하고 평생 향리의 숙사(塾師)로 지내며 향리 자제를 가르쳤다. 박은식은 부친의 이루지 못한 꿈을 물려받아 과거 응시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 공부를 시작했다. 시작(詩作)에 재능을 보인 그는 부친의 서당에서 송(松)을 시제로 얻고 군(群)을 압운으로 얻어 녹류홍도 불감군(綠柳紅桃不敢群)이라는 시구를 지어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¹⁴

박은식이 유년기에 서당에서 증선지(曾先之)의 『십팔사략(十八史略)』이나 강지(江贊)의 『통감절요(通鑑節要)』를 읽었을지 모르겠다.¹⁵ 홍석주에 따르면 이 두 문헌이 조선에서 성행하는 편년사인데 집집마다 비치하고 서당

14 『五九月刊』 제12기 「朴殷植傳贊」(黃覺) 1926년

15 박은식은 10세에 처음 독서를 시작해서 千字文, 史略, 唐詩, 唐宋古文 등을 읽었다고 한다. (『五九月刊』 제12기 「朴殷植傳贊」(黃覺) 1926년) 이로써 보면 그는 유년기에 통감이 아니라 사략을 읽은 셈이지만 그렇다고 통감을 전혀 읽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에서 학습한다고 하였다. 홍석주는 양자를 비교하여 『십팔사략』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는데 특히 몽사(蒙士)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아주 많다고 비평했다.¹⁶ 정약용에 의하면 조선 동치(童稚)의 9년 독서 기간(8세~16세)은 거의 강지의 『통감절요』 15책에 할애되고 있는데, 본래 강지 본인이 도학이나 문장으로 저명하지도 않고 당대 중국 북경의 서사(書肆)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으나 유독 동토(東土)에서만 육경(六經)처럼 받들고 있는 형편이었다.¹⁷ 홍석주와 정약용 모두 조선의 초학서로 애용되는 『통감절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은식은 유년기에 『십팔사략』 또는 『통감절요』를 읽으면서 한문 공부를 시작했을 것이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는 여느 동자와 달리 그 이상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즉, 그는 고향의 서당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배움의 향상을 구하고자 경기 고을에서 스승을 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홍석주의 손자 홍승운을 만나 홍석주가 편찬한 『속사략익전(續史略翼箋)』을 공부하는 행운을 얻었다.¹⁸ 이 책은 『십팔사략』의 속편으로 대명기(大明紀)를 편찬한 홍인모(洪仁謨)의 『속사략(續史略)』에 홍석주가 상세

16 洪奭周, 『洪氏讀書錄』

17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22 「通鑑節要評」

18 朴殷植, 『謙谷文稿』, 「祭三泉洪直閣文」: 지난날 峴屋에서 매일 정담을 나누는데/ 골목에 수레 드물고 부엌에 나무도 때지 않네 / 나는 선생을 보니 웃으며 기뻐하며 / 나를 가르치고 나를 권면했네 의리를 연마했네 / 전수해주신 책은 무엇일까, 『속사략익전』이라네 / 어이하여 작별하고 다시 모이지 못했을까

한 설명을 붙여서 明史의 이해를 도운 것으로 박은식 출생 두 해 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의 서문을 쓴 조두순(趙斗淳)은 편찬자 홍석주의 뜻이나 간행자 신석우(申錫愚)의 뜻이나 모두 조선이 명나라에 입은 再造의 은혜를 잊지 않음에 있다고 명시했다.¹⁹

이것은 유학자 박은식의 성장 과정에서 역사가 박은식의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낸 중요한 원천이 경화학계 주자학의 대명의리론이었음을 보여준다. 대명의리론이 관류하는 명나라 역사책으로서 이 책의 특징은 남명의 역사이다. 곧 홍석주는 청나라에서 편수한 명사의 한계를 절감하고 대명의리론의 시각에서 명나라의 정통이 남명 황제에게 있었음을 밝혔다.²⁰ 남명의 역사에서 마지막 영력제 이전의 시기는 9월의 일양이고 영력제의 시기는 일양마저 사라진 10월의 순음인데 다시 일양이 회복되는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영력제 최후의 시기에서 남명의 역사를 끝마친다고 밝혔다.

이 책은 역사가 박은식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역사관을 상술할 필요를 느낀다. 일단 이 책은 『역경』에 보이는 역학적 순환의식의 역사관을 내장했음을 언급하고 싶다.²¹ 산지(山地) 박괘(剝卦)(9월), 중지(重地) 곤괘(坤卦)(10월), 지뢰(地雷) 복괘(復卦)(11월)

19 趙斗淳, 『心庵遺稿』 권28 「續史略翼箋序」

20 김문식, 1996, 『조선후기 경학사상 연구』, 일조각, 129~130쪽

21 금장태, 1999, 『(중보판)한국근대의 유학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5~19쪽

의 변화는 천지에 일양(一陽)이 홀로 남았다가 이마저 사라져 순음(純陰)이 되었다가 다시 일양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비록 남명이 영력제의 시기에 멸망했지만 언젠가 광복의 시기가 오리라는 염원을 담아냈다는 의미가 있다. 박은식은 『속사략익전』을 통해 명나라의 역사, 특히 남명의 역사를 익히고 광복의 역사관을 체득했을 것이다.

특히 『속사략익전』은 남명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면서 국망사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사론에 담아냈다. 통상적인 견해라면 남명의 멸망 시점은 영력제가 중국을 모두 청나라에 잃고 중국 바깥의 면전(緬甸)으로 떠난 시점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책은 이후 청나라 군대가 면전에 들이닥쳐 영력제가 압송되어 이듬해 죽는 시점에서 명통이 끊어졌다고 서술했고 이 문제를 변론하는 사론도 부기했다.²² 이것은 남명의 황제가 중국을 모두 잃고 외국으로 망명해도 그가 아직 외국에 존속하고 있다면 국망이 아니라는 관점인데 이 관점은 후일 한국의 국망과 광복의 역사인식과 연결될 논점이 있었다.

박은식의 역사관에서 광복의 역사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대한제국 멸망 이듬해 중국에 망명하여 서간도의 동창학교에 체류하며 역사 교과서 삼아 많은 역사 전기를 지었다. 국망의 충격과 광복의 염원이 심절했을 이 때에 그가 지은 『동명성왕실기』과 『발해태조건국

22 『續史略翼箋』 권21 辛丑年條

지』는 고구려의 건국이 곧 한 무제에게 멸망한 고조선의 광복이 되는 사건이고 발해의 건국이 곧 당 고종에게 멸망한 고구려의 광복이 되는 사건이라 독해하였다.²³ 광복의 본래적인 어의와는 다르게 왕조사의 회복을 넘어 민족사의 회복으로서 광복을 설파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광복의 역사의식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짚어내는 이러한 사고의 근본 바탕에는 역시 대명의리론이 놓여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박은식의 역사관의 형성에 미친 경화학계 주자학의 역사의식, 곧 홍석주의 『속사략익전』의 사상적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박은식은 경기도에서 평안도로 돌아와 새로운 주자학의 세계에 진입했다. 그는 26세(1884)에 평안도 태천에 가서 당시 ‘관서부자(關西夫子)’로 명망이 높은 박문일(朴文一) 문하에서 주자학을 수학했다. 조선시대 평안도 유학사에서 박문일은 ‘관서부자’의 영예로운 계보에서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었다.²⁴ 당시 박문일의 경의재(經義齋)와 그의 아우 박문오(朴文五)의 장수재(藏修齋)는 평안도 주자학의 거점으로 문도들이 운집하여 공동체를 형성할 정도로 번창 일로에 있었다.²⁵ 박은식은 박문일 박문오 형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림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박문오는 박은식을 포함하

23 노관범, 2021, 『백암 박은식 평전』, 도서출판 이조, 221~223쪽

24 노관범, 2020, 「조선후기 관서유학사 시론」, 『한국사상사학』66, 한국사상사학회

25 朴文一, 『雲菴集』 「雲菴先生年譜(下)」 壬午條, 癸未條

여 전병훈(全秉薰)과 황립(黃嶺) 등을 ‘동지(同志)’라고 인식할 정도였다.²⁶

박은식이 박문일로부터 수학한 주자학의 범위에는 역사학이 포함되어 있었을까? 박문일의 학문은 소학과 사서 중심의 경학을 위주로 했으며 이항로에게 수학할 때에는 주서를 독실하게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박문일은 19세기 조선의 최대 신흥학파인 화서학파(華西學派)의 일원이었고, 연재학파(淵齋學派)의 『동감강목(東鑑綱目)』과 함께 조선시대 강목체 역사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화서학파의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의 존재와 의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도 역사학에 관심이 있어서 박은식이 찾아오기 전부터 역사서 편찬에 뜻을 두어 주희의 『자치통감강목』을 정독하기도 했다.²⁸ 아마도 박은식은 박문일로부터 화서학파의 성리설과 함께 역사학에 관한 가르침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박문일이 이루지 못한 역사서 편찬의 의지를 직접 청취했을지도 모른다.

박문오 역시 중국의 역대 정사를 중시하여 성현의 심법과 정치를 여기에서 구했고, 특히 『자치통감강목』의 역사 지식이 풍부하여 이로부터 중국사의 민보(民堡) 문제를 논할 정도였다.²⁹ 역사서를 향한 그의 관심은

26 朴文五, 『誠菴集』 권2 「上家兄」

27 金장태, 2001, 『화서학파의 철학과 시대 의식』, 태학사, 281~301쪽

28 朴文一, 『雲菴集』 「雲菴先生年譜(下)」 己卯條; 朴文一, 『雲菴續集』 권9 「答或人」 51면

29 박문오, 『성암박선생문집』 별상 「鹿門山堡記」

유학의 학문관으로부터 발출하는 것이었지만 특기할 점이 있다면 자국사 역사 지식의 보급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다. 이를테면 그는 중국 문명사의 원류가 되는 삼황오제의 역사는 『상서(尙書)』의 보급으로 천하에서 전송(傳誦)되는데 한국 문명사의 원류가 되는 기자(箕子)의 역사는 조선에서 관심이 미약함을 개탄했다. 조선에서는 삼황오제의 역사보다 기자의 역사를 백배는 더 전송해야 하는데 고사에 밝은 숙유(宿儒)도 기자의 역사를 모르고 있으니 이 때문에 ‘동토(東土)’의 사람이 매번 ‘역외(域外)’의 사람에게 굴복했다고 통분해 했다.³⁰

사실 박은식은 박문오 사후 문집 간행시에 김학진(金鶴鎭)에게 서문을 주선하고 전병훈과 함께 발문을 지을 정도로 박문오 기념 사업에 힘썼다.³¹ 생전에 박문오에게 ‘동지’로 인정 받고 사후에 박문오를 위한 문집 간행에 힘썼던 관계로 보아 박은식과 박문오는 막역한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교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여 조선이 매번 국치를 입었다는 박문오의 마음, 국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국의 유교 문명의 기원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박문오의 마음에 박은식은 일찍부터 공감했을 것이다.

박은식은 관서지방에서 박문일 문하에서 주자학을 수학하고 마침내 조

30 박문오, 『성암집』 권3 「代白永祚以箕子實記重刊事呈巡營狀」

31 박문오, 『성암집』 「성암집발」(朴殷植)

선 유학의 연원을 얻었다. 이는 그가 후일 ‘대한 유교계에 一分子’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는 향시에 합격하고 교수(教授)에 발탁되고 숭인전(崇仁殿)과 동명왕릉(東明王陵)의 수이 되었다. 그는 특히 평안도관찰사 민병석의 교육정책과 문화사업을 보좌했다. 민병석은 평안도 전역에 존도재(尊道齋)를 설치하고 덕행과(德行科)를 시행하여 박문일 박문오 문하의 평안도 선비에게 학교 교육과 학생 천거의 권한을 주었다. 그는 평안도의 유교적인 교화를 위해 선비가 읽을 한문 책으로는 『덕행교범』을, 백성이 읽을 한글 책으로는 『오륜가』를 간행하여 도내에 보급하였다. 또한 동명왕릉의 추봉을 기념하는 문헌으로 동명성왕의 사적을 노래하는 영사시 『동명사제』를 간행하여 평안도의 역사의식을 드높였다.

이것은 박은식이 자국사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동명왕릉 최초의 능령(陵令)으로서 민병석이 간행한 『동명사제』를 읽고 고구려 역사의 시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후일 망명 후 『동명성왕실기』 편찬의 힘이 되었을 것이다. 『동명사제』는 고씨가승(高氏家乘) 같은 지역 문헌의 전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 문헌의 역사적 이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문헌이다. 박은식의 역사학에서 지역사 문헌의 사료 가치나 역사의식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피게 한다.

아울러 박은식은 『오륜가』의 간행을 통해 유교 교화의 최적의 방법으로

한글의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본래 황립의 『오륜가』는 『소학』의 요의를 한글 가사로 만들어 향촌의 동자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서 편찬되었다. 박은식이 유학자로서 『대학』, 『중용』, 『논어』, 『춘추』 등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기록이 있는데,³²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평안도의 유학 교육을 위한 유교 경전의 자각적인 한글 번역은 아니었을까 모르겠다. 이것은 개항 후 기독교 선교사의 지방 선교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박은식의 번역 대상 경전 중에 『춘추』가 포함된 사실이 흥미롭다. 박은식이 전근대 역사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고향 서당에서 『십팔사략』이나 『통감절요』를 공부하고 경화학계에서 홍석주의 『속사략익전』을 독서했으며 다시 관서학계에서 주희의 『자치통감강목』을 접했을 가능성은 전술한 바 있다. 문제는 그가 『강목』에서 『춘추』로 역사학의 관심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는 후일 『황성신문』에 춘추 대의를 강론하여 천하에 포고하는 논설을 발표했는데³³ 이 때 그가 천명한 춘추 대의의 원류가 실제로 『춘추』의 강학으로 소급되는 현상인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박은식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동래박의』를 통해 ‘춘추

32 『五九月刊』 제12기 「朴殷植傳贊」(黃覺) 1926년

33 『皇城新聞』 1910년 1월 7일, 논설 「是日에 講春秋大義□야 布告天下」

(春秋) 좌전(左傳)’의 이해를 얻었을 가능성은 있다. 남송 유학자 여조겸이 편찬한 『동래박의』는 춘추 좌전의 역사 평설서인데 조선시대에는 실용적인 과거 수험서로 널리 읽혔다. 과거제 폐지 이후에도 이 책의 영향력이 지속되어 『서북학회월보』의 어떤 필자는 춘추 대의를 고취하고 역사 평설이 뛰어난 이 책이 의사, 열사, 지사를 기르는 한문 교과서로 적합하다고 논했다.³⁴ 박은식 역시 이 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실제로 그가 편찬한 한문 교과서 『고등한문독본』에 『동래박의』의 사론 2수를 편입했다.³⁵ 그가 선별한 『동래박의』의 사론은 실용의 대립어 ‘부화(浮華)’, 자강의 대립어 ‘연안(宴安)’을 경계하는 글인데, 그는 국망 직후 이 문제를 통절하게 인식하여 『고등한문독본』의 메시지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국통사』의 사론에도 조선 유림의 ‘승허유실’과 조선 군신의 ‘연안’을 지목하여 망국사의 역사의식의 키워드로 지속적으로 주시하였다.³⁶ 그가 『동래박의』와 처음 만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과거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정독했을 이 책이 그의 역사관에 미친 영향력은 심절했다고 하겠다.

박은식은 유학자로서 역사서를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역사를 쓰기도 했다. 그는 사전(史傳)의 창작에 재능이 있었고 실제로 중국

34 『西北學會月報』19, 「漢文教科의 必要」 東萊博議(李承喬) 1910.1.

35 『高等漢文讀本』 제24과, 제25과 「管仲言宴安論」; 제26과, 제27과 「衛懿公好鶴論」

36 노관범, 「동아시아 전통 한문의 근대적 전유」, 『한국문화』6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2~134쪽

망명기에 안중근과 이순신의 전기를 지었다. 망명 이전에도 『서우』와 『서북학회월보』의 주필로 활동하면서 한국사 명장의 전기와 서북 지역 명인의 전기를 학회지에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 『서우』에 연재된 「김유신전」은 본래는 박은식의 친작 전기로 그의 문집 『겸곡문고』에도 수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학회지에 입전한 한국사 명장의 전기가 조선후기 홍양호의 『해동명장전』에 수록된 전기를 끌어왔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그는 『해동명장전』의 역사인식에 크게 공감한 듯 홍양호가 지은 이 책의 서문을 토대로 논지를 확장하여 상무론을 설파하는 논설을 『서우』에 게재하기도 했다.³⁷

이것은 문제적인 현상이다. 박은식이 역사서를 읽고 사전을 습작하는 과정에서 홍양호의 『해동명장전』에 관심을 두었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책의 역사인식을 수용하여 자신의 역사관으로 체화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홍양호가 이 책을 지은 동기는 조선시대 역사를 응시하는 문무병행론에서 나왔다. 역사의 융성은 문무의 병행에서 연유하는데 조선시대는 문치가 강하고 무락이 약한 문무의 불균형 때문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화를 겪었다는 것이다.³⁸ 박은식은 이를 이어받아 중국 망명기에 문무론의 관점에서 한국사의 전개를 서술한다. 『발해태

37 『西友』 10, 「文弱之弊는 必喪其國」 1907.10.

38 洪良浩, 『耳溪集』 권10 「海東名將傳序」

조건국지』를 지어 문무론의 관점에서 발해의 역사를 무강시대와 문치시대로 구별했고, 『한국통사』 역시 서두의 한국사 개관에서 자국사의 통시적 흐름을 문무론의 관점에서 약술하였다. 그가 『해동명장전』과 처음 만난 시기는 추측컨대 경화학계에서 주자학을 수학하던 시기로 생각된다.

박은식은 경화학계 주자학에서 역사학의 상당한 소양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증거는 미약하다. 다만 그가 19세기 전반 경화학계 주자학의 핵심 인물로 홍석주의 저술을 공부했음은 전술했지만 이와 함께 홍석주와 병칭되던 김매순(金邁淳)의 저술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이해에 보탬이 될지 모르겠다. 그는 훗날 『서북학회월보』 주필 재임 기간에 세계 풍속의 지식에 자극을 받아 ‘본국 풍속의 사료’로서 김매순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³⁹ 이후 다시 조선광문회의 자국 고전 출판 사업을 돕기 위해 그가 소장한 『열양세시기』를 기증했음이 확인된다.⁴⁰ 이로써 보건대 그는 경화학계에서 홍석주의 학문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김매순의 학문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서울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이 책도 이 때에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이 밖에도 박은식이 경화학계에서 얻은 지적인 전통은 상당했

39 『西北學會月報』10, 「我國歲時風俗記」 1909.3.

40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京都雜誌 合編』: 조선광문회에서 발간한 이 책은 열양세기기를 소개하면서 ‘原寫本 壹冊’이 ‘朴殷植 寄本’이라고 명기하였다.

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항 이후 경화학계의 학술사 연구가 시급하다.⁴¹

한편 박은식이 유학자로 성장하던 시기 조선 사회는 개항이라고 하는 역사의 전환점을 건너고 있었다.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연쇄적으로 진행된 개항의 사태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세계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이는 사건이었다. 그는 유년기에 고향 황주에서 서양 군함의 조선 침입 소식을 듣고 조선 사회에 들이닥친 새로운 현실을 감지했을 것이다. 경화학계와 관서학계에서 주자학을 수학하던 시기에 그가 체감한 현실을 설명하는 새로운 역사 지식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다.

박은식은 적어도 1882년이면 조선 국왕의 동도서기 윤음을 통해 서양 열강과의 외교통상 문제를 체감했을 것이다. 그는 조선에 들이닥친 서양 열강에 관한 역사 지식을 『해국도지(海國圖志)』에서 구할 수 있음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개략적인 내용도 접했을지 모른다. 스승 홍승운은 병인양요가 일어난 1866년에 홍한주(洪翰周)로부터 『해국도

41 박은식이 편찬한 『고등한문독본』에는 俞莘煥의 「名實解」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현전하는 유신환의 『鳳棲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逸文이다. 그는 경화학계에서 유신환의 문인들과 접촉하며 이 글을 입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신환은 적극적으로 문인을 양성하여 출사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민씨 척족과 더불어 金允植, 南廷哲, 韓章錫 등 많은 인물이 있었다. (노대환, 「19세기 중엽 유신환 학파의 학풍과 현실 개혁론」, 『한국학보』 19-3, 일지사, 200~211쪽) 한편 박은식의 주자학 공부는 ‘反躬實踐’과 ‘由文入道’를 특색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궁실천’이 관서지방 주자학의 학풍과 관련된다면 ‘유문입도’는 경화학계 주자학의 학풍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유신환의 주자학은 ‘因文入道’를 특징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어쩌면 박은식의 ‘유문입도’는 유신환의 ‘인문입도’와 연결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를 차람했기 때문에⁴² 박은식에게 이 책을 읽은 경험을 들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해국도지』가 박은식에게 세계사 지식의 원형을 제공한 문헌이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박은식의 세계사 지식의 형성에 기여했을지 모르는 다른 요인으로 조선 정부에서 발간한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있다. 『한성순보』는 서양 각국을 소개하는 기사를 곧잘 게재했는데 특히 「구라파사기」는 서양사의 통시적 흐름을 개략적으로 서술한 역사 서술로서 서양사 지식의 확산에 기여한 중요한 기사였다. 이 기사는 서양사의 전개 과정에서 종교개혁 이후 공리(空理)의 속박에서 벗어나 실사(實事)를 추구하여 역사의 진보가 초래되었음을 논했다.⁴³ 만일 박은식이 『한성순보』의 이 기사를 열독했다면 그가 일찍부터 종교개혁의 역사적 가치를 체득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직접적으로 세계사 지식을 제공하는 문헌은 아니지만 박은식에게 근대사의 제도적 이해에 도움을 주었을 문헌으로 청말 사상가 정관응(鄭觀應)의 『이언(易言)』이 있다. 조선 정부는 수신사 김홍집이 귀국하면서 들여온 『이언』의 복각과 언해를 실행하여 조선 사회에 정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이는 신사척사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

42 洪翰周, 『丙寅日史』

43 『漢城旬報』 1884년 1월 30일 「歐羅巴史記」

이진상의 논변에서 보듯 『이언』의 문제점은 인의(仁義)는 논하지 않고 단지 서법(西法)의 용불용(用不用)에 따른 유불리(有不利)를 주장하면서 천하를 서국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다.⁴⁴

박은식이 『이언』의 수용 국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는 알기 어렵다. 러일전쟁 기간 출판되어 대한제국 정부에 배포된 그의 저술 『학규신론』은 『이언』에 비견된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⁴⁵ 그가 언제부터 『이언』에 공감했을지는 특정하기가 어렵다. 갑오개혁 이전 과시 준비를 위해 서울에 체류하던 장지연은 『이언』을 열독했음을 일기에 기록했는데⁴⁶ 이와 비교하면 박은식도 『이언』을 줄곧 외면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독서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박은식의 역사관의 변화는 대한제국 선포 이듬해 그가 서울에 이주한 시기부터의 현상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 시기 중국 상해의 광학회에 결집한 서양 선교사의 근대 서학서가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 전파되어 널리 읽혔다. 후일 그는 세계 학설이 유입되어 사상 변동이 일어났음을 회고했는데⁴⁷ 실제로 그가 대한제국 초기 이 새로운 지적 조류 속에서 근대 서학의 섭렵을 시작했다고 보아도 좋을 단서들이 있다.

44 李震相, 『寒洲集』 권31 「杞憂生易言辨」

45 朴殷植, 『學規新論』, 「學規新論序」(金澤榮)

46 張志淵, 『韋庵羈史』 1893년 9월 20일

47 『東亞日報』 1925년 4월 3일 「學의 眞理는 疑로 쫓차 求하라」

반면 갑오개혁 이전에 『해국도지』, 『이언』, 『한성순보』 등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근대 서학에 대한 자각적인 관심을 보이고 의지적인 탐구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박은식의 지적인 여정에서 근대 서학서의 독서와 새로운 역사관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논하기에 적합한 문헌으로 이제마태(李提摩太, Timothy Richrad)의 『태서신사남요(泰西新史攬要)』와 임락지(林樂知, Young Allen)의 『중동전기본말(中東戰紀本末)』이 있다. 전자는 Robert Mckenzie의 『The 19th Century : A History』의 한문 번역서인데 원저는 서양 근대사를 자유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제마태의 번역서는 청일전쟁 이후 청조의 재건이 서양 근대의 서법을 모델로 하는 국가 개혁에 있음을 설득하는 책으로⁴⁸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민본주의 유교 이념의 절충이라는 특징이 있다.⁴⁹ 이 책은 『이언』이 그러했듯이 한국 정부의 관심을 받아 복각과 언역이 이루어졌고 신교육의 역사 교과서로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이제마태의 『태서신사남요』가 박은식의 새로운 역사관 형성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 서양 근대사를 준거로 하는 역사 인식의 생성으로 생각된

48 『泰西新史攬要』, 「泰西新史攬要譯本序」

49 정종원, 2024, 「『태서신사』의 국제정치론과 신법론」, 『상허학보』 70, 상허학회 : 『태서신사』의 국제정치관을 ‘자유주의’로, 국내정치관을 민본주의에 기반한 민주론적 전환으로 독해하였다.

다. 이 책은 대한제국 학부에서 평안도 공립 소학교에 내린 훈령에서 보듯이 영국이 세계 일등국이 된 이유를 탐구하고 한국과 영국의 정치를 솔직하게 비교하도록 유도하는 정치서의 색채를 지녔다.⁵⁰ 『황성신문』 논설은 이제 역사 이해의 준거는 중국의 고사가 아니라 서양의 신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¹ 이 책은 한국 근대 사학사에서 세계사 인식의 최초 국면을 열어준 기념비적인 저작이었으며 세계사의 법칙을 서양 근대사로 부터 사고하도록 역사관의 전환을 일으킨 문제적인 문헌이었다. 이것은 박은식의 명저 『한국통사』의 세계사적 이해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임락지의 『중동전기본말』은 청일전쟁의 역사를 서술했는데 일반적인 전쟁사의 수준을 넘어 이 사건의 문명사적인 이해를 강하게 부과하였다. 곧 임락지는 서법을 수용한 국가 일본의 성공과 구습에 속박된 국가 중국의 실패로서 이 사건을 인식하는 역사 철학을 제공했고 그것은 『황성신문』에 소개되어 한국 사회에 일본의 길과 중국의 길 사이에서 합당한 길을 사고하도록 자극했다.⁵² 임락지의 번역을 도운 채이강(蔡爾康)은 중국의 송학이 중국의 실패에 혹독한 영향을 미쳤음을 논하여 일종의 송학 망국론을 점화했고⁵³ 이 역시 한국 사회, 특히 유림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

50 『皇城新聞』 1898년 11월 4일, 5일, 別報

51 『皇城新聞』 1899년 7월 29일, 論說

52 『皇城新聞』 1898년 9월 17일, 論說「清日兩國論」

53 『中東戰紀本末』 권7「宋儒貽禍中國論」

일으켰다.⁵⁴ 조선의 국왕은 임락지에게 수를 놓은 병풍을 선물해 이 책에 대한 관심을 표했는데, 황성신문사의 국한문체 번역서 『중동전기』에 이런 사실이 소개되었다.⁵⁵

임락지의 『중동전기본말』이 박은식의 새로운 역사관 형성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을 양극으로 하는 동아시아 근대사 인식의 생성으로 생각된다. 그의 역사서 『한국통사』는 한국 근대사 이해의 기본 시각을 조선의 개화보다는 중일의 각축에 두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세계 대전으로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통사』의 동아시아사적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⁵⁶

『한국통사』의 세계사적 이해와 동아시아사적 이해는 실제로 『한국통사』에서 발현되는 시대사상의 키워드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 곧 『한국통사』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응시하는 키워드로 자강, 인도, 혁명을 내장했고 이를 통해 자강에 실패한 국망사로서의 한국사와 함께 인도가 결핍한 일본의 침략사로서 동아시아사, 근대 변혁 주체의 혁명사로서 세계사를 구

54 田愚, 『艮齋集前編』 권12 「休言」 71면 ; 郭鍾錫, 『俛宇集』 권102 「答李致三-己亥」

55 『中東戰記』, 「朝鮮宮內大臣致林君樂知謝贈中東戰紀本末書」

56 한편 박은식의 역사관이 『중동전기본말』에 수록된 임락지의 청일론이나 채이강의 송학론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는 임락지의 청일론이 부각하는 중일의 분별에 매몰되기보다는 후발 국가로서 중국의 진보에 주목하고 한중 연대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노관범, 2013, 「대한제국기 『황성신문』의 중국 인식」, 『한국사상사학』45, 한국사상사학회) 그는 채이강의 송학론이 자극하는 도학의 부정에 동조하기 보다는 유교의 구신을 제창하는 태도를 보였다. (『西北學會月報』, 「儒教求新論」 1909.3.)

현했음이 확인된다.⁵⁷ 『태서신사남요』의 서양 근대사, 『중동전기본말』의 동아시아 근대사는 박은식의 한국 근대사 서술에서 세계사적 차원과 동아시아사적 차원의 인식틀을 원형적으로 제공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언론인 박은식의 역사 읽기와 쓰기

앞서 유학자 박은식의 역사 읽기에 대해 논했다. 박은식의 역사 읽기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는 대한제국 초기이다. 1898년 서울에 이주한 그는 본격적으로 서학서를 정독할 수 있었다. 이 때 그가 서울에서 체감한 지성사적 상황을 그는 ‘자유언론’과 ‘세계학설’로 회고했는데⁵⁸ 이는 당시 한국 언론이 신사조를 소개하고 신사상을 고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뜻한다.

당시 한국 언론은 한국사와 세계사에 관한 기사를 쏟아내며 근대사학사의 새로운 현상으로 ‘사론사학’을 개척하고 있었다. 사론사학이란 과거의 사실에 현재의 논제를 결합해 현실 문제의 이해와 대처에 유용한 역사 지식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인 역사학이다. 예컨대 황성신문 논설 「독사유감」은 과거의 폴란드 망국 및 현재의 청나라 위기와 연결시켜

57 노관범, 2009, 「『한국통사』의 시대사상」, 『한국사상사학』33, 한국사상사학회

58 『東亞日報』 1925년 4월 3일 「學의 眞理는 疑로 쫓차 求하라」

우산국의 역사를 민의 우매함이라는 견지에서 독해함으로써 교민敎民의 중요성을 설파했다.⁵⁹ 이것은 대한제국 초기 근대 매체에 출현하는 사론 사학의 역사 기사로서 최초의 망국사론을 발신했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그것은 대한제국 망국사를 은유하는 방편으로 구사된 것은 아니었다. 직접적인 관심은 의화단 사건으로 인한 중국 정세의 격변이었고 이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이 논설보다 한 달 전에 「요계연혁(遼界沿革)」이 작성되었다.⁶⁰

그러나 러일전쟁의 개막과 종결, 그리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변화로 인해 한국의 정세는 급변하였다. 국권 상실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 언론은 이를 비추어줄 세계사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신문 논설에 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선 폴란드, 이집트, 베트남 등의 실패한 역사와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성공한 역사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박은식이 주필로 활동한 『대한매일신보』는 정당의 외세 의존과 국민의 정치 냉담에 따른 폴란드의 멸망이 가리키는 역사의 실패, 그리고 프랑스의 혁명과 미국의 독립과 일본의 유신이 가리키는 역사의 성공, 양자를 거울삼아 한국 국민에게 인순고식(因循姑息)과 분발용진(奮發)

59 『皇城新聞』 1901년 4월 24일, 논설 「讀史有感」

60 『皇城新聞』 1901년 3월 26일, 논설 「遼界沿革」

勇進)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였다.⁶¹ 특히 ‘실정망국(失政亡國)은 사적이 더욱 인심을 감촉(感觸)케 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파란말년전사(波蘭末年戰史)』의 격일 발췌 연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⁶² 이 책은 폴란드의 국망은 외세에 의한 멸망이 아니라 폴란드인의 ‘자망(自亡)’이라 보았고,⁶³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시자립(自恃自立)’의 교훈을 일깨웠다.⁶⁴ 『대한매일신보』 필진은 한국인의 자강사상(自強思想)의 배양을 위한 자강사관(自強史觀)의 수립에 이 책의 진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란말년전사』(어용선(魚瑢善) 번역)가 대한제국 초기부터 한국인 독자와 만난 책이라면 『애급근세사(埃及近世史)』(장지연 번역)는 러일전쟁 직후 한국인 독자와 만난 책이었다. 이집트 당대사를 서술한 이 책은 대한제국의 비극을 성찰할 적실한 타산지석으로 인식되었는데, 『황성신문』은 이 책의 독법을 두 차례 소개했다. 먼저 포스머스 조약과 동시에 신문에 실린 박은식의 기서(奇書)는 이집트 정부의 유럽 모방 정책과 그것이 결과한 외채 문제, 유럽인의 정부 장악과 국왕 폐립, 천하 의사(義士) 아라비의 기의(起義)와 국민당 운동을 서술하였다.⁶⁵ 다시 한 달 후 신문 논설은

61 『大韓每日申報』 1905년 9월 26일, 논설 「警告大韓全國人民」

62 『大韓每日申報』 1905년 10월 20일, 「歷史概要」

63 『波蘭末年戰史』 「波蘭國末年戰史序」, 탐인사, 1899.

64 『波蘭末年戰史』 「波蘭國末年戰史跋」(玄采), 탐인사, 1899.

65 『皇城新聞』 1905년 9월 6일, 기서 「埃及史問答」: 이 글은 박은식이 지은 『埃及近世史』 서문과 일치한다.

외국인이 군침주의로 이집트 외채 문제를 악화시키더니 재정 정리와 정치 개량을 빙자해 이집트 정부를 장악하고 행정·사법·외교를 주관했다고 서술하였다.⁶⁶ 전자와 후자는 이집트 인민의 우매함을 둘러싸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지만 외세의 정부 장악에 따른 국망의 사태라는 인식은 공유하였다.

동시에 대한제국 언론은 『미국독립사(美國獨立史)』, 『법국혁신전사(法國革新戰史)』, 『일본유신삼십년사(日本維新三十年史)』에 주시하였다. 먼저 미국의 경우 『황성신문』은 『미국독립사』를 읽고 논설 난에 미국사론을 개진했다. 미국 독립전쟁이 세계 초유의 ‘의전(義戰)’이고 미국 평민정치가 세계 초유의 ‘인정(仁政)’이라 극찬하고 미국 독립사의 교훈을 논했는데, 무엇보다 정부와 인민의 일체단결(一體團結)에 의해 국가가 구성되기 때문에 인민의 독립정신을 원천으로 정부의 학정(虐政)을 반드시 개혁하는 것이 고금의 통의(通義)라고 주장했다.⁶⁷ 본래 『미국독립사』의 역자 현은(玄隱)의 제언⁶⁸은 국가의 실질적인 독립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 다소 과격한 논조라고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역시 『황성신문』은 『법국혁신전사』를 읽고 논설 난에 법

66 『皇城新聞』 1905년 10월 7일, 논설 「讀埃及近世史」

67 『皇城新聞』 1905년 8월 18일, 논설 「讀美國獨立史」

68 『美國獨立史』, 「美國獨立史序」(玄隱), 황성신문사, 1899 : 신생 대한제국의 독립이 명명은 있으나 실력이 없으니 미국 독립의 역사를 숙지해서 인민 자립으로 국가 자립을 추구하자고 말했다.

국사론을 개진했다. 프랑스 혁명이 ‘이백년래’ 세계사의 ‘개혁 시운’의 흐름에서 일어나는 정치 혁신의 최대 사건이었다고 보았다. 혁명이 가능했던 원인을 몽테스키외, 볼테르, 디드로, 루소 등 여러 학자의 문필 작업과 이에 따른 인심의 고무에서 구했는데, 특히 상공인이 고된 노동 후에 서로 모여 철학을 토론하고 인생을 논변하는 새로운 문화가 발생했음을 말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인민의 사상 혁신이 급선무이고, ‘개혁 시기’에 있는 한국의 착수 지점도 역시 교육과 학문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주장했다.⁶⁹ 이 시기 프랑스 혁명사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면서 『법국혁신전사』에 뒤이어 『법란서신사(法蘭西新史)』도 발간되었다.⁷⁰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언론에서 폴란드와 이집트의 역사,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의 역사에 대한 사론을 신문 지면으로 내보낸 시점이 포츠머스 조약 직전부터 을사늑약 직전까지의 시기 (1905.8.~10.)라는 사실이다. 포츠머스 조약 직전에는 미국 독립사와 프랑스 혁명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69 『皇城新聞』 1905년 8월 24일, 26일, 논설 「讀法國革新史」: 이 글은 프랑스 혁명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 일반의 독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서 흥미롭다. “첨군자는 이런 열국의 역사 실적을 불지라도 모름지기 먼저 그 국민의 원기 여하와 개혁 방침의 원동력이며 그 때 민지의 추향 여하를 불가불 자세히 살펴본 연후야 그 역사를 열독하는 깊은 맛을 얻을지니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십분 독사讀史의 주의 요점을 경성하는 바노라.”(『황성신문』 1905년 8월 26일, 논설 「讀法國革新史」)

70 『法蘭西新史』(玄采 역, 興學社, 1906)는 『泰西新史』에서 프랑스 역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간행한 것으로 이 시기 프랑스 혁명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상승을 반영한다.

정부 학정 개혁과 인민 사상 계몽을 논했다. 반면 포츠머스 조약 직후에는 폴란드 말년사와 이집트 근대사를 통해 자강과 망국의 문제를 논했다. 한국에 들이닥칠 새로운 사태를 예감하고 시국 인식의 적시성을 조정하여 세계사 사론의 주제를 전이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침내 한국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상실했고 일본은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이를 가시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 언론은 미국과 프랑스의 근대사를 통해 정부 개혁과 인민 계몽의 문제를 절감하면서도 동시에 폴란드와 이집트의 근대사를 통해 국가 쇠망의 시국을 통절하게 인식하였다. ‘독립사’와 ‘혁신사’의 역사관과 ‘말년사’와 ‘근세사’의 역사관은 한동안 병존하였다. 이 중에서 전자의 경우 대한제국 초기부터 한국에서 간행된 『미국독립사』(현은 역)와 『법국혁신전사』에 관한 사론이 한국 언론에서 발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유신삼십년사』가 한국 언론에 소개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황성신문』은 이 책이 메이지 일본의 역사 사적으로서 한국의 현시대에 반드시 강구할 모범이 된다고 인식하고⁷¹ 이를 역술하여 장기간 연재하여 일본 근대사의 구체적인 지식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였

71 『皇城新聞』 1906년 4월 30일, 「歷史宜讀」: 이 글은 일본 메이지 유신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학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서 흥미롭다. “고금천하에 사람이 있으면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으면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역사가 있어서 사회 인류의 문야와 국가 정치의 득실을 명료하게 환히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열국의 박학한 선비가 역사학을 전공한 자가 많아서 자기 학술에만 정진하고 더욱 정진할 뿐만아니라 자국의 문야와 득실에 크게 영향이 있고 크게 비익이 있음을 이로부터 볼 수 있다. 그러니 역사학이 세도 공익에 과연 어떠한가?”(황성신문 1906년 4월 30일, 歷史宜讀)

다.⁷²

후자의 경우 한국 언론에서 신문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의 판보이쩌우[潘佩珠]의 구술과 량치차오[梁啓超]의 편집에 기반한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는 번역자 현채의 재편집에 의해 한국 망국사를 인식하는 역사서로 변신했는데,⁷³ 한국 언론의 사론은 이 점을 고려해 베트남의 망국사로부터 한국 망국사에 관한 사론을 도출하였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국의 반성과 자강이었다. 『대한매일신보』 논설은 한국과 베트남이 강토와 인구, 그리고 문명 수준에서 서로 유사한데 베트남이 내수외교(內修外交)에서 자치자강(自治自強)에 힘쓰지 못해 프랑스의 속방이 되었음을 거울삼아 한국은 반드시 분발자강의 방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⁴ 『황성신문』 논설도 베트남의 참혹한 망국은 베트남의 정교(政敎) 부패와 민지(民知) 미개에 원인이 있음을 강조했는데,⁷⁵ 사실 『황성신문』은 복간 논설에서도 보듯이 한국의 비극이 국민 전체의 ‘우약(愚弱)’ 때문이니 학교 교육으로 민지 개발과 사상 계몽에 힘써

72 본래 『皇城新聞』 연재 국한문체 『日本維新三十年史』(1906.4.30.~1906.12.26.)는 그 번역 저본이 중국인 뤼진[羅晉]의 한역본 『日本維新三十年史』였고 뤼진의 번역 저본은 일본의 『太陽』 잡지의 『明治三十年史』였다.

73 김남이, 20세기 초 한국의 문명 전환과 번역,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146~152쪽

74 『大韓毎日申報』 1906년 5월 5일, 논설 「哀安南」

75 『皇城新聞』 1906년 9월 5일, 논설 「讀越南亡國史」

야 한다는 신념을 지속하였다.⁷⁶ 이와 달리 문제는 일본에 있으며 일본이 프랑스를 본받아 한국을 병탄하고는 학정을 자행하고 있는데 중국 분열과 함께 이는 결국 동아시아의 붕괴와 서양 귀속에 기여하고 일본의 몰락을 수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론도 제기되었다.⁷⁷

전술했듯이 러일전쟁 종결을 전후하여 한국의 언론은 세계 근대사의 교훈을 들려주는 사론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그것은 ‘독립’, ‘혁신’, ‘유신’의 방향(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국가의 미래를 사고하도록 돕는 동시에 ‘말년’, ‘근세’, ‘망국’의 방향(폴란드, 이집트, 베트남)에서 국가의 과거를 성찰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은 세계 근대사의 교훈을 빚진하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국권 상실이 라고 하는 과거의 사태와 국권 회복이라고 하는 미래의 목적이 접합되어 현실의 변혁을 위한 자강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한국의 근대 매체에서 한국 최근사에 관한 역사 서술이 처음 출현하였다. 대한자강회에서 활동하는 장지연이 이 단체의 월보에 발표한 「과거의 상황」(1907.5.25.)이 그것이다. 이 논설은 오늘날의

76 『皇城新聞』 1906년 2월 13일, 논설 「警告同胞」

77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11일, 기사, 「讀越南史有感」: 일본이 한국의 전국을 탈취하고 만백성을 학대하니 한국인이 월남인과 같이 族類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프랑스의 월남인 학대를 본받아 일본이 한국인의 학대를 자행하는데 이는 東亞 전체가 서양인에게 귀속하는 계책이 될 뿐이라는 것, 일본의 한국 병탄과 支那 분열이 일시의 쾌사일지 모르나 韓淸의 멸망과 東亞 대세 붕괴는 일본의 몰락을 수반할 것이라는 논의가 개진되었다.

시각에서 보면 한국 근대사의 기본 요목을 만든 최초의 역사 서술이었다고 하겠고, 실제로 한국 근대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박은식의 『한국통사(韓國痛史)』와도 상통하는 지점들이 있다. 앞서 『황성신문』에 보이는 장지연의 사론사학을 검토하면서 울릉도의 연혁이나 한국 대외교역사에 관한 간단한 골격이 만들어져 시간적인 단락을 제공함을 보았다. 아래에 소개하는 이 글의 결미는 한국의 최근사 인식을 위한 기본 단락 설정의 이해에 요긴하다.⁷⁸

아아, 30년간의 지난 사적을 차례로 소급하면 무릇 누차 변국(變局)이 있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영종도의 포화가 제1의 변국이 되어 마침내 기천 년 쇠국의 자물쇠를 열었다. 갑신년 화변(禍變)에 이르러 제2의 변국이 되어 일청(日淸)의 갈등을 순치했다. 동학의 선란(煽亂)에 이르러 제3의 변국이 되어 동양 전국의 결렬을 양성했다. 독립협회의 파궤(破潰)에 이르러 제4의 변국이 되어 국민 생의(生意)의 두절을 초래했다. 다시 일아(日俄)의 전쟁의 결국에 이르러 제5의 변국이 되어 마침내 오늘날의 비경(悲境)을 만들었다. 장래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상을 갖고 추론하면 오늘날의 변국은 곧 궁극의 변국이라 어찌면 장차 선변(善變)하면 필시 형통하는 운수에 이를까?

78 『大韓自強會月報』11, 「過去의 狀況」 1907.5.

이것은 한국 최근사의 변곡점을 ①영종도 사건(개항통상), ②갑신정변(청일 충돌), ③동학운동(동양 결렬), ④독립협회 혁파(진보 좌절), ⑤러일전쟁 종결(현재의 비극) 등으로 제시한 것이다. 만약 이 단락으로 역사책의 골격을 구성한다면 변곡점①에 상응하여 제1장에 들어갈 내용은 서교 학술 및 금령,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영종도 사건, 통상조약과 개항 등이다. ‘서교 학술’이 ‘일대변혁의 효시’라고 단언함으로써 한국 근대의 변혁 기점을 천주교의 전래와 수용에서 구하였다.

변곡점②에 상응하여 제2장에 들어갈 내용은 조선자주 문제, 임오변란, 한일속약과 한미조약, 제물포 개항과 각국 통상, 아문(衙門) 설치와 개국(開局), 그리고 갑신정변 등이다. 조선 정부의 새로운 기구 설치에 개혁사상의 면목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가장외식(假裝外飾)’에 불과했고 ‘개명전진(開明前進)’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논했다. 갑신정변의 경우 정변 주체의 사상은 ‘개진혁신’이었고 오로지 정권 다툼은 아니었지만, 조급하게 일으킨 정변의 실패로 인해 혁신파가 몰락하고 외세가 치성하게 되었음을 논했고 현재의 비극을 초래한 죄를 회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변곡점③에 상응하여 제3장에 들어갈 내용은 동학운동과 청일전쟁이다. 조선의 동학은 청나라의 권비(拳匪)와 비교해 화국(禍國)의 요열(妖孽)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혁내(革內)’와 ‘배외(排外)’의 상이점이 있다고 서술되었다. 동학운동은 정부의 가정(苛政)과 호강(豪強)의 핍박을 받는 우

매한 소민의 봉기와 전국적인 진동으로 보았고 청일전쟁은 그 결과 ‘지나 분열의 화란’과 ‘한국 흥망의 기틀’이 되었음에 주목했다. 여기서 한국 흥망이란 대한제국의 부침을 뜻하는데 곧 ‘청일전쟁과 대한제국’의 맥락적 사고를 한국 현실의 인식에 부여한 것이다.

변곡점④에 상응하여 제4장에 들어갈 내용은 갑오개혁과 독립협회가 다. 갑오개혁 인식의 주안점은 정치 쇄신, 급격과 실패, 러일전쟁의 기인 등에 있었고, 독립협회 인식의 주안점은 애국사상, 정치 쇄신, 급격과 실패, 국가 주권과 민권 등에 있었다. 갑오개혁 국면에서 명시된 ‘독립부식(獨立扶植)’이 ‘허명(虛名)’과 ‘실화(實禍)’였기에 오늘날의 귀감이 된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이 독립의 실질이 없이 허명을 유지해서 국권 상실의 화란을 만났다는 현실인식의 투영이라 할 수 있다.

변곡점⑤에 상응하여 제5장에 들어갈 내용은 러일전쟁 종결 이후 한국의 국권 상실이다. 독립협회 혁파 이후 ‘독립’이 기휘되어 국민사상이 부패했고 러일전쟁 발발 후에도 자신의 독립을 타인에게 의지할 뿐 ‘자립자진(自立自進)’의 사상이 없었으며 결국 국권 상실의 비극 속에서 모멸과 절감을 체감한 뒤에 겨우 ‘분발만회(奮發挽回)’의 의념이 발생했다고 서술했다.

장지연의 논설 「과거의 상황」은 한국의 최근 역사를 서술했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국권 회복이라는 미래의 시간과

국권 상실이라는 과거의 시간이 접합해 있는 특수한 시대 환경에서, 과거의 사실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이르는 당대 현실을 고찰하여 미래의 결과를 추지한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이었다.⁷⁹

그러나 현재의 시간은 언제나 유동적이며 이에 따라 당대 현실은 변화한다. 장지연의 논설로부터 두 달 지나 이번에는 박은식의 논설이 출현하여 한국의 최근사를 다시 서술하였다. 곧 그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한 「대한삼십년간변란역사(大韓三十年間變亂歷史)」는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하여 한국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전망한 논설이었다.⁸⁰ 박은식의 논설이 장지연의 논설과 비교해 한국 최근사 인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한이 과연 어떤 변국(變局)을 만났는가? 기왕 기백 년은 논하지 말고 다만 그 30년간의 역사를 들어 논해도 저간의 변란의 일어남이 모두 몇 차례였는가? 임오년의 요(擾)가 일어나 청일 양국의 군사가 경내(境內)에 주둔했고 갑신년 변(變)이 일어나 어가의 파천이 있었다. 갑오년 동학이 난(亂)을 창도하여 동양의 대국이 요양(擾攘)했고 을미년 불측(不測)의 화란이 일어나 국모 시해의 변(變)이 있었다. 갑진년의 한일의정서와 을사년의 신조약 능성(勒

79 『大韓自強會月報』11, 「過去의 狀況」 1907.5.

80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26일, 논설 「大韓三十年間變亂歷史」

成)이 사변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니, 일체 국권이 차례로 외국인에게 피탈된 일이 날마다 발생하여 역사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필경 황위(皇位)를 폐립(廢立)하는 일이 있었으니 무릇 이 7, 8차례의 큰 변란이 모두 역사상에 비상한 명운이다.

박은식의 위 논설은 한국 최근사의 주요 변국을 ①임오군란(1882), ②갑신정변(1884), ③동학운동(1894), ④을미사변(1895), ⑤한일의정서(1904), ⑥을사늑약(1905), ⑦고종 황제 폐위(1907) 등으로 제시하였다. 장지연의 앞 논설이 한국 최근사의 주요 변국을 ①개항(1876), ②갑신정변(1884), ③동학운동(1894), ④독립협회(1896), ⑤러일전쟁 종결(1905) 등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양자 모두 과거의 ‘30년’을 돌아보고 변국을 살폈는데, 의외로 공통점은 갑신정변과 동학운동의 2개 항목에서 그쳤다. 장지연의 논설에서 변국으로 설정된 개항과 독립협회가 박은식의 논설에서는 변국으로 설정되지 않으며, 박은식의 논설에서는 변국으로 설정된 임오군란과 을미사변이 장지연의 논설에서는 변국으로 설정되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더욱 중요한 것은 러일전쟁 기간과 그 이후의 시기에서 한국 최근사의 변국을 투시하는 박은식과 장지연의 시각 차이이다. 박은식과 장지연 모두 러일전쟁 결과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했고 그것이 한국 최근사의 중요한 변국이라

고 인식한 것은 동일했다. 하지만 박은식은 한국 국권 상실의 원인을 일본의 외침外侵에서 구했고 그런 관점에서 한일의정서와 을사늑약을 변국의 주요 사건으로 설정했지만, 장지연은 한국 국권 상실의 원인을 한국의 내파內破에서 구했고 그런 관점에서 독립과 자강을 향한 사상의 혁신을 중시했다.

박은식의 논설은 한국 최근사 서술에서 변국의 설정 방식이 장지연의 논설과 다르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한국 최근사에서 변국(변란)이 지속한 이유를 찾는 방식이 장지연의 논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 더욱 흥미롭다. 즉, 박은식은 만약 대한 인민이 제1의 변란에서 정신을 수습해 발분자강했으면 제2의 변란이 없었을 것이고 제2의 변란에서 설치雪恥를 다짐하고 실력을 배양했으면 제3의 변란이 없었을 터인데, 염희恬嬉와 태타怠惰 속에 아무런 자각이 없이 지내다가 대세가 지나간 지금에야 조금 자각하게 되었음을 통분해 했다.⁸¹ 이것은 장지연이 한국 최근사에서 특정한 제5기의 변국에서 논한 한국 국민의 사상 부패의 문제, 곧 자강사상의 결핍 문제를 한국 최근사에서 모든 변국을 아우르는 문제로 인식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변국 발생의 통시적 인식과 관련하여 앞 단계에서 징비懲毖에 실패해서 뒷 단계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일종의 ‘징비사관’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것은 이 논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

81 위와 같음

니라 아래에서 보듯 그의 저술 『한국통사』에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사관이
이었다.⁸²

우리 임금과 신하가 임오년의 변란으로 인해 그 환난을 잊지 않아 삼가고 두려워하며 정성을 다해 올바른 정치를 도모하며, 마치 위나라 문공이 인재 교육에 힘쓰고 농사를 가르치며 상업을 통하고 공인에게 혜택을 주며 교육을 공경히 하고 학문을 권장했던 것처럼 했더라면, 갑오년의 변란은 발생할 이유가 없었고 자강의 실력으로 중흥의 터전을 세워 문명이 진보함에 열강과 병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갑오년과 을미년의 사변을 겪고 그 치욕을 잊지 않아 거적자리에서 창을 베고 쉼자리에서 누워 쓸개를 맛보아 마치 월나라 구천이 가난한 사람을 진휼하고 죽은 사람을 조문하며 인구를 늘리고 재물을 비축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처럼 했더라면 10년간 우리나라는 진보하여 독립을 유지했을 것이고 교활하게 문을 열려고 생각한 자들도 틈을 타서 마음 먹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국사학사에서 박은식의 『한국통사』는 한국 근대사의 고전적인 저술로 높이 평가된다. 그 명성과 달리 실제 그 역사관이나 역사서술의 구체

82 『韓國痛史』 제3편 제42장 「日人之監制韓皇」: 번역문은 『박은식·신규식』(노관범 편저, 창비, 2024) 198쪽

적 현장에 관한 지식은 만족스럽게 축적되어 있지 않다. 한국 근대 매체의 역사 서술에 보이는 ‘당대사 쓰기’의 시도는 『한국통사』의 역사적 이해에 보탬이 될 것이다. 박은식 논설의 ‘당대사 쓰기’는 이후 한국 근대사의 역사 서술과 어떻게 얹혀 있을까?

토론문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 서술」 토론문

최기영(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백암 박은식 선생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박은식의 역사학과 한중연대,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을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준비되어, 노관범 선생님이 박은식의 역사관과 역사 서술을 새롭게 검토하셨습니다. 노 선생님은 오래전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을 주제로 학위를 한 전문가로 박은식에 관련된 논문도 많이 발표하였고, 근래 유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 근대사상사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문을 읽으며 박은식의 역사학자로서의 배경을 깊게 알 수 있었음과 동시에, 해박한 문헌 지식과 그것들을 연계시키는 노 선생님의 학문적 내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에 『백암 박은식 전집』 6권을 돌아가신 윤병석 선생님의 주도로 현재 백암학회 회장인 윤경로 선생님 등 여러 전문가와 편찬작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노 선생

님의 발표를 통하여 많은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노관범 선생님은 『백암 박은식 평전』(도서출판 이조, 2021)에서 박은식의 학문 형성을 자세히 기술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하니, 평전에서 언급한 학문의 수학과 관심이 바로 역사가 박은식을 이룬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자로 역사 문헌 독서의 경험으로 경화학계의 대명의리론을 비롯한 주자학적 전통과 자국 역사에 관심 등을 얻을 수 있었고, 중국에서 간행된 서양인의 역사 서 등에서 얻은 세계사와 동아시아 차원의 인식틀이 바로 박은식 역사관의 구성 요소였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대한제국기 언론인으로서의 현실 인식과 역사 서술을 통하여, ‘징비사관(懲毖史觀)’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곧 외국사의 독립-혁신과 말년-망국의 양상을 통한 역사 인식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국사를 이해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북학보월보』 제1호(1908. 6)에 수록한 「하오동문제우(賀吾同門諸友)」에서 박은식이 서울에 올라온 뒤(40세 전후) 동서 각국의 신서적을 보고 천하의 대세와 시국의 정형을 보게 되었다고 한 기록이 떠오릅니다(“…及其來留京師^하는 始也에도 猶是宿志를 不變^하고 新學를 厭聞^하는 主義러니 乃東西各國의 新書籍이 偶然觸目^하면 天下의 大勢와 時局의 情形을 觀測^하음이 有^하야 今日 時宜가 不得不 變通更新^하여야 吾國을 可保^하고 吾民을 可活인 거을 覺知^하는 지라…”).

노관범 선생님의 발제문으로 박은식 역사학 형성의 전사적인 요소를 비롯하여 여러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논지에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지만, 자리에 불러 나온 만큼 한두 가지 노 선생님의 보충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박은식이 한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혼론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박은식 사학의 기초를 국혼론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한국통사』의 저술까지 사회진화론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문제, 곧 보국(保國)과 보종(保種)도 결국 이와 다르지 않은 주제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혼론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노 선생님의 글에는 양계초의 영향이나 관계가 크게 논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말 다른 지식인이나 역사가들이 양계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은식의 역사학과 학문, 사상에는 양계초의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유교구신론」과 양명학에의 경도, 대동교의 창교는 박은식의 실천적 유교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는데, 혹 양계초의 유교개혁 지향과는 무관한 것인지요.

한말 이른바 애국계몽사학이 민족주의사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논의할 때 흔히 박은식과 신채호, 장지연의 역사학을 내세웁니다. 논문의 마

지막 부분에 박은식과 장지연의 한국 최근사 인식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논급하였는데, 이분들의 역사학을 모두 다룬 바 있는 노 선생님이 그 역사학의 동일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朴殷植 『韓國痛史』의 사학사적 검토

: 당대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조범성(송실대학교)

1. 머리말
2. 『韓國痛史』의 간행과 조선총독부 필사본에 대한 검토
3. 『韓國痛史』가 식민주의 역사학에 미친 영향
4. 맺음말

朴殷植 『韓國痛史』의 사학사적 검토

: 당대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조범성
송실대학교

1. 머리말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은 신채호(申采浩)와 더불어 한국 근대 역사학의 기초를 세운 대표적 사상가이자 역사학자로 평가된다. 그는 국권이 상실된 비극적 현실 속에서 역사 서술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존립 근거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의 역사 저술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망국의 원인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민족의 자주적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지식인의 실천적 노력의 산물이었다.

특히 1915년 상하이[上海]에서 간행된 『한국통사(韓國痛史)』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집약된 대표작으로,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민족사의 상처와 그 극복 의지를 동시에 담아냈다. 이 저서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부패로 인해 나라를 잃게 된 비극의 역사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민족

의 정신사를 재건하려는 시도로서 식민지시기 지식인의 저항적 역사담론을 형성했다. 또한 『한국통사』는 한국 역사학이 전통적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근대적 서술 구조로 진입하는 실험적 성격을 지닌다. 그는 사건의 연대기적 배열 대신, 주제별 분석과 원인·결과의 논리적 전개를 시도함으로써 근대적 역사학의 방법론을 모색했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한국 근대 역사학에서 중요한 전범이 되었으며, 민족주의 역사학의 이념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통사』는 단순히 망국의 역사를 기록한 비통의 서가 아니라, 역사 인식의 전환과 지식인의 실천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박은식의 저술은 식민지 현실을 넘어 민족의 자주적 역사의식을 되찾고자 한 지적 투쟁의 결과로서, 오늘날에도 한국 근대사와 근대 역사학의 성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박은식과 『한국통사』에 대한 평가나 연구는 일제강점기 당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통사』의 사학사적 의의는 그것이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강점 이후 식민지 통치권력이 구축하고 있었던 식민주의 역사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전반에 걸쳐 진행된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과 이후 『조선사』 편찬사업의 방향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

을 했다. 『한국통사』가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¹ 그러나 『한국통사』가 당대 식민주의 역사학에 미친 영향을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물론 조선총독부나 경성제국대학 등 식민주의 역사학을 생산·교육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일본인 관료·연구자들의 기록에서 『한국통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지극히 힘들다. 다만, 『한국통사』가 간행되어 활발히 유통되고 있던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전반 시기에 조선총독부에서 기획·편찬한 당대사(근대사) 서술에서 『한국통사』의 영향력을 일부분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한국통사』에 대응하기 위해 집필에 박차가 가해졌던 『조선반도사』의 당대사 부분 서술이라면 한번 쯤 비교 검토를 시도해볼 만하다. 아울러 『한국통사』가 상하이의 ‘대동편역국’에서 발간된 일을 둘러싸고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는 듯하며, 기존에 『한국통사』의 필사본으로 알려진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간 축적된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통

1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89; 조동걸, 『현대한국사학사』, 나남출판, 1998; 이만열,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장신,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장신, 「일제하 민족주의 역사학의 유통」, 『한국학』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김태웅, 「일제강점기 朴殷植의 《韓國痛史》 출간과 筆寫本의 특징」,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2018.

사』가 1915년 상하이 대동편역국에서 간행된 배경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거쳐, 국내·외에 보급·확산되고 또 식민당국이 이에 금지 처분과 필사본 제작 등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통사』 발간 및 유통의 여파로 급물살을 타게 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전개 양상과 한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나아가 『조선반도사』 중 ‘최근세사’ 편의 원고로 출발했던 『조선사대계 최근세사』(조선사학회 발행, 1927)의 목차와 서언을 『한국통사』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통사』가 당대 식민주의 역사학의 한국근대사 서술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각 저술의 의도와 식민통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것이다.

2. 『韓國痛史』의 간행과 조선총독부 필사본에 대한 검토

(1) 『韓國痛史』 간행과 보급

『한국통사』는 주지하다시피 고종 즉위년인 1864년부터 105인 사건이 있었던 1911년까지를 서술한 382쪽 분량의 3편 114장으로 구성된 한문체 역사서이다.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계통을 간결히 제시한 제1편, 대원군 섭정으로부터 근대적 개혁 시도와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 대한제국 성

립 이전의 변동을 평가한 제2편,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 이후 일제의 침략 과정과 이에 대한 의병운동 및 애국계몽운동 등 항일투쟁을 다룬 제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은식은 이 저작에서 대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잔혹성과 간교함을 폭로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적 통분을 일깨워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을 제공하려 했다. 또한 ‘국혼(國魂)’과 ‘국백(國魄)’을 구분하여, 일제에게 빼앗긴 것은 ‘국백’뿐이며 ‘국혼’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지켜야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한민족이 전개한 개혁과 구국운동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짚으며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후대에 침략의 교훈을 남기려 했다. 『한국통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기전체(紀傳體)나 편년체(編年體)의 틀을 벗어나 사건과 사실을 인과관계 속에서 서술한 근대적 역사서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한국 근대 역사서술의 새로운 전범(典範)이 되었다.

박은식은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1904년 이전부터 각종 신문, 법령집, 조약문 등 많은 자료를 수집·정리해왔으며 1911년 국외로 망명하기까지의 기간에 이미 『한국통사』의 집필이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 망명 이후에는 대중교 간부인 윤세복(尹世復)이 운영하던 동창

2 김태웅, 「일제강점기 朴殷植의 《韓國痛史》 출간과 筆寫本의 특징」,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2018, 141쪽.

학교(東昌學校)에서 강의하며 『대동고대사론(大東古代史論)』, 『명림답부전(明臨答夫傳)』, 『발해태조건국지(渤海太祖建國誌)』, 『천개소문전(泉蓋蘇文傳)』, 『동명성왕실기(東明聖王實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 『안중근(安重根)』 등 상고사와 인물전을 잇따라 집필하면서도 『한국통사』의 발간을 꾸준히 준비했다.³

당시 박은식은 망명자 신분이었는데다가 『한국통사』의 내용상 일제의 검열과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이를 국내에서 출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국 측 인사들과의 교유관계를 통해 상하이에서 『한국통사』의 출간을 도모했던 것이다. 『한국통사』는 1915년 6월 상하이의 ‘대동편역국(大同編譯局)’을 통해 발간되었는데, 이는 1897년 량치차오[梁啟超], Kang광렌[康廣仁] 등이 상하이에 설립한 편찬·출판기관이었던 대동역서국(大同譯書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 대동역서국은 일찍이 『지구오십대전기(地球十五大戰紀)』(賴鴻翰 역, 1897), 『아토전기(俄土戰紀)』(湯叡 역, 1897) 등 서양 서적과 함께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1897), 『공자개제고(孔子改制考)』(1897), 『남해선생칠상서기(南海先

3 윤병석, 「朴殷植의 민족운동과 《全集》 편찬의 의의」,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966쪽.

4 다만 중국 바이두백과의 대동역서국(大同译书局) 항목을 보면 대동역서국은 무술정변(1899) 이후 개혁운동이 실패하면서 폐쇄되었다고 한다(<https://baike.baidu.com/item/大同译书局/15935274>, 검색일: 2025년 10월 10일). 대동역서국 및 대동편역국의 실체와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보인다.

生七上書記』(1898) 등 강유웨이[康有爲]의 저서들을 재간행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번역·출판 사업을 추진했다.⁵ 박은식이 창해노방실(滄海老紡室)이라는 필명으로 1914년 출간한 『안중근』도 판권에 ‘대동편집국(大同編輯局)’ 간행으로 되어 있는데,⁶ 이 또한 같은 발행처로서 이 무렵 회사 명칭이 일시 변경되었거나 모종의 사정으로 표기를 약간 달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통사』가 대동번역국과 만나게 된 배경에는 박은식이 강유웨이 등 중국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다. 당초 대동역서국의 경리(經理: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강광렌은 강유웨이의 동생이었으며, 이후에도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박은식은 1914년 5월 말경 홍콩에서 망명 이전부터 교분이 있던 산청 지역 유생 이병헌(李炳憲)의 소개로 강유웨이와 면담을 한 이래 교류를 이어갔는데,⁷ 이것이 박은식의 『한국통사』와 『안중근』이 대동번역국(편집국)에서 발

5 배정환, 「戊戌維新 전야 개혁파의 아시아 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70, 중국근현대사학회, 2016, 10쪽.

6 「安重根傳」, 『한국학연구』 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 106쪽. 해당 자료는 윤병석 교수가 1989년 10월 연변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발견했는데, 앞뒤의 몇 장이 낙질된 상태였다. 이후 윤병석 교수는 1992년 카자흐스탄공화국 알마타의 사회과학도서관 ‘고려사범학교’와 일본 도쿄 국제한국학연구원에서 해당 자료를 추가로 발견했고, 낙질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학계에 소개했다.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 112~1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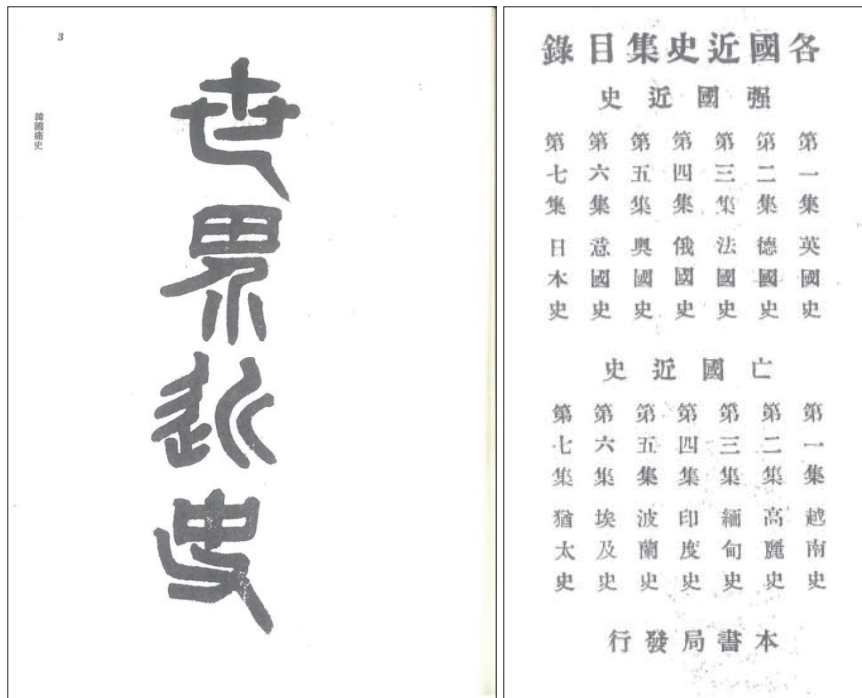
7 배정환, 「중국망명시기(1910-1925)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향강잡지》, 《국시보》, 《사민보》의 분석」, 『동방학지』 12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236쪽.

간되는 계기로 이어졌을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한국통사』에 Kang Yu-wei의 서문이 실렸던 것도 두 사람 간의 두터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당시 대동편역국은 세계 각국의 근대사를 시리즈로 발행하고자 했고, 강대국의 근대사로는 영국사·독일사·프랑스사·러시아사·오스트리아사·이탈리아사·일본사를, 망국의 근대사로는 월남사·고려사·미얀마사·인도사·폴란드사·이집트사·유태사 등을 기획했다. 실제로 『한국통사』 별면에는 광고 형식으로 대동편역국에서 기획했던 ‘각국근사집(各國近史集)’의 목록이 소개되어 있다.⁸ 그런데 이 각국근사 시리즈가 모두 발간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며, 『한국통사』도 이러한 시리즈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는지도 확실치는 않다. 다만 『한국통사』 1915년 초판본 표지에는 ‘세계근사(世界近史)’라는 표제가 붙어있어, 대동편역국의 기획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 어쨌든 박은식이 오랜 기간을 두고 자료를 수집·정리하면서 집필해온 『한국통사』는 대동편역국이라는 활로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한국통사』는 1915년 6월 상하이에서 간행된 이후 해외 각지의 한인 사회와 국내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먼저 미주지역에서는 출간 소식이 같은

8 이 중 ‘고려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국통사』였다는 의견이 있다(김태웅, 「일제강점기 朴殷植의 《韓國痛史》 출간과 筆寫本의 특징」,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2018, 143쪽).



『한국통사』 초판본 표지의 '세계근사(世界近史)'와
별면의 '각국근사집목록(各國近史集目錄)'

해 8월 『신한민보』에 처음 보도⁹되었고, 이대위(李大爲)의 한글 번역본 연재¹⁰와 함께 보급을 위한 홍보·의연 활동이 전개¹¹되었다. 하와이에서는 『국민보』를 통해 소개¹²된 이래, 1917년 6월 김병식이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¹³ 또 간도 신흥무관학교 기관지 『신흥학우

9 「한국통사 발행」, 『신한민보』, 1915년 8월 19일.

10 「한국통사」, 『신한민보』, 1915년 9월 2일.

11 「한국통사 리도」, 『신한민보』 1915년 11월 11일; 「특고」, 『신한민보』 1915년 11월 11일; 「통사 연금감하장」, 『신한민보』, 1916년 4월 6일.

12 高圖秘 第227號(1916. 6. 20), 「出版物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13 「한국통사 사시오」, 『국민보』, 1937년 1월 13일(해당 기사는 1937년 3월 10일까지 간헐적으로 실렸다); 黃元九, 「1917년판 번역본 《한국통사》」, 『東方學志』 23·24, 연세대학

보』에 1916년 5월 『한국통사』를 권하는 글¹⁴이 실렸으며, 러시아의 치타(Chita)에서도 김신부(金神父)가 『한국통사』를 번역해서 판매¹⁵하는 등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서도 보급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와 일본의 경우 1917년 7월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의 장덕수(張德秀)·홍진의(洪震義)가 상하이로부터 『한국통사』 200부를 주문한 뒤 유력한 일본 유학생 동지들에게 우선 배부하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여름방학 때 조선으로 귀향하는 사람들에게 1~2부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¹⁶하였다.¹⁷

실제로 『한국통사』가 당대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했다. 경남 진주의 유학자 하겸진(河謙鎭, 1870~1946)은 『한국통사』의 결론 일부를 자신의 문집에 인용하면서 일제가 『한국통사』를 없애려는 책동을 비판하고 ‘국교(國敎)와 국사(國史)가 망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박은식의 사론(史論)에 적극 공감하였다.¹⁸ 또 1940년대 일제의 학병 입대에 거부하여 원산철도공장에 주물공으로 징용당했던 국문학자 김동욱(金東旭, 1922~1990)도 『한국통사』를 읽지 않았다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

교 국학연구원, 1980.

14 高圖秘 第227號(1916. 6. 20), 「出版物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15 「한국통사를 아문으로 번역」, 『신한민보』, 1917년 9월 27일.

16 『大正七年五月三十一日調 極秘 朝鮮人概況 第二』, 1918, 57쪽.

17 이상 장신, 「일제하 민족주의 역사학의 유통」, 『한국학』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248~250쪽 참조.

18 「記朴謙谷殷植韓國痛史結論一段」, 『晦峯集』

을지도 모른다고 회고¹⁹했다.²⁰

(2) 『韓國痛史』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

이러한 『한국통사』의 광범위한 확산과 다대한 영향력에 놀란 조선총독부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통사』에 1915년 11월 5일과 1916년 4월 4일 두 차례나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내렸다. 금지 처분이 내려진 책의 제목은 『세계통사(世界痛史)』와 『각국근사(各國近史)』로, 두 책은 내용이 똑같고 표지만 다르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²¹ 당시 『한국통사』가 두 가지 형태의 표지로 시중에 보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식민당국은 해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신한민보』·『국민보』 등의 신문에 『한국통사』 관련 기사가 게재될 때마다 압수할 정도로 『한국통사』의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²²

그런 한편으로 조선총독부는 『한국통사』를 저본으로 필사본을 생산했

19 「고시이스트」, 『동아일보』 1963년 9월 13일.

20 이상 김태웅, 「일제강점기 朴殷植의 《韓國痛史》 출간과 筆寫本의 특징」,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2018, 145쪽 참조.

21 高圖秘 第151號(1916. 4. 4), 「出版物差押處分ノ件」,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世界痛史’의 경우 당시 경무총감부에서 『한국통사』 초판본의 표지에 인쇄된 ‘世界近史’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22 高圖秘發 第154號(1916. 4. 12), 「新聞紙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高圖秘收 第225號(1917. 6. 29), 「新聞紙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高圖秘 第14,296號(1917. 8. 15), 「新聞紙差押ノ件通報」, 『朝鮮總督府通報』 第二卷. 장신, 「일제하 민족주의 역사학의 유통」, 『한국학』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248쪽 참조.

다. 하나는 중추원에서 제작한 『각국근사(各國近史)』이고 또 하는 이왕직에서 제작한 『약기편람(略記便覽)』이었다. 이들은 각각의 정치적 목적 아래 생산된 왜곡된 이본(異本)이다. 먼저 『각국근사』는 1920년경 중추원 속(屬) 아리가 케이타로[有賀啓太郎]가 필사한 것으로, 『한국통사』의 체재를 그대로 따르되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다. 이 필사본은 명성황후 시해, 독립협회운동, 의병항쟁 등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왜곡하였고, 을사늑약 반대운동을 ‘망동(妄動)’, 군대해산 의병항쟁을 ‘요란(擾亂)’으로 규정하는 등 일본인 저술을 인용하여 사건의 진상을 바꾸려 했다. 나아가 박은식의 논평은 누락시키고 일본의 내정 간섭을 미화하는 내용을 삽입하기도 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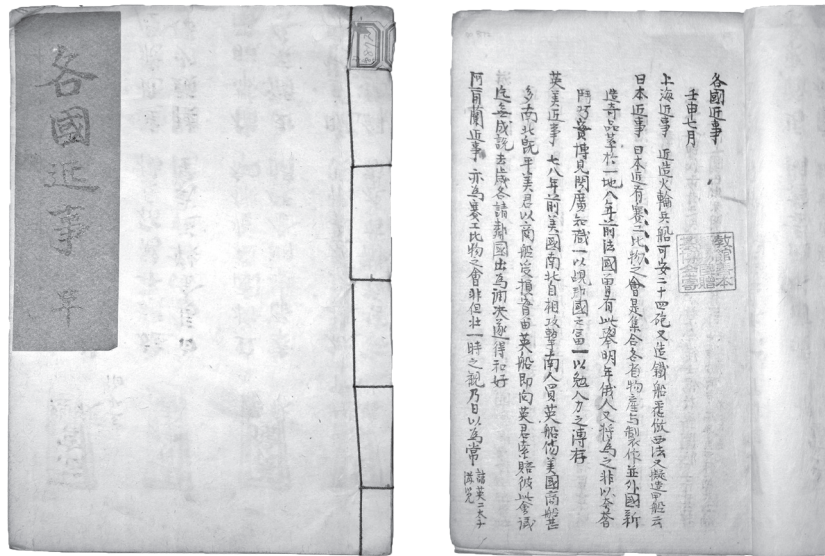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각국근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며, 이와 별도로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에도 『각국근사』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²⁴ 그런데 필자가 숭실대 도서관 소장본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는 『한국통사』의 필사본이 아닌 다른 자료로 밝혀졌다.

숭실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표제가 各國近‘史’가 아닌 各國近‘事’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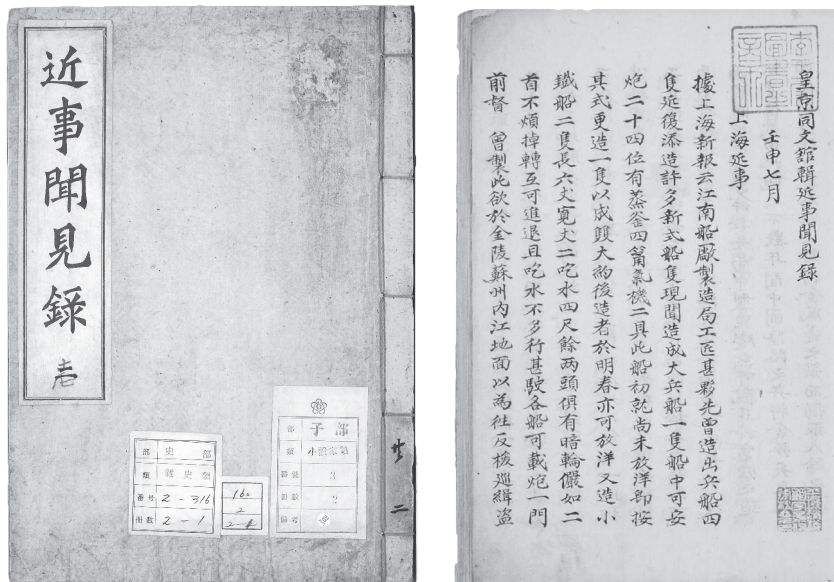
23 김태웅, 「일제강점기 朴殷植의 《韓國痛史》 출간과 筆寫本의 특징」,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2018, 147, 164~165쪽.

24 숭실대 도서관 소장본은 훼손 방지를 이유로 대외적으로 복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다(김태웅, 「일제강점기 朴殷植의 《韓國痛史》 출간과 筆寫本의 특징」,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2018, 146쪽).

며, 본문도 『한국통사』와는 무관하다. 해당 자료의 원본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숭실대 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各國近事(各國近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近事聞見錄(近事聞見錄)』

복본으로 파악된다.²⁵ 표지를 포함해서 총 39면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 저자나 발행처, 발행년도 등의 서지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

이 자료는 구성과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사문견록(近事聞見錄)』과 상당히 유사하다. 『근사문견록』은 청 말기 베이징[北京]에 세워진 관립외국어학교 동문관(同文館)에서 편집한 자료이며, 당시 천주교 교리를 전파할 목적으로 1872년 7월부터 1875년 7월까지 베이징에서 간행된 월간지 『중서견문록(中西聞見錄)』에서 「각국근사(各國近事)」 부분만을 선별하여 필사한 것이다.²⁶ 장서각 소장본은 불분권(不分卷) 2책 구성으로 1권 140면, 2권 128면이며, 숭실대 도서관 소장본보다 훨씬 분량이 많다. 따라서 숭실대 도서관 소장 『각국근사』는 장서각 소장 『근사문견록』의 발췌본 또는 요약본이거나, 혹은 별개의 필사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는 아니므로, 해당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또 하나의 필사본인 『약기편람』은 이왕직이 고종·순종실록 편찬 과정에서 『한국통사』의 일부를 참고하기 위해 발췌해서 필사한 것이다. 임오군란·갑신정변 등 조선 왕실의 운명과 직결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필사하되, 여기에 『승정원일기』나 ‘의정부초기(議政府草記)’ 등 자료를 덧붙여

25 자료 곳곳에 ‘기독교박물관김양선기증본’이라는 인이 찍혀 있다.

26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근사문견록(近事聞見錄)’ 항목 참조(검색일: 2025년 10월 15일).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인의 주권수호운동, 의열투쟁 등 항일 서술은 대부분 생략되었다. 요컨대 『각국근사』와 『약기편람』은 모두 『조선반도사』 및 고종·순종실록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된 『한국통사』의 필사본으로서, 자신들의 역사편찬 및 정책수립 업무에 참고하는 동시에 이본화하여 『한국통사』의 취지와 의미를 훼손시키고자 했다.²⁷

『한국통사』는 박은식이 일제 침략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독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집필해온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는 중국 망명 중 Kang Yu-wei 등 중국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하이 대동편역국에서 1915년 『한국통사』를 출간할 수 있었고, 이는 미주·만주·러시아·일본·국내로 널리 보급되어 한국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한국통사』의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신문 기사를 검열하는 한편, 『각국근사』와 『약기편람』 등 필사본을 만들어 항일 서술을 왜곡하고 식민지 지배 정책과 역사편찬에 참고하려 했다.

27 김태웅, 「일제강점기 朴殷植의 《韓國痛史》 출간과 筆寫本의 특징」,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2018, 147, 164~165쪽.

3. 『韓國痛史』가 식민주의 역사학에 미친 영향

(1) 조선총독부 『朝鮮半島史』 편찬사업의 변화

당초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수사사업(修史事業)으로 기획되었으며, 1915년 7월 중추원이 참서관실의 구관조사 업무를 인계받으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15년 6월 상하이에서 『한국통사』가 간행되고 이윽고 국내·외에 빠르게 유통되자, 소식을 접한 조선총독부는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사업의 진행을 서두르면서 병합의 의의를 선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편찬 목적을 구체화하였다. 편찬에는 조선 귀족(심사위원), 중추원 의원(조사주임), 학자·관료(편집주임) 등이 참여했으며, 실질적 기획과 집필의 중심은 편집주임이었다. 『조선반도사』 편찬의 주안점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족이라는 인종적 동질성의 강조, 일본의 조선 강점이 왕조의 흥망에 따른 고통을 종식시켰다고 서술하는 역사상, 그리고 ‘모두’(일본인 학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편찬하는 것 세 가지였다. 조선반도사의 체계는 삼한·상고에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조선최근세사까지 여섯 시기로 구분되었고, 세부 목차와 부록 등 구체적 방침이 확정되었다.²⁸

28 장신,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382쪽.

다음은 『조선반도사』의 편찬 요지로서, 당시 조선총독부가 받은 충격과 조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조선인은 여타의 식민지의 야만반개(野蠻半開)한 민족과 달라서 독서와 문장에 있어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지는 바가 없다. 고래로 사서(史書)가 많고 또 새로이 저작에 착수된 것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빠뜨리고 있어 헛되이 독립국 시절의 옛 꿈을 추상(追想)하게 하는 폐단이 있다. 후자는 근대 조선에서 일청(日淸)·일로(日露) 간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의 나아갈 바를 설파하고 혹은 『한국통사(韓國痛史)』라고 일컫는 한 재외조선인의 저서 같은 것이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妄說)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적(史籍)들이 인심을 현혹시키는 해독(害毒)은 실로 말로써 이루 다 할 수 없는 바 있다. 이를 멸절시킬 대책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헛되이 힘은 들고 성과는 없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혹은 그 전파를 장려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구사(舊史)의 금압(禁壓) 대신 공명적확(公明的確)한 사서로써 대처하는 것이 조금 더 첩경이고 또 그 효과가 현저할 것임은 달리 비할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의 편찬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이다. 만약 이러한 서적의 편찬이 없다면 조선인은 무심코 병합과 관련 없는 고사(古史), 또는 병합을 저주하는 서적만을 읽는 일에 머물 것이다. 그러한 세

월이 점점 흐르고 눈앞에 다가오는 현상에 익숙해져 오늘의 밝은 세상이 첫째로 오로지 병합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망각하고 부질없이 구태(舊態)만을 회상하여 도리어 진보예의 기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어찌 조선인 동화(同化)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²⁹

먼저 조선인에 대해 여타 식민지의 ‘야만반개’한 민족과 비교하며 독서와 문장에 있어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지는 바가 없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옛 사서들은 강제병합 이전 시대의 저술로 당대와의 관계를 빠뜨리고 있어 헛되이 독립국 시절의 옛 꿈을 떠올리게 하는 ‘폐단’이 있다고 했다. 또 새로 저작된 역사서들은 조선에서의 일본과 청·러시아 사이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이 나아갈 바를 설파하거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한다면서 그 사례로 『한국통사』를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서들이 인심을 현혹시키는 ‘해독’이 크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한국통사』의 파급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의식하고 경계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멸절’시키는 대책만으로는 헛되이 힘만 들고 성과는 없으며, 오히려 전파를 장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 대안으로 ‘공명적확한 사서’, 즉 『조선반도사』 편찬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름길이자 효

29 朝鮮總督府,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纂ノ要旨及順序』, 1916, 1~4쪽.

과가 더 클 것이라 기대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인들이 병합과 관련 없는 옛 사서 또는 병합을 저주하는 서적만을 읽게 되어 ‘병합의 은혜’를 잊게 되고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한국통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직접 나서서 강제병합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조선사’를 편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기간은 원래 2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집필 담당자의 사망, 전직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고 최종 원고도 3분의 2만이 완성되었다. 해당 원고들은 조선총독부의 이름으로는 공간되지 못하고, 이후 관변 학회인 조선사학회(朝鮮史學會)를 통해 집필자를 일부 변경한 뒤 『조선사강좌(朝鮮史講座) 일반사(一般史)』(1923~1924)와 『조선사대계(朝鮮史大系)』(1927)라는 통사류 서적으로 수정·보완해서야 출판될 수 있었다.³⁰ 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반도사』를 통해 『한국통사』에 대응하려 했던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1922년 총독부 훈령 64호로 중추원 내에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가 설치되고 『조선사(朝鮮史)』 편찬사업이 추진되었다. 『조선반도사』는 특정한 역사상이 투영될 수 있는 통사(通史) 서술을 지향했던 반면, 『조선사』는 최대한 간단하게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사료집의 형태로 규정되었다. 결국 『조선반도사』는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사실상 편

30 장신,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375~383쪽.

찬이 중단되고 사료 수집과 같은 부속작업만이 진행되다가 결국 『조선사』 편찬사업에 흡수되었다. 그 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찬사업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1924년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총독 직할의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로 독립·개편시키기에 이른다.³¹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실패를 맞본 조선총독부는 조선사편수회를 위시한 『조선사』 편찬사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식민주의 역사학의 구축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1920년대 초까지는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중단시켜야 했을 만큼 조선총독부는 아직 한국사를 통사적으로 온전히 서술할 역량이 되지 않았다. 특히나 당대사(근대사) 서술의 경우 현재와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대사에 비해 더욱 까다로웠을 것이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동시기 조선인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던 박은식의 『한국통사』를 입수한 후 필사본을 만들고 그 구성과 서술 체계를 분석하여 자신들의 역사편찬 업무에 참고했으리라 생각된다.

(2) 『韓國痛史』와 『朝鮮史大系 最近世史』 비교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이 좌초된 후 그 원고들은 조선사학회의 『조선사강좌 일반사』를 통해 완성을 보았다. 그중 근대사에 해당하는 ‘최근세사’

31 조범성, 「일제강점기 朝鮮史學會의 활동과 근대사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94~95쪽.

편의 집필은 중추원 촉탁이었던 스기모토 쇼스케[杉本正介]가 담당했는데, 그가 1924년 1월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장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집필을 이어받았다.

『조선사대계 최근세사』 앞부분의 필자인 스기모토 쇼스케는 1874년 일본 구마모토[熊本縣] 출신으로 1892~1895년까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문학과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아키타중학[秋田中學]에서 영어와 한문 강사로 6년간 근무했다. 1906년 12월부터 대만총독부에서 문서편찬과 『토비토벌사(土匪討伐史)』 편수업무를 3년간 맡았고, 1910~1914년까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역사조사부의 촉탁으로 근무했다. 1916년 10월에 조선으로 건너와 중추원 촉탁으로 조선반도사 편찬업무를 맡기 전까지 『조선인명사전(朝鮮人名辭典)』 편찬을 담당했다.³²

뒷 부분의 필자인 오다 쇼고는 그는 1871년 미에현[三重縣] 출신으로 1899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내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08년 통감부 학부 편집국 사무관으로 발령받아 경성에 부임했다. 1910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편집과장으로 승진했고 1918년 중추원 편집과장, 1921년 학무국 고적조사과장, 1925년 조선사편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선총독부에서 오랜 기간 교과서 편찬사업과 『조선반도사』·『조선사』 편찬사업, 고적조사사업 등 역사교육과 역사조사·

32 池内宏, 「序」, 『瀨野馬態遺稿』, 1936, 2~3쪽.

편찬 업무에 몸담았던 인물인 것이다. 그는 1924년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에 부임했으며 1932년 교수 퇴임 이후에도 『경성부사(京城府史)』, 『부산부사(釜山府史)』 등 지방사와 『시정이십오년사(施政二十五年史)』 및 『시정삼십년사(施政三十年史)』 등 조선총독부 시정사 편찬에도 참여했다. 경성제대 교수 부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조선 내 여러 한국사 연구단체의 설립에 관여했다. 1923년 조선사학회 회장, 1926년 조선사학동고회(朝鮮史學同攷會) 평의원, 1927년에 경성독사회(京城讀史會)의 장로를 맡았으며, 1930년에 들어서는 청구학회(靑丘學會) 평의원 및 회무감사, 1931년에는 경성제대사학회 회장, 1932년에는 조선지리학회(朝鮮地歷學會) 회장을 지냈다.³³

스기모토 쇼스케는 대학 졸업 후 중학교에서 영어와 한문을 가르친 것으로 보아 역사를 전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대만 총독부와 만철 역사조사부에서 근무하며 역사 편수 관련 업무를 경험했고 조선에 와서는 『조선인명사전』 편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조선반도사』 집필에 투입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가 없는 상태로, 그것도 당대사(근대사) 집필을 맡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다. 실제로 스기모토는 본인이 맡은 제6편 원고의 극히 일부

33 최혜주, 「오다 쇼고의 교과서 편찬활동과 조선사 연구」,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 경인문화사, 2010; 하지연, 「오다 쇼고의 한국 근대사 연구와 식민사학」, 『식민사학과 한국 근대사』, 지식산업사, 2015.

인 「제3장 일본과의 수교」의 「제1절 왕비의 책립과 민씨의 융성」 부분만을 집필한 채로 사망했다.³⁴ 이는 뒤에 제시된 『조선사대계 최근세사』 목차를 기준으로 제3장 첫 부분에 해당한다. 이후 미집필된 부분을 오다 쇼고가 이어 받아 마무리했는데, 오다는 앞의 약력으로도 알 수 있듯이 도쿄제대 사학과 출신인데다가 일찍부터 조선에서 역사교육과 역사조사·편찬 업무를 수행해온 관료였기도 했다. 또한 이후 경성제대 교수로 임용될 만큼 역사학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고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도 비교적 풍부한 인물이었기에 스기모토의 공백을 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오다라 하더라도 대상 시기가 시간적으로 집필 당시와 지극히 가깝고, 조선과 일본 양측에 있어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 ‘최근세사’를 서술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반도사』가 기획·구상하던 1910년대 중후반에 이들이 참고할만한 일본인의 통사류 조선사 단행본들은 시기적 하한선이 고려나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나마 개항 이후의 역사를 다룬 것은 분량이 적거나 피상적인 것이었다.³⁵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조선인 사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퍼져나간 것이 『한국통사』였다. 『조선반도사』가 조선인들에게 보다 익숙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경

34 장신,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376~377쪽.

35 조동걸, 『현대한국사학사』, 나남출판, 1998, 244쪽.

계와 탄압의 대상이지만 조선인들에게 사랑받는 『한국통사』의 체재나 구성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추원과 이왕직으로 하여금 『한국통사』의 필사본을 만들게 하여 그 내용을 조직적으로 분석했던 것이다.

1927년에 조선사학회는 『조선사강좌 일반사』를 『조선사대계』로 증보하여 간행했는데, 최근세사 편은 본문의 구성이나 내용상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³⁶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통사』와 그 영향으로 기획된 『조선반도사』 중 최근세사 편의 최종 형태라 할 수 있는 『조선사대계 최근세사』의 목차와 서언의 내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양자의 비교를 통해 『조선반도사』가 『한국통사』의 어떤 부분을 참고했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대척점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먼저, 두 사서의 목차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통사』와 『조선사대계 최근세사』의 목차	
『한국통사』 ³⁷	『조선사대계 최근세사』 ³⁸
제1편	서언
제1장 지리의 대강	
제2장 역사의 대개	제1장 李太王의 즉위와 대원군의 내정 국외로부터 위기가 侵迫하다

36 조범성, 「일제강점기 朝鮮史學會의 활동과 근대사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115쪽.

37 해당 목차는 박은식 저, 이장희 역, 『한국통사』 상·하, 박영사, 1996의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38 朝鮮史學會, 「目次」, 『朝鮮史大系 最近世史』, 1927, 1~8쪽.

제2편

제1장 대원군의 섭정

제2장 경복궁의 중건

제3장 서원철폐

제4장 세정釐革

제5장 국방주의 및 풍속교폐

제6장 서교를 엄금하고 신도를 학살함

제7장 불란서군을 대파함

제8장 미국군함을 격퇴함

제9장 일본과의 교섭

제10장 대원군이 정치에서 물러남

제11장 일본과의 제1회 조약

제12장 청국이 우리나라의 자주외교를 인정함

제13장 일본과의 통상 및 조지

제14장 임오군란

제15장 청국병이 오고 일본병이 물러감

제16장 일인의 요구해결

제17장 중국과 일본이 모두 군대를 주둔시킴

제18장 구·미 열국과의 수호통상

제19장 갑신정변

제20장 일본 사신이 5개 조항을 요구함

제21장 중·일 천진조약

제22장 러시아 세력의 전개

제23장 대원군의 환국

제24장 黃豆 배상사건

제25장 내정부패가 극도에 달함

제26장 갑오동학란

제27장 講兵의 전말

제28장 일본병이 서울에 들어옴

제29장 일본사신의 陞見上奏 및 기타 상황

제30장 원세개의 回國

제31장 일본병의 犯關

제32장 중·일 교섭

제33장 중·일 개전

제34장 갑오경장

제35장 잠정합동 및 攻守同盟

제36장 중국과 일본의 평양에서의 대전

외척 김씨 정권을 좌우하다

대왕대비 조씨의 활약

권세가 대원군에게 넘어가다

서복인, 개성인을 위해 진로를 열다

경복궁 재건의 기획

서원의 폐해

의정부의 부활

재정의 충실을 도모하다

제2장 대원군의 대외 紛訐

프랑스 함선 내습

미국 함선 來攻

일본의 수교제의

대원군의 은퇴

제3장 閔氏의 專權과 內訌

왕비 민씨의 冊立

민씨의 秉政과 국정의 一新

외교의 一變과 강화도사건

개화파와 수구파

壬午의 정변

청국과 조선의 관계

청국의 간섭

독립당과 사대당

甲申의 정변

일본의 善後策

정변 전후 러·청·한의 관계

防穀令사건

동학당의 난

일·청의 개전

일한명약

甲午의 혁신

馬關條約 후의 형세

제4장 대한독립과 러시아

왕후민씨 薨去 후의 개혁

국왕탈취사건

제37장 중국과 일본이 황해에서 격전함
 제38장 일본군이 중국 내지를 침입한 전황
 제39장 중·일간의 마관조약 체결
 제40장 삼국간섭으로 요동을 반환함
 제41장 열강이 중국의 군항을 분할함
 제42장 大鳥가 가고 井上이 신임공사로 내한함
 제43장 박영효의 재차 망명
 제44장 을미차관조약
 제45장 일본인이 민비를 시해함
 제46장 廢后 및 복위상황
 제47장 지방 의병
 제48장 아관파천과 김홍집 등이 살해됨
 제49장 러시아인의 세력이 증진하고 열국이 이익을 균점함
 제50장 한국에서의 일·로협약과 러시아에서의 협약
 제51장 각 철도 부설권을 외국인에게 인허함

제3편

제1장 국호를 대만으로 고치고 독립제국이 됨
 제2장 재정고문의 문제
 제3장 일본과 러시아의 3차협약
 제4장 일본인이 광산을 찬탈함
 제5장 일본인이 어업 및 포경권을 점령함
 제6장 일본인이 개성인삼을 獵採함
 제7장 울릉도·장고도·월미도·고하도·온양온천 등의 사건
 제8장 제일은행권을 능행함
 제9장 영·일동맹과 아·법협약
 제10장 한국·만주 문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교섭
 제11장 일본인이 러시아 함대를 습격함
 제12장 일·로전쟁
 제13장 일본군의 서울 입성과 일본공사가 의정6조 체결
 제14장 이등박문이 대사로 한국에 건너옴
 제15장 일본인이 한국의 통신기관을 강점함
 제16장 일본 선박의 자유항행
 제17장 일본인이 황지개간을 요구함
 제18장 삼림벌채 및 포대건축·출금·포사 각건
 제19장 일본 병관의 북한에서의 횡포
 제20장 일본 헌병이 한국 경찰을 대리함

국왕 러시아공사관 播遷사건
 變後의 형세
 독립협회와 負擔商
 일러협상과 러시아 세력 消長
 金鴻陸사건
 大韓國의 국호와 光武의 연호
 러시아의 旅順·大連 租借
 러시아의 馬山浦 租借사건
 北淸事變
 北淸事變 후의 극동문제
 일·러 국교의 파열

제5장 日·朝관계의 진전
 일·러 개전과 한국
 일한의정서
 한러조약의 파기
 제1일한협약 체결
 일진화와 그 선언
 幣制의 확립
 戰勝祝賀使
 통신기관의合同
 제2일한협약(보호조약) 체결

제6장 보호정치와 한국(1)
 통감부의 설치
 民論과 내각경질
 海牙密使사건과 황제양위

제7장 보호정치와 한국(2)
 새 황제
 일·한 양 황실의 친선
 維新의 國是
 군대해산과 그 결과
 시정개선
 간도문제의 해결
 사법권의 위임 및 군부폐지

제21장 일본 헌병이 한국인의 집회를 금지함
제22장 일본인이 찬정 최익현을 구금함
제23장 각부의 일본인 고문
제24장 일본인이 우리 군대를 감축함
제25장 군용지 광점 및 군수물자의 강요와 군용 역부를 강제로 모집함
제26장 한국 경내에서의 일·로간의 싸움
제27장 일본과 러시아의 여순싸움
제28장 일본과 러시아 간의 요동 각지에서의 싸움
제29장 일본과 러시아의 해전
제30장 일·영동맹조약의 개정
제31장 일본과 러시아의 구화조약
제32장 주영 서리공사 이한응이 자결함
제33장 한국 선비가 일본 황제에게 상소함
제34장 伊藤이 특파대사로 한국에 올
제35장 伊藤이 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함
제36장 황성신문이 봉쇄되고 사장이 구금됨
제37장 매국을 성토한 각 상소
제38장 시종무관장 민영환·원임의정대신 조병세·참판 홍만식·경연광 송병선·학부주사 이상철·평양 징상병 김봉학이 모두 자살 순국함
제39장 중국지사 潘宗禮가 바다에 투신 자살함
제40장 반대당을 투옥함
제41장 찬정 최익현이 전국 사민에게 격문을 포고함
제42장 일본인이 한국 황제를 監制함
제43장 진해·영흥만의 점령 및 북간도문제와 일본차관건
제44장 일사가 옥답을 도취하고 일병이 석비 등을 절취해 감
제45장 동양척식회사
제46장 海牙만국평화회의에 밀사 파견
제47장 伊藤이 선위하라고 고종을 협박함
제48장 7조 협약의 성립
제49장 군대해산과 참령 박승환의 순국
제50장 원주진위대 정교 민공호가 擧義 함
제51장 한국인을 확대한 일본인 만행의 개황
제52장 한국인의 교육소지
제53장 한국인의 산업이 보존되지 못함
제54장 장인환·전명운이 미국인 수지분을 살해함
제55장 曾禰之荒助가 대신 통감이 되고 伊藤이 육군·사법 양부를 폐지함
제56장 안중근 의사가 伊藤을 저격·살해함

제8장 보호정치와 한국(3)
통감경질 및 한국내각 小變
폭도와 암살
제9장 한국의 병합
일진회의 합방성명
통감의 경질
경찰권의 위임
병합의 실시
병합에 관한 예우 및 恩典
총독부의 설치

제57장 이재명이 이완용을 척상함	
제58장 일본이 한국을 병합함	
제59장 안명근이 寺內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	
제60장 일본인이 각 교회를 속박함	
제61장 120인의 黨獄	
결론	

『한국통사』와 마찬가지로 『조선사대계 최근세사』도 시기적 상한을 고종 즉위년(1864)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러나 하한은 『한국통사』의 경우 105인 사건이 있었던 1911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조선사대계 최근세사』는 강제 병합 후 총독부가 설치된 1910년까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항 이후 주요 인물과 특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장절을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각 장절의 수와 명칭에 사용된 표현,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한국통사』는 서언과 결론을 포함해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지리의 대강’과 ‘역사의 대개’로, 역사 서술의 기본 방향과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서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제2편은 대원군의 섭정기에서 갑신정변,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제3편은 대한제국의 성립에서 한일병합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제2편에서는 대원군의 내정 개혁(경복궁 중건, 서원 철폐, 세정 개혁 등)을 출발점으로 하여, 프랑스·미국과의 충돌, 일본과의 외교 교섭,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의 사건이 연속적으

로 배치되어 있다. 제3편은 대한제국 시기 조약 체결과 전쟁, 일본의 내정 간섭, 을사조약, 군대 해산, 의병 항거,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한일병합, 105인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국권 침탈의 과정을 세세하게 장을 나누어 정리했다.

이러한 구성은 박은식이 당시 조선을 외세의 침탈과 내적 부패 속에서 자주독립의 의지를 상실한 민족적 위기의 상황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사건 배열은 단순한 연표적 서술이 아니라, 외세의 침입과 내부의 저항이 교차하는 구조를 통해 민족 주체의 상실과 그 회복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특히 제3편의 말미에는 을사조약 체결, 의병의 항전, 순국 행위, 병합 조약 체결,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는 일제의 국권 침탈과 민족의 저항이라는 대결적 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조선사대계 최근세사』는 서언 이후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 여러 개의 절이 배치되어 있다. 제1장은 “이태왕의 즉위와 대원군의 내정”으로 시작하여 대원군의 권력 장악, 경복궁 재건, 서원 폐지, 재정 충실 등 내정 개혁을 다룬다. 제2장은 프랑스와 미국의 무력 충돌, 일본의 수교 제의 등 외교 문제를 포함하고, 제3장은 민씨 정권의 성립과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 간의 전쟁으로 이어진다. 제4장은 대한제국의 수립과 러시아 세력의 성장, 북청사변 등 국제 정세 변화를 정리하고, 제

5장은 러·일전쟁과 제1·2차 한일협약을 서술한다. 이후 제6장에서 제8장까지는 “보호정치와 한국”으로 통감부 설치, 내각 개편, 헤이그 밀사 사건, 군대 해산, 간도 문제, 사법권 위임 등 일본의 통치 강화 과정을 다루며, 제9장은 일진회의 합방 성명, 병합 실시, 총독부 설치로 마무리된다.

특히 5장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은 혼란한 국내·외 정세만을 부각시키고 이후는 조선이 일제의 간섭과 침략을 통해 안정을 찾고 점차 발전했다는 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日·朝 관계의 진전’, ‘보호정치’, ‘시정개선’, ‘사법권(경찰권) 위임’, ‘병합 실시’ 등 키워드의 연속적 배치가 그러한 맥락을 담고 있다. 이는 식민지 지배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논지로 정리되고, 조선을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 종속된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 즉, 『조선사대계 최근세사』는 러·일전쟁 이전의 조선을 내적 혼란의 연속이며 외세 의존적인 국가로 그려내고, 이후는 행정적 안정을 찾고 시정이 개선되는 시기로 구분하여 일본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형적 구조를 갖는다.

그 외 『조선사대계 최근세사』의 목차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명성황후를 3장 제목으로 내세우면서까지 강조하며 ‘전권(專權)’과 내홍(內訌) ‘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또 을미사변에 대해서는 ‘왕후민씨 홍거(薨去) 후의 개혁’ 정도로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 장명에는 전반적으로 명성황후를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을미사변에 대

해서는 '일본인이 민비를 시해함'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한국통사』와 대조적이다. 강점 직전 의병전쟁과 의열투쟁도 그 주체와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한국통사』와 달리 『조선사대계 최근세사』는 '폭도와 암살'로 치부해버리는 점 또한 극명하게 대비된다.

결국 『한국통사』와 『조선사대계 최근세사』는 다루는 시기가 비슷하고 해당 시기의 주요 인물과 사건들을 장절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다. 이는 『조선반도사』 최근세사 편 집필 주체들이 기획 시절부터 『한국통사』의 체재를 분석하고 참고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각 저술이 의도하는 바를 따져 보면 한쪽은 민족 주체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고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서술이며, 다른 한쪽은 침략을 정당화하고 그 과정을 식민지 통치의 제도적 발전으로 해석한 식민주의 역사학의 서술임이 확연히 구분된다.

다음으로 두 사서의 서언 중 일부를 비교해보자. 『한국통사』의 서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무릇 세상의 강하고 사나운 자는 날로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삼키고 나약한 종족을 도태시키는 것을 능사로 삼으니 그 참혹한 해독을 받은 자가 많지만, 우리 한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다. 고금의 망국으로써 비교하여 예를 든다면 스웨덴이 노르웨이를,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모두 합병해다고 하

지만 그 민족의 대우는 차별이 없었는데 한국인도 그렇단 말인가. 터키가 이집트를 합병하였으나 아직도 그 왕을 존속시켜 조상에 제사 지내는 일을 변함없이 하게 하였으나 한국의 황제는 오랑캐[일본-역자주]가 왕이라는 작위를 내려주었다. 영국이 캐나다 등지에서 헌법을 갖는 것을 허락하여 보장해 주며 의회를 세워 그것을 유지토록 하고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모두 하나하나 보존토록 하는데, 한국인은 이것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저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시정은 대만에서 시행하는 것과 똑같이 하여 다르지 않게 했는데 대만은 나라도 아닌데 동등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망국으로 더욱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 또한 무릇 사람은 옷을 걸치고 음식을 먹으니, 흙을 집어 먹고 샘물을 마시는 벌레와는 같지 아니한즉 삶을 돕게 하는 것은 오직 산업이다. 저 영국이 인도와 이집트에서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미국이 필리핀에서, 비록 강한 힘으로 그 국권을 점유하였으나 백성의 재산은 진실로 스스로 보존토록 맡겼다. 반면에 일본은 가난한 나라로서 궁핍한 백성이 많아 재정이 날로 쪼들리게 되고 부채가 늘어나므로 무겁고 지나친 세금을 한국민에게 가함에 그 조목이 번거롭다. 그리고 가난한 일본 국민이 맨손으로 한국에 건너오기를 벌떼같이 몰려오는데 우리 재산을 빼앗지 않고는 생계를 타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자기 국민을 이주토록 하여 번성하는데 급급하나 그들에게 줄 재물은 없으니 비록 한국인에게 관대한 정치를 베풀어 생명선을 보존케 하려 한다 해도 형세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로써 보건대 고금 망국의 처참함이 한민족보다 더 심한 것

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³⁹

박은식은 타 제국주의 국가의 통치체제 사례들과 비교하며 일본의 조선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자치권과 외교권 무시, 경제적 수탈과 식민(植民) 행위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 알려져 있는 국혼론(國魂論), 즉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한국통사』를 저술한 연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에 대해 변명하듯이, 『조선사대계 최근세사』의 서언에서는 구미에서 19세기 초에 시작된 근대적 발전이 “극동의 한 구석인 반도”에는 약 반세기 늦게 도달했기 때문에 조선의 최근세사는 늦게 시작했다고 보아도 무관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시대구분을 시도하였다.

조선의 최근세사는 상고이래 반도에서 흥망한 각 왕조시대의 총괄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이씨조선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이른바 총괄의 시대이다. 또 내용을 일별해보면, 상세에 시작된 근린의 강국에 복속된 관계를 일단 끊었던 적도 있다. 조선은 최근세사시대에 반도의 오랜 온갖 문제를 경험하는 동시에 국외와의 자유로운 교통에 의해 아직 전혀 경험해본 적 없는

39 박은식 저, 김태웅 편역, 「서언」, 『한국통사』, 아카넷, 2012, 21~22쪽.

새로운 사건을 경험했다고 일컬어진다. 우리는 최근세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즉,

제1을 전시대의 연장인 청복속시대

제2를 국외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독립자주를 갈망하여 시련을 거듭한 독립
시대

제3을 전시대의 시련에 질려버리고 또 민심이 권태로워져 일본의 보호에 기대는 보호시대로 한다.

이상의 3시기는 각각 특이한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 3시기를 관통하는 정신은 앞의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해도 활기가 넘치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은 비로소 종래의 이른바 「仙逸國民」의 신세를 벗어나 활동국민으로 유도된 시대였다고 보인다. 또 이 시기에는 轉變이 심해 몹시 繁劇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절제와 정도가 없다는 것이 특색이다. 어지러운 상태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어쨌든 민족발전시대에 공통적인 폐단을 극단적으로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여간 이 시기에 반도민족은 구시대의 결말을 고하면서 바야흐로 다가오는 신시대의 영접을 서두른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구시대인 이씨조선을 보내고 일한병합의 신시대를 맞이하려 했던 과도기에 일어난 파란·곡절을 밝혀내는 것이 본편의 목적이다.⁴⁰

40 杉本正介·小田省吾, 『朝鮮史大系 最近世史』, 朝鮮史學會, 1927, 3~4쪽.

조선의 대외관계를 “근린의 강국에 복속된 관계”라 하여 타율적으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세사를 크게 세 시대로 나누어 ①이전시대에 이어 중국에 복속된 “청복속시대”, ②국외로부터 자극을 받아 독립자주를 갈망하여 시련을 거듭한 “독립시대”, ③시련에 질려버리고 민심이 권태로워져 일본의 보호에 기대는 “보호시대”로 구분해, 중국의 복속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독립을 갈망하지만 결국 내적 동력을 잃고 다시 일본에 의존하게 된다는 서술구조를 암시한다. 또한 조선은 최근세에 “반도의 오랜 온갖 문제를 경험하는 동시에 국외와의 자유로운 교통에 의해 아직 전혀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사건을 경험”했고, 그 결과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해도 활기가 넘치고 있다.”며 역동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절제와 정도가 없”이 어지러운 상태라며 “민족발전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폐단을 극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구시대인 “이씨조선”에 결말을 고하고 “일한병합”이라는 신시대를 맞이했다고 표현하여 일제의 조선 병합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드러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1915년 『한국통사』가 간행된 배경과 이후 국내·외에 보급되는 양상,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을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참고하여 검토해보았다. 『한국통사』는 박은식이 1900년대부터 수집해온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집필되었으며, 일제의 침략 과정을 날날이 폭로하고 민족 주체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주독립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이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 망명 당시 그가 중국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하이의 대동역서국에서 출간할 수 있었다. 『한국통사』는 당시 '세계근사' 혹은 '각국근사'라는 표제로 유통되고 있었던 듯하다. 출간 이후 『한국통사』는 『신한민보』·『국민보』 등 미주지역 한인 언론을 통하여 그 소식이 널리 보도되었고, 번역본이 제작되어 유포되기도 했으며, 만주·러시아·일본·국내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한국통사』의 영향력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두 차례 금지 처분을 내리고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언론의 관련 기사까지 압수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추원과 이왕직에서는 『각국근사』·『약기편람』 등 필사본을 제작하여 항일운동 관련 서술을 삭제·왜곡하고 정책 및 역사 편찬의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숭실대학교 도서관 소장 『각국근사(各國近事)』가 『한국통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한국통사』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가했다. 총독부는 이 책을 '인심을 현혹시키는 해독'이라 규정하고, 이

에 대응할 ‘공명적확한 사서’로서 『조선반도사』 편찬을 추진할 것을 표방했다. 그러나 사업은 집필자 사망과 전직 등으로 좌절되었고, 일부 원고만이 이후 조선사학회를 통해 『조선사강좌 일반사』와 『조선사대계』로 수정·보완되어 출간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역사편찬사업을 사료집 형태의 『조선사』로 방침을 바꾸고 조선사편수회를 설립함으로써 식민주의 역사학의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통사』에 『조선반도사』로 대응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전략이 실패로 끝났음을 의미한다.

『조선사대계 최근세사』는 시기 설정과 장절 구성에서 『한국통사』와 유사한 체재를 보인다. 이는 『조선반도사』 최근세사편 집필자들이 기획·집필 과정에서 『한국통사』의 체재를 어느 정도 참고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의도는 당연하게도 완전히 상반되었다. 박은식은 『한국통사』를 통해 일제의 침략과 이에 대한 민족적 저항과 자주독립을 강조한 반면, 『조선사대계 최근세사』는 개항 이후 조선의 혼란한 국내외 정세를 강조하고 일본의 간섭과 침략을 정당화하기 급급했다. 또한 『조선사대계 최근세사』의 장절명에서 명성황후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을미사변을 은폐하려고 한 것, 의병전쟁 및 의열투쟁을 ‘폭도와 암살’로 표현했던 것은 『한국통사』의 목차와 대비해서 볼 때 그 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한국통사』는 단지 민족주의 역사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식민당국이 역사편찬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식민주의 역사학의 기반을 확대·개편하게끔 강렬한 충격을 가했던 텍스트였다. 그 흔적은 『조선반도사』의 편찬 요지와 『조선사대계 최근세사』의 목차와 서언에 남아 있다. 『한국통사』의 간행은 망명한 지식인이 치러야 했던 길고 힘겨운 사투의 결실이었으며, 그 영향력은 식민 권력조차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강대한 것이었다.

이 글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전반적인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따끔한 질정과 조언을 구하는 바이다. 한편으로 『한국통사』를 발간했던 대동편역국의 실체와 그 전신으로 추정되는 대동역서국과의 관계, 그리고 대동편역국에서 기획했던 ‘각국근사’ 시리즈의 발간 실태와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신한민보』, 『국민보』, 『동아일보』

『瀨野馬態遺稿』, 1936

杉本正介·小田省吾, 『朝鮮史大系 最近世史』, 朝鮮史學會, 1927

박은식 저, 이장희 역, 『한국통사』 상·하, 박영사, 1996

박은식 저, 김태웅 편역, 『한국통사』, 아카넷, 2012

이만열,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조동걸, 『현대한국사학사』, 나남출판, 1998

「安重根傳」, 『한국학연구』 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89.

김태웅, 「박은식의 한국 근대사 저술과 역사인식의 진화」, 『애산학보』 50, 애산학회, 2023.

김태웅, 「일제강점기 朴殷植의 《韓國痛史》 출간과 筆寫本의 특징」,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2018.

김태웅, 「해방 후 似而非 《韓國痛史》의 탄생」, 『역사교육』 163, 역사교육연구회, 2022.

박길순, 「3·1운동, 국가의 기억과 기록: 《韓日關係史料集》과 《三一運動被殺者名簿》」, 『한국근현대사연구』 8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배경한, 「중국망명시기(1910-1925)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향강잡지》, 《국시보》, 《사민보》의 분석」, 『동방학지』 12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배경한, 「戊戌維新 전야 개혁파의 아시아 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70, 중국근현대사학회, 2016

서영희, 「《韓國痛史》의 근대사 인식」,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2018.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

윤병석, 「朴殷植의 민족운동과 《全集》 편찬의 의의」,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장신,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장신, 「일제하 민족주의 역사학의 유통」, 『한국학』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조규태, 「일제강점기 박은식에 대한 기념과 기억(1925~1945)」, 『한성사학』 30, 한성사학회, 2015.

조범성, 「일제강점기 朝鮮史學會의 활동과 근대사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최우석,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 《한일관계자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9, 서울역사편찬원, 2018.

최혜주, 「오다 쇼고의 교과서 편찬활동과 조선사 연구」,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 통치론』, 경인문화사, 2010

하지연, 「오다 쇼고의 한국 근대사 연구와 식민사학」, 『식민사학과 한국 근대사』, 지식산업사, 2015

황원규, 「1917년판 번역본 《한국통사》」, 『동방학지』 23·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토론문

「朴殷植『韓國痛史』의 사학사적 검토: 당대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문

박경(동덕여자대학교)

본 발표문은 박은식의 『韓國痛史』를 사학사적으로 살펴보고, 총독부가 박은식의 역사서에 대응하고 식민주의 역사학을 뿌리 내리기 위하여 서술한 여러 역사서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통사』의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발표자께 발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1. 2장의 2)『한국통사』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의 내용에 따르면 『世界痛史』와 『各國近史』는 『한국통사』의 표지만 다른 책으로, 발매·반포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한국통사』를 왜곡하기 위해 중추원에서 제작한 책의 이름도 『各國近史』입니다. 발매·반포 금지처분을 내린 책의 이름과 같은 이름의 책을 출판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박은식의 『각국근사』를 보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총독부의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2. 『朝鮮半島史』의 편찬이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가 『한국

통사』의 발간과 보급 확대로 인하여 빠른 시기 안에 『조선반도사』를 출판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고 서술되었는데, 그렇다면 1927년 『朝鮮史大系 最近世事』가 간행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총독부는 『한국통사』에 대해 줄곧 유통금지 등으로 대응을 유지했는지, 더 강한 대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통사』는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하였고,¹ 박은식은 1919년 『한일관계사료집』, 1920년 『한국독립지혈사』를 출판하였는데, 이 역사서들에 대한 대응도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발표자께서는 3장에서 『한국통사』와 『조선반도사』, 『조선사대계 최근세사』를 비교분석하면서 조선사학회가 『한국통사』를 참고하였으며, 조선사학회가 한국사를 통사적으로 온전히 서술할 역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조선사학회의 집필자들은 박은식보다 한국사를 서술할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면에 있어서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또는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서들, 조선왕실에서 발행한 지리서, 지도, 통계서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 등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박은식보다 훨씬 좋고 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

1 『신한민보』 1917년 9월 27일 「한국통사를 아문으로 번역」

습니다.

4. 일본 외무성자료를 살펴보면 총독부는 박은식의 상해와 러시아에서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한국통사』의 발행과 유통에 대해 극렬히 경계하고 『한국통사』를 왜곡하고 식민사학에 입각한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과 동시에 박은식을 체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925년, 박은식과 중국의 반일시민운동

-上海 지역 언론 게재 서거·장례·추도 기사와
『五九月刊』 게재 논설 5편의 분석-

배경한(전 신라대학교)

1. 머리말
2. 상해 지역 신문, 잡지에 보이는 박은식의 병환,
서거, 장례, 추도
3. 國民對日外交大會에의 참여
4. 『오구월간』 게재 논설 5편의 내용과 의미
5. 맺음말

1925년, 박은식과 중국의 반일시민운동

-上海 지역 언론 게재 서거·장례·추도 기사와 『五九月刊』
게재 논설 5편의 분석-

배경한
전 신라대학교

1. 머리말

정인보가 말했듯이 20세기 초 한국 최고의 문장가이며¹, 언론인이라고 할 박은식의 언론 일생은 1911년 중국 망명을 기준으로 양분된다. 망명 이전 국내에서의 언론활동은 기본적으로 애국계몽운동의 입장에서 교육을 통한 민지(民智)의 개발과 유교에 대한 개혁 주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망명 이후의 언론활동은 독립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독립운동가로서의, 그리고 망명지 중국에서 독립을 위한 한중연대의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해 전에 필자는 1913년 박은식이 홍콩에서 편집 발간한 『향강잡지(香江雜誌)』를 비롯하여, 논설위원으로 혹은 주필로 참여한 중국 일간지

1 鄭寅普, 「介潔無垢한 朴殷植先生」, 『開闢』 62(1925.8.1.), pp. 38-39. 정인보는 “박은식의 문장이 張志淵이나 柳瑾, 玄采보다 뛰어나고 康有爲에 못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사민보(四民報)』, 『국시일보(國是日報)』, 월간지 『도로월간(道路月刊)』 등에 실린 그의 논설들을 수집 편 발굴하여 소개한 적이 있다.² 동시에 이들 언론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중국인들과의 교유나 연대활동을 밝힘으로써 박은식의 중국에서의 언론 활동의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중국에 관한 인식 등을 규명하는 데에도 일부 성과를 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4년부터 1925년까지 일부 노령 지역에서 활동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해(上海)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박은식의 언론 활동이나 관련 문장들은 아직 모두 발굴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논할 것처럼 박은식의 활동 자체가 정치와 언론, 저술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었던 데다가 중국인들과의 교류에서도 당시 상해 지역 언론계 및 시민단체, 지식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박은식이 서거하던 1925년 한 해를 중심으로, 그의 활동을 보다 자세하게 복원해 보고자 한다. 특히 1925년 11월 1일 서거 직후 상해 지역 여러 일간지, 잡지 등에 실린 서거, 장례, 추도 관련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찾아 비교하면서 당시 박은식의 병환, 서거, 장례의 구체적인

2 배경한, 「중국망명시기(1910-1925)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중국 인식-『香江雜誌』, 『國是報』, 『四民報』의 분석-」, 『동방학지』 121집(2003) ; 배경한, 「박은식과 ‘中韓互助’-『道路月刊』 게재 논설 6편의 내용과 의미-」, 『진단학보』 130호(2018). 『四民報』 게재 논설들은 『백암박은식전집』 제5권(동방미디어, 2002)에 들어 있지만 『香江雜誌』, 『道路月刊』, 그리고 이번에 발굴한 『五九月刊』에 실린 논설들은 들어있지 않다.

정황을 복원해 보고 나아가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 박은식과 중국인들 및 관련 단체들 사이의 교유관계를 자세하게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박은식이 마지막까지 추구했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른바 박은식의 대중국민 네트워크를 밝힘으로써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중한 호조(中韓互助)” 내지 “한중연대(韓中連帶)”의 실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이들 중국 측 인사, 단체들 가운데 국민대일외교대회(國民對日外交大會)의 기관지 『오구월간(五九月刊)』에 실린 박은식의 논설들을 새로 발굴해 그 내용을 소개, 분석해 보고자 한다.³ 이를 통해 박은식의 언론 활동이 추구한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라는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 3 최근 일부 중국 측 연구자들이 박은식과 黃介民 및 『오구월간』 사이의 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구월간』에 게재된 박은식의 논설을 찾거나 분석하지는 못했다. 湯振 牛林杰, 「中韓聯合視覺下的朴殷植與中國人士的交流」, 『中國語文論譯叢刊』 46집(중국어문논역학회, 서울, 2020); 湯振, 「共同話語與文本互動: 朴殷植與中國近現代知識分子的人文交流」, 『東疆學刊』 39-4(延邊大學, 2022); 金柄珉, 「黃介民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사상문화 교류—『37년 유희몽(三十七年遊戱夢)』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8(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金柄珉, 「相期各努力 定國平天下: 黃介民與韓國獨立闘士的思想文化交流」,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54-12(2021).

2. 상해 지역 신문, 잡지에 보이는 박은식의 병환, 서거, 장례, 추도

박은식은 1925년 11월 1일 오후 7시, 상해에 있는 공제의원(公濟醫院)에서 서거했다.⁴ 병명은 인후염과 천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병원(의사) 측이 발표한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영양부족”이었다. 박은식 서거 당일인 11월 1일자 『독립신문』에는 서거 직전의 비교적 자세한 병환 관련 사정을 소개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소식에 의하면 “박은식은 일흔 노구에도 불구하고 작년(1924년) 11월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시국의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건강을 해쳐 소화불량과 인후염 등 증상이 함께 나타나 요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력 끝에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는)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임시대통령을 사직할 수 있게 되어 올해(1925년) 7월 7일 사임하고 대통령 관사를 떠나 시내 모처에 새 거처를 마련하고 아들(박시창)과 함께 치료에 전념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갔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주위에서 얼마씩 (치료비를) 모아 8월 25일에 시내 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기력이 크게 쇠하여 회복하기 어려

4 『독립신문』을 비롯한 한국 측 보도에는 병원 이름을 밝히지 않고 “某病院”이라고 하였는데 중국 측 보도에는 公濟醫院이라고 밝히고 있다.

운 지경이라 주위에서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⁵ 하였다.

주지하듯이 1924년 말 박은식이 정치 일선에 나선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 문제와 임시정부의 개조 문제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안창호 등과 함께 개조파의 입장에 섰던 박은식이 12월 11일 임시의정원의 의결에 따라 임시대통령대리에 선출되면서 임시정부의 개조에 직접 나서게 되었던 사정을 말한다. 1925년 3월 23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었고 같은 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에 선출하였다. 이어서 박은식은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마무리하여 공포하고(4월 7일) 신헌법이 시행되는 7월 7일(신헌법 35조)에 대통령 직에서 사임하였다.⁶ 이러한 긴박한 정치적 상황이, 위에 인용한 『독립신문』의 병환 관련 기사에서 말하고 있듯이, 박은식의 건강을 해쳤을 가능성은 크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1925년 초의 상황은, 당시 이승만의 비밀통신원 역할을 하고 있던 이시영이 2월 말 이승만에게 보고하고 있

5 「白巖先生の患憂」, 『독립신문』 1925.11.1., p. 3. 소화불량(아마도 위궤양)은 박은식의 오래된 지병이었던 것 같다. 정인보는 1910년대 上海에서 함께 지낼 때 늘 “속병이 게서서 늘 괴로워 했다”고 하였다. 鄭寅普, 앞의 「介潔無垢한 朴殷植先生」, p. 38 참조.

6 1925년 7월 7일자 의 고별사에서 박은식은,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등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의 기관을 중단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 부득이 나오게 되었다는 점, 여러 도움으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관제를 바꾸고 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 지도자인 이상룡을 국무령에 모시게 되어 무엇보다 다행이라는 점, 나를 도왔듯이 이상룡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단결해달라”고 쓰고 있다. 「臨時大統領告別辭」, 『독립신문』 1925.10.21., p. 3. 오영섭, 「대한민국임시정부 두 대통령 이승만과 박은식의 관계」, 『송실사학』 32집(2014)도 참조할 것.

는 대로 “박은식이 이미 정신이 혼미하고 귀도 멀었다”고⁷ 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점은 3월 중순에 중국국민당 상해 제3지부에 설치된 손문(孫文) 조문소를 방문하여 조사(弔辭)를 발표하고⁸ 연이어 상해 지역 반일단체인 국민대일외교대회(國民對日外交大會)에 참석하여 연설을 했던 사실과⁹ 1925년 5월 말에 상해에서 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반제노동운동인 5·30운동 직후인, 6월 중순에 발간된 국민대일외교대회의 잡지 『오구월간(五九月刊)』에 박은식이 글을 싣고 있었던¹⁰ 상황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글에서도 이미 밝힌 대로 『도로월간』의 명예논설위원 직을 5월 말경에 사임하였고¹¹ 뒤에서 언급할 것처럼 동일한 시기에 논설위원 직을 맡고 있던 『오구월간』에서도 사임하고 있었던 점을¹² 본다면 5

7 「이시영이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1925.2.25.)」, 『李承晩東文書翰集』 하,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p. 188.

8 1925년 3월 14일, 박은식은 한국 유학생 이범홍(李範洪)을 대동하고 국민당 제3지부를 방문하여 “중국에 와있는 모든 조선인들은 중국인들이 큰 지도자(巨人)을 잃은 것을 충심으로 痛惜해하고 있다”는 弔辭를 읽었다고 한다. 「僭稱假政府大統領代理朴殷植ノ弔辭及演說ニ關スル件(高警第1052號, 1925.3.21.)」, 『日本外務省文書』(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소장문서.

9 「對日外交會二週紀念」, 『時事新報』 1925. 3. 16.

10 朴殷植, 「關東報之無理造謠」, 『五九月刊』 第8期(五卅事件特號, 1925.6.15.), pp. 26-28.

11 배경한, 「박은식과 “중한호조”-『道路月刊』 게재 논설 6편의 내용과 의미-」, 『진단학보』 130(2018), p. 214 참조.

12 『五九月刊』의 뒤표지를 살펴보면, 第6期(1925.1.15.)부터 第7期(1925.3.15.)까지 찬술위원 명단에 박은식이 들어 있었고 第8期(五卅事件特號, 1925.6.15.)에는 한 편의 논설(「關東報之無理造謠」)을 싣고 있으면서도 논설위원 명단에는 빠져 있다.

월 말경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서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러다가 7월 7일 사임을 전후하여 소화불량, 인후염 등 여러 증상이 급작스럽게 악화하고 있었고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진척되었던 것 같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11월 4일에 있었던 장례식에 직접 참석했던 대동학회(大同學會) 대표 황개민(黃介民)이 이듬해 1926년 7월에 발표한 박은식에 관한 짧은 전기 속에서, “7월 7일 퇴직한 다음 7월 17일에 인후염과 천식(담천, 痰喘) 병을 얻었다”고 한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 황개민의 이 글은 박은식의 일생을, 중국 망명 이전 시기부터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말미에서 “박은식을 통해 안공근(安恭根)을 알게 되었는데 박은식은 안공근이 그 형인 안중근에 못지 않은 인재라고 말했다”라고 한 것으로 보자면 아마도 안공근의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써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공근은 박은식의 유언을 직접 받아 발표했을 만큼 마지막까지 박은식을 돌봤던 측근이었다.¹⁴ 따라서 박은식이 병환을 얻었다고 한 7월 17일이라는 날짜를 황개민이 알게 된 것은 안공근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박은식의 병환이 구체적으로 악화된 것은 7월 17일 이후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서술이 될 것이다.

13 黃覺, 「朴殷植傳贊」, 『五九月刊』 12期(1926.7.), pp. 86-89.

14 뒤에서 언급할 것처럼 상해 지역의 대부분 일간지들이 신고 있는 서거 관련 기사 속에는 측근인 안공근에게 3가지 유언을 당부하였다고 점을 언급하고 있다. 뒤의 각주16 등 참조.

박은식이 입원했던 공제의원(公濟醫院)은 1860년대에 천주교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프랑스 조계 내에 설립된 병원으로 1875년 이후 영미 합작의 공공조계(公共租界) 공부국(工部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공공조계 내 소주하(蘇州河) 북안으로 옮겨져 주로 상해 거주 외국인들에게 의료를 제공하던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이었다.¹⁵ 박은식은 이 병원에 8월 25일에 입원하여 11월 1일 서거할 때까지 두 달여를 입원하였는데 결국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서거하고 말았다. 서거 직후 담당 의사는 “영양부족”이 사인이라고 밝혔다.¹⁶ 전술한 대로 심한 소화불량과 인후염, 천식으로 인해 장기간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로 전신 쇠약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일차적인 사인이 되었던 듯하다.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내용이지만 11월 3일경 조문소를 방문 취재했던 『상해화보(上海畫報)』의 주필 필의홍(畢倚虹)이 쓴 방문기사 가운데에는 조문소에 있던 한인들에게 병명을 묻자 매우 곤란해하며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썼다.¹⁷ 이러한 정황으로 본다면 당시 장례위원을 비롯한 장례를 준비하던 한인들로서는 “영양부족”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일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닌가 싶다.

박은식의 서거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11월 4일자 『동아일보』의 보

15 陳侶華, 『近代上海教會醫院史研究』 上海中醫藥大學碩士學位論文(2021), pp. 40-45.

16 「韓國臨時大統領逝世—生平之略歷—」, 『(上海)民國日報』 1925.11.3., 3張第2版.

17 畢倚虹, 「韓總統身後訪問記」, 『上海畫報』 51期(1925.11.6.), p.1.

도부터인데 그 소식원을 “3일상해특신(三日上海特信)”이라고 하였다.¹⁸ 말 그대로 상해로부터 받은 특별통신에 근거했다는 것인데, 1924년 12월에 개편된 『동아일보』의 각 부서 명단에 상해특파원으로 정해져 있으면서¹⁹ 계속하여 상해 관련 기사를 보내고 있던 조덕진(趙德津, 호는 春艇)이 보낸 기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²⁰ 다만 1924년 10월 봉직전쟁(奉直戰爭) 취재차 심양에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던 조동호(趙東祐, 호는 榴亭)가 1925년 1월 귀국했다가 10월 경 다시 상해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에²¹ 비추어 본다면 이 특별 기사를 조동호가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²²

상해에서는 대부분의 일간지들에 3일 자로 박은식의 서거 소식이 기사로 실렸다.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3일 자에 서거 관련 기사

18 「朴殷植氏長逝」, 『東亞日報』 1925.11.4., p.1.

19 『東亞日報社史』 1권(1920~1945), 동아일보사, 1975, pp. 245-246.

20 조덕진은 임시의정원 의원이면서 동아일보 상해특파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盛況을 이룬 獨立演說會」, 『동아일보』 1923.12.24.; 「上海僑民團 學務委員選舉」, 『동아일보』 1924.1.23.; 「上海記者團에 본보 특파원 정식참가」, 『동아일보』 1925.2.14.; 「확대되는帝國主義에 反抗運動」, 『동아일보』 1925.6.11. 등 참조.

21 조동호는 1925년 10월 25일, 상해에서 만들어진 中國濟難會 성립대회에 참석하여 연설하였다. 연설의 내용은, 중국어 연설에 서툴러서 연설원고를 제출하고 그것을 회의주석 韓覺民이 대독하게 되면서 다음 날 신문에 그대로 실렸는데 “중국혁명(신해혁명)이 일어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이번 五卅運動과 濟難會의 성립에서 본다면 이제 서광이 보인다고 하겠다. 濟難會의 성립은 時勢의 필요에 응한 것으로 여기 자리한 혁명운동가 여러분의 노력에 적극 찬동하며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昨日濟難會代表大會」, 『民國日報』 1925.10.26., p. 8.; 「韓人贊助濟難會演講」, 『新申報』 1925.10.27., p. 10.

22 조동호는 “상해특파원 조덕진이, 북경특파원인 자기(조동호)가 상해 일까지 한다며 자신의 일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불평 아닌 불평을 한 적도 있다”고 말하였다. 「歸途에 臨하여-上海에서 趙東祐」, 『동아일보』 1925.1.28.

를 실은 상해 지역 일간지는, 『시보(時報)』, 『신보(申報)』, 『시사신보(時事新報)』, 『신신보(新申報)』, 『(상해)민국일보(上海民國日報)』 등 5개이다. 당시 상해 지역 일간지의 발행 상황을 고려할 경우²³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들이 박은식의 서거 기사를 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11월 1일 오후 7시에 상해의 모 의원에서 병환으로 서거했다는 사실과 측근인 안공근(安恭根)에게 독립운동을 위해 전 민족이 통일 협력해야 하고 독립이 전 민족의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등 3가지 전체 한인들에게 전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 임시정부 측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의례로서 국장(國葬)을 치르기로 했다는 점, 그리고 조문소(護喪所)가 포석로(蒲石路) 14호에 마련되었다는 점 등을 차례로 쓰고 있다. 기사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된 것은 『신보(申報)』가 밝히고 있는 대로²⁴ 원동통신사(遠東通訊社)로부터 받은 동일한 내용의 소식원에 근거했기 때문으로 아마도 임시정부 측에서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원동통신사를 통해 각 신문사에 배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 가운데 『(상해)민국일보』와 『신신보』 두 신문은 원동통신사의 기

23 당시 세력이 큰 일간지로 박은식 서거 기사를 실지 않는 것은 『新聞報』 정도를 들 수 있다. 1920년대 상해의 주요 일간지 상황에 대해서는 馬光仁 主編, 『上海新聞史』, 復旦大學出版社, 1996, pp. 548-571을 참조할 것.

24 「韓國獨立運動首領朴殷植逝世」, 『申報』 1925.11.3., p. 10. 이 기사는 “遠東通訊社云”으로 시작하고 있다. 원동통신사는 1909년에 만들어진 중국 국적의 국제통신사이다.

사에 일부 내용을 첨가하거나 독자적인 내용을 쓰고 있어서 눈에 뜨인다. 『민국일보』는 기사의 소제목으로 “일생(生平)의 약력”을 붙이고 망명 이후 정치운동에도 종사하여 독립신문사 사장,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는데 지난 7월부터 체력을 유지할 수 없어 사퇴했다는 점, 입원 이후 매일 조국을 그리워하며 친구들이 병문안을 가면 울며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 며칠 전부터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그에게 공제의원에서 서거했는데 의사의 말은 영양부족이 사망 원인이라고 했다는 점,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임시정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통곡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미 운구하여 수일 내에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는 점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²⁵ 이와 함께 중국제난회(中國濟難會) 측에서 완중일(阮仲一)을 (대표로) 파견하여 조문하였고 100원(洋一百元)을 부의금으로 냈으며 출상(出殯)일에 각 단체에서 많이 참석해 줄 것을 호소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²⁶ 『신신보』의 기사 또한 민국일보의 기사와 비슷한데 다만 일생 동

25 「韓國臨時大統領逝世—生平之略歷—」, 『(上海)民國日報』 1925.11.3., 3張 第2版.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上海)民國日報』의 이 기사가 中華全國總工會省港罷工委員會에 의하여 廣州에서 발행되던 『工人之路特號』 143期(1925.11.16.), p. 3에도 거의 그대로 옮겨 실렸다는 점이다. 省港大罷工은 1925년 5월말 상해 지역에서 일어난 반제(반일, 반영) 노동운동이던 5·30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1925년 6월 9일, 홍콩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廣州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1년 4개월간 지속된 노동 파업으로 중국공산당 광주지부와 국민당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된 대규모 파업이었다. 성향파공은 기본적으로 廢約(불평등조약철폐)운동을 중심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반제(반일)운동의 지도자로서 박은식의 서거와 그에 대한 애도를 전면에 내세웠을 것이다.

26 中國濟難會는 1925년 五卅運動 발발 이후 각종 혁명운동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상해 지역에서 발기되고 전국 규모로 확대되어 만들어진 사회구

안 저작이 대단히 많은데 그 가운데 중문으로 쓴 것으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안중근전』, 『이순신전』 등이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고 중국제난회 측에서 조문하고 부의금을 냈다는 점, 그리고 발인식에 각 단체의 참가를 호소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민국일보』와 동일하다.²⁷

11월 2일에 급하게 만들어졌을 조문소의 풍경은, 『독립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다.²⁸ 프랑스 조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포석로(蒲石路, 현재의 장락로(長樂路)) 14호에 있던 임시정부 청사에²⁹ 마련된 조문소는 매우 소박한 모습이었다. 전면에 대형 국기 한 쌍을 펼쳐 걸고 중앙 바닥에 순백 면포를 덮은 한 개의 상(床)을 놓고 주위에 몇 개의

재단체였다. (『中國濟難會今日成立』, 『申報』 1925.9.20., p.14; 謝忠強, 『從國際革命戰士救濟會到中國濟難會』, 『廣西社會科學』 2020年 第1期 참조) 뒤에서도 언급할 것이지만 반제(반일)운동에 앞장섰던 국민대일외교대회 측과 중국제난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반일운동에 연대하고 있던 한국독립운동가들도 “각종 혁명운동”의 희생자라고 보았을 것이므로 조문과 조의금 전달이 있었던 것 같다. 1925년 당시 상해지역에서 통용되던 洋100元の 현재 가치는 대략 3300~4000위엔(元)으로 한국 화폐 8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2025년 6월 14일 Bai-du Deep-Seek 조회). 중국제난회에서 대표를 파견하여 조문하거나 부의금을 전달한 것은 제난회와 한인들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짐작케 해주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국제난회 성립대회에 趙東祐가 참석하여 연설을 하기도 했다. 위 각주21 참조.

27 『韓國臨時大統領逝世』, 『新申報』 1925.11.3., p. 9.

28 『독립신문』과 『동아일보』, 『한민보』 등 일부 국내외 한인 언론에 나타난, 박은식의 장례, 추도, 기념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조구태, 『일제 강점기 박은식에 대한 기념과 기억(1925~1945)』, 『한성사학』 30(2015)이 있다.

29 한시준, 「상해의 임시정부 청사 소재지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집(1996), p. 343.

의자를 놓았으며 좌우 벽에는 만장(輓幅)들을 늘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³⁰ 조문소의 이러한 모습은, 앞서서도 인용한 삼일간(三日刊) 『상해화보(上海畫報)』에 실린 현장 취재 기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1925년 6월 초 사진과 그림(만화 포함), 통속적인 문학작품을 중심 소재로 간행되기 시작한 『상해화보』는 당시 통속소설 작가로 잘 알려져 있던 필의홍(畢倚虹)에³¹ 의해 창간되었는데 박은식의 조문소 방문 기사는 바로 이 필의홍이 직접 쓴 것이다. 필의홍은 상해 각 신문의 박은식 서거 관련 보도를 보고 조문소가 있는 포석로 14호를 직접 찾아갔고 조문소의 내부 모습과 함께 조문을 받고 있던 한인들과 문답(인터뷰)을 행한 다음 방문기 형식의 이 기사를 작성했다. 방문기의 말미에 작성일자가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 4일 오후 2시 30분에 발인이 이루어졌고 오후 5시 반에 장례를 마쳤다는 사실을³² 고려한다면 필의홍이 조문소를 방문한 시간은 각 신문에 서거 기사가 실린 11월 3일 당일 오후였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방문기 작성을 마친 날짜가 4일이어서 기사 말미의 작성일을 4일로 표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문소에서 한인들로부터 얻은 박은식의 사진을 중심에 놓고 태극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주위에 방문기를 배치하는 구도로 작

30 「白巖朴殷植先生葬儀」, 『독립신문』 1925.11.11., p. 2.

31 范伯群, 「通俗文壇上一顆早殞的省-畢倚虹評傳」, 『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0年第4期; 張永久, 「寂寞文章幾人識?-畢倚虹悲歎人生」, 『書屋』 2009-11 참조.

32 「白巖朴殷植先生葬儀」, 『독립신문』 1925.11.11., p. 2.

성된 상당히 큰 박스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 신문기사를 보고 찾아간 포석로 14호는 이층 양옥이었는데 1층에 마련된 조문소에는 전면 벽에 국기를 두 장 걸어놓았고 중앙에 흰 천으로 덮은 상(床) 하나와 몇 개의 의자를 둔 정도로 실내에 아무런 설치가 없었다. 원래 국기는 밖에 거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공개적으로 걸지) 못하고 실내에 걸고 있는 형편에 가슴이 아팠다. 실내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도였는데 조문객을 맞는 데에도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취재를 하기 위해 온 기자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당황해하며 제대로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양복, 절반 정도는 중국 복장(華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병원 의사가 밝힌 서거 병명이 무엇이었는데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거기에는 매우 아픈 사연이 있어서(此中有極痛心處) 답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신문보도에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는데 어떤 절차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정해진 것이 없어 일반인의 의례를 좇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장지(葬地)가 어딘지 묻는 질문에도 크게 탄식하며 함께 있던 여러 사람과 한국어로 한참을 상의한 다음 이 또한 답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해왔다. 박은식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묻자 『안중근전』 등 많은 저술이 있고 『독립신문』 사장과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다는 등

의 설명을 들었다. 박은식의 사진을 한 장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자 20분쯤 걸리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기다리는 동안 상해에 몇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지, 남녀 비율이 동등한지, 박은식의 가족은 있는지 등의 질문을 했다. 그에 대하여 현재 300여 명의 한국인이 상해에 거주하고 있으나 여자는 20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 박은식은 부인을 사별하였고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들은 현재 상해에 살고 있으며 공부를 잘한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안공근이라는 분을 소개 받았는데 그가 안중근의 실제 동생이라고 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인사를 했다. 기다린 끝에 사진을 한 장 얻어 감사의 인사를 하고 문을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운전수가 오래 나오지 않아서 초조해 하고 있었는데 박은식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번 방문 취재가 헛걸음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³³

이상의 방문기를 통해서 보자면 당시 박은식의 장례는 급하게 준비하느라 여러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고 심지어는 장지조차 뒤에 급하게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급작스럽게 서거를 당하여 허둥댈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장지 마련 등 장례를 위한 경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한 어려움도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자

33 (毕)倚虹, 「韓總統身後訪問記」, 『上海畫報』 51期(1925.11.6.), p.4.

34 『獨立新聞號外』(1925.11.2.)에서도 “장지는 靜安寺路公墓로 택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못하였고 장례일은 모든 절차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정해질 터인데 늦어도

『도화시보(圖畫時報)』에 실린 장례 당일의 운구(運柩) 사진은 조화(弔花)로 단장한 운구 마차의 앞뒤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잡고(執紼) 가는 엄숙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도사진에 붙인 설명에는 “많은 한인들과 함께, 박씨와 교분(交誼)을 가지고 있던 (중국) 사람들이 모두 나와(均往) 줄을 잡고 뒤따랐고 정안사로공묘(靜安寺路公墓)에 안장되었다”고 쓰고 있다.³⁵ 비록 급작스럽게 준비되긴 했으나 장례, 운구, 안장이 엄숙한 가운데 규모 있게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³⁶

장례가 치러진 며칠 뒤인 11월 8일자 『중화신보』와 『신신보』에는 4일에 치러진 장례에 관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두 신문에 실린 장례 보도의 제목과 내용 또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이 또한 임시정부 측에서 기사를 배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 내용 가운데 주목할 점은, 장례위원(집례) 최창식의 사회로 장례위원장 이유필의 제문 낭독, 안공근의 고인 약력 낭독 등의 순서로 장례 의식이 진행되었다는 것 이외에 중국 측 인

3-4일을 넘기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11월 2일에 장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5 「韓國臨時大總統之殯儀」, 『圖畫時報』 275號(1925.11.8.), p. 6.

36 일본 측 정보자료에는 “국장이 비교적 간소(質朴)하게 치러졌으며 조선인과 중국인 합하여 500명 정도가 참여하였고 장례비용이 500元 정도 들었다”고 하였다. 『假政府前大統領國葬(1925.11.7., 在上海總領事→外務大臣)』,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소장 문건. 장례 참석 인원(인원)에 대하여 『독립신문』에서는 인성소학교 교직원과 학생 50여 명,三一公學生 50여 명, 그 뒤에 유족과 장례위원, 그 뒤에 일반 조문객(護喪人) 300여 명이 뒤따랐다고 하였다. 『前臨時大統領白巖朴殷植先生葬儀』, 『독립신문』 1925.11.11., p. 2 참조. 이것으로 보면 일제 정보자료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로 대동학회의 채북륜(蔡北崙), 주제광(周霽光), 황개민(黃介民) 등이 참석하였고 황개민이 대표로 제문을 읽었다는 대목이 실려있다.³⁷ 황개민이 읽은 제문은 이듬해인 1926년 5월에 발간된 국민대일외교대회 기관잡지 『오구월간』 11기에 실려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³⁸ 이 제문은 “대동학회 성립 10년 11월 4일”이라고 하여 紀年을 1915년 대동학회 창립일로부터 잡고 있고 “대동대학(大同大學) 대표 채북륜, 황종한(黃宗漢), 주제광, 류백영(劉伯英), 황개민 등은 대한민국임시대통령 박은식의 영전에 아뢴다”로 시작하고 있다. 제문의 본문은 서로의 목표(志望)가 같아서 의지가 되었는데 이별하게 되어 너무나 슬프다는 점, (박은식의) 의지는 정의롭고 글은 엄격했는데 상해 지역에서 그런 빼어난 지도자(賢豪)를 잃어서 마음 아프다는 점, (박은식은) 한국의 스승이며 사람들 가운데 철인(哲人)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다.³⁹ 이러한 내용은 함께 장례에 참석했던 『오구월간』 총편집인 주제광이 쓴 만사(輓詞)를

37 「韓統領朴氏之哀榮」, 『中華新報』 1925. 11. 8., p. 6; 「韓統領朴氏之哀榮」, 『新申報』 1925. 11. 8., p. 6. 황개민의 회고에 의하면 蔡北崙은 臺灣 출신 인사라고 보이는데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었다. 黃介民, 「三十七年遊戲夢」, 黃志良 編著, 『黃介民手稿選集』, 武漢(華中科技大學出版社), 2023, pp. 24-25.

38 黃覺(黃介民), 「祭朴殷植文」, 『五九月刊』 第11期(1926.5.), p. 125.

39 제문의 헌정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黃鍾漢은 黃興의 부인인 徐鍾漢으로 1921년 5월 상해에서 만들어진 中韓互助總社의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배경한, 앞의 『20세기 한중관계사 연구』, p. 305), 劉伯英은 일본 明治大學 출신으로 중국동맹회에 가입하였다가 신해혁명 후 南京臨時政府 顧問, 1924년 孫文 휘하 廣州大本營 諮議에 임명되었던 혁명과 내지 국민당계 인물이다. 徐友春 主編, 『民國人物大辭典』, 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 1991, p. 1422 참조.

통해서도 반복되고 있다.

위의 제문과 함께 『오구월간』 11기에 실린 만사에서 주재광은, 한인들이 크게 존경하고 중시하던 지도자가 박은식이라고 하면서 박은식의 문장이 논리 정연하고(道理가 있고) 매우 빼어나다는 것을 보고 우리 잡지의 명예찬술로 초빙드렸는데 흔쾌하게 수락해 주셨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를 떠나시니 우리 잡지 동인(同人)들의 슬픔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서문(并序)으로 붙인 다음, 한국은 중국과 동종동문(同種同文)의 관계에 있다는 점, 그런데 강한 옆 나라(強隣, 곧 일본)가 침범하여 번국(藩國)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래서 박은식은 고국을 떠나 떠돌며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자신들과) 함께 오구(『五九月刊』)를 만들며 명언을 남기고 국혼을 되살리는 데에 힘썼다는 점 등을 들며 박은식의 재능과 활약을 칭송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⁰

박은식이 명예찬술(논설위원)로 참여했던 『도로월간(道路月刊)』 쪽에서도 장례식에 만련(輓聯)을 내걸었는데 그 내용은 “그 호탕한 기세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오래 보존할 것이며 강권(強權)도 그 자유정신을 누를 수 없을 것이다”라는⁴¹ 것으로 서거 직후인 11월 15일 자로 발간된 『도로월간』에 게재된 추도사에 인용되어 있다. 그밖에 당시 중국인들이 쓴 추도문

40 周霽光, 「輓朴白岩先生并序」, 『五九月刊』 第11期(1926.5.), pp. 133-134.

41 輓聯의 원문은 “浩氣長存獨立史, 強權難壓自由神”이다. 「悼本刊名譽撰述朴君白岩」, 『道路月刊』 第15卷 2號(1925.11.15.).

형식의 글로는, 함께 『오구월간』 찬술위원이던 호운산(胡蘊山)이 쓴 짧은 전기⁴²가 있다. 1926년 11월 발간의 『오구월간』에 실린 「박은식」이라는 글에서 호운산은 박은식의 망명 이전 시기부터 언론, 저술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북경, 천진을 거쳐 망명해 온 다음 남경(南京), 홍콩(香港) 등을 거쳐 상해로 와 머물면서 신문 잡지의 편집에 참여하였고 『한국통사(韓國痛史)』 등 저술 작업을 이어갔다고 썼다. 이어서 호운산은 1924년 말 이후 박은식이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통령을 맡는 등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는데 주재광의 소개로 그를 알게 된 이후 분투하는 모습을 보았다. 망한 나라 지사의 슬픈 글을 더 이상 읽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쓰고 있다.⁴²

3. 國民對日外交大會에의 참여

위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박은식의 병환, 서거, 장례, 추도와 관련된 중국 측 신문 잡지 기사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박은식의 마지막 1년이 병환으로 매우 힘든 형편이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그와 함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박은식이 마지막 1년 동안 어떤 부류의 중국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

42 胡蘊山, 「朴殷植」, 『五九月刊』第13期(1926.11.), pp. 178-179.

한 관계 속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전에 발표한 다른 글에서 박은식이 1925년 초부터 5월 무렵까지 논설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도로월간』과 거기에 실린 박은식의 논설들을 발굴하여 자세하게 분석한 적이 있다. 그 글의 결론으로, 전국도로협회(全國道路協會)라는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 참여 활동이라는 측면과 함께 “중한호조(中韓互助)”를 통한 중국 측 지지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했었다.⁴³ 그런데 이번에 병환, 서거, 장례, 추도와 관련된 중국 측 자료들을 조사하면서는, 『도로월간』에서 논설위원을 맡아 논설을 기고하던 것과 같은 시기에 『오구월간(五九月刊)』이라는 잡지에도 논설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편의 논설을 싣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⁴⁴ 뿐만 아니라 황개민, 주제광 등 장례에 참석했던 중국 측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서 『오구월간』 출간의 주체였던 국민대일외교대회라는 반일 시민단체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대동학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관심에서 아래에서는 황개민, 주제광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학회 및 국민대일외교대회와 박은식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추적해 보고자

43 배경한, 「박은식과 ‘중한호조’-『道路月刊』 게재 논설 6편의 내용과 의미-, 『진단학보』 130호(2018).

44 당시 『道路月刊』 잡지는 한국에도 전해져서 (논설위원) 박은식의 사진과 기고 논설도 알려져 있었다. 정인보, 「介潔無垢한 朴殷植先生, 『開闢』 62(1925.8.1.), p.39 참조. 그러나 같은 글에 『오구월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다.

먼저 『오구월간』의 오구(五九)는, 원세개(袁世凱)정권이 1915년 일본의 “21개조요구”에 굴복하여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통지를 보낸 5월 9일을 “국치일”로 기념하고자 하는 데에서 유래했다.⁴⁵ 당시 일본의 광범한 특권을 규정하는 조약 내용을 둘러싸고 중일 간의 비밀교섭 소식과 중국 정부의 굴욕적 태도를 알게 된 언론계에서부터 그에 대한 비판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지식인,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중국학생 대표들의 항의 귀국운동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국민외교”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⁴⁶

1913년 일본에 유학하여 명치대학(明治大學)에 다니고 있던 황개민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손문(孫文)이 주도하던 혁명단체 중화혁명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으로 1916년부터李大釗(李大釗), 高一涵(高一涵), 馬鶴天(馬鶴天) 등과 함께 동경유학생총회의 기관잡지 『민이(民彝)』를 창간하여 그 편집에 참여하였다. 특히 황개민은 幸德秋水(幸德秋水, 고도쿠 슈스이) 등 일본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저술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바쿠닌이나 마르크스의 사상들을 유교적 유토피아인 대동(大

45 楊鵬·張遠波, 「恥感與愛國—民國時期“五七”、“五九”國恥紀念平議」, 『社會科學論壇』 2010—11; 湯心竹, 「“五九”國恥紀念日的由來」, 『西昌學院學報(社會科學版)』 22—4(2010).

46 曾榮, 「報刊輿論與中日“二十一條”交涉前後的國民外交」, 『學術研究』 2018年 第8期.

同)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⁴⁷ 그런 한편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대하여 아시아 제 민족 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신아주의(新亞主義)”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황개민은 1916년 중국과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아동맹당을 조직하였고 여기에 하상연, 장덕수, 김철수 등 한국 유학생들도 적극 참여하였다.⁴⁸ 1916년 말 한국을 거쳐⁴⁹ 중국으로 돌아온 황개민은 1917년 말 상해에서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 본부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에는 신규식, 조소앙 등 한국 측 인물들과 베트남, 대만, 이란 측 인물들이 참여하였다.⁵⁰ 1920년 초 황개민은 상해에서 역상(易象), 장몽구(張夢九), 진중부(陳中孚) 등 중국 측 인사들과 신규식, 여운형, 이동녕 등 한국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아동맹당을 확대 개편하면서 대동당(大同黨)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역상을 중국 측 대표로, 그리고 신규식을 한국 측 대표로 선임하였다.⁵¹ 이를테면 황개민은 1916년 일본 유학 시절부터 아시아 제 민족의 반제(반일)연대를 구상하면

47 李丹陽, 「“慷慨悲歌唱大同”—關於中華民國時期的大同黨」, 『晉陽學刊』 2019年 第2期, p. 34.

48 李丹陽, 앞의 「“慷慨悲歌唱大同”—關於中華民國時期的大同黨」, pp. 35-36; 黃介民, 앞의 「三十七年遊戲夢」, pp. 16-17.

49 당시 서울에서는 何相衍의 소개로 안재홍, 조소앙, 손정도, 신익희 등을 만났다. 黃介民, 앞의 「三十七年遊戲夢」, pp. 18-19.

50 조덕천, 『중한호조사와 한중연대』, 역사공간, 2021, pp. 68-76; 金柄珉, 「相期各努力, 定國平天下: 黃介民與韓國獨立闘士的思想文化交流」, 『延邊大學學報』 54-1(2021), pp. 13-17.

51 黃介民, 앞의 「三十七年遊戲夢—黃介民回憶錄」, pp. 45-47; 李丹陽, 앞의 「“慷慨悲歌唱大同”—關於中華民國時期的大同黨」, pp. 35-36.

서 신아동맹당과 대동당이라는 단체를 연이어 조직하였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한중연대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1918년 3월, 러시아 혁명 이후 그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공동으로 막는다는 명분 아래 북양정부(北洋政府)에게 「중일공동방적군사협정(中日共同防敵軍事協定)」의 체결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 공동군사협정의 체결 시도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더욱 치열한 반일운동에 나서게 만드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동군사협정의 체결 소식에 격분한 일본의 중국유학생들이 대거 항의 귀국하면서 “국민외교”의 여론이 크게 일어나 뒷날 전국민적 반일운동으로 확대된 5·4운동의 사실상의 출발점이 되었다.⁵² 당시 전국적으로 2,500여 명에 이른 귀국 유학생들은 “유일학생구국단(留日學生救國團)”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시위와 집단적인 청원운동에 나서는 한편으로 상해에서는 『구국일보(救國日報)』라는 신문을 창간하여 반일 여론을 조성하고 구국대학(救國大學)이라는 대학을 창립하여 귀국 학생들을 수용하는 등의 활동에 나섰다.⁵³ 구국단의

52 외교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상징하는 “국민외교”는 청말부터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鄉紳과 일부 신지식인층에 한정되었다는 의미에서 제한적 성격을 가진 반면에 1919년의 5·4운동을 거치면서 국민적 각성과 참여의식 가운데 대외정책에 대한 시민적 지지와 비판, 참여가 강조되고 商會, 工會, 學生會, 同鄉會 등 각급 시민단체의 대규모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국민외교”의 시대가 나타났다고 본다. 周斌, 『20世紀20年代民間外交觀念及其實踐活動』 2003年度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博士論文, pp. 11-16; 曾榮, 「國民外交協會與近代國民外交“對內”趨向」,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6年 第4期.

53 任欣欣, 『1918年中華民國留日學生救國團研究』 2009年吉林大學碩士論文 참조.

활동은 같은 해 10월경에 상당 부분 찾아들기는 하지만 『구국일보』의 경우 5·4운동 이후인 1920년 9월 말까지 간행되면서 전국적 반일운동의 기지가 되었던 것이다.⁵⁴ 황개민은 바로 이 『구국일보』의 주요 편집인으로 활약하였고 황개민의 소개로 조동호, 장덕수 등 한인들이 편역(編譯) 담당 기자로 참가함으로써 대동당과 아울러 한중연대의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⁵⁵ 실제로 『구국일보』에는 조동호와 장덕수의 기명 기사가 실리고 있고⁵⁶ 특히 삼일운동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과 그에 대한 일본당국의 무자비한 탄압과 참상이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니⁵⁷ 당시 중국인들에게 한국 문제는 가장 중요한 “타산지석”으로 받아

54 李丹陽, 「救國未勘忘啓蒙—『救國日報』研究」, 『史林』 2018年 第6期, pp. 87-88; 李曄曄 任欣欣, 「留日學生救國團歸國抗日活動及其影響探析」,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32-4(2013. 7.) 당시 상해에서 활동하던 朱耀翰(頌兒)은 오사운동 이후의 문화운동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新青年』, 『星期評論』 등 여러 잡지의 출현과 함께 『民國日報』와 『救國日報』의 활동상을 전하고 있었다. 頌兒, 「上海雜信: 中國의 文化運動」, 『동아일보』 1920.4.19., p. 1.

55 李丹陽, 위의 「救國未勘忘啓蒙—『救國日報』研究」, p. 91. 『救國日報』는 삼일운동 전후 시기 상해 지역 한국독립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국내 학계에는 아직 소개되거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56 雪榴(張德秀, 趙東祐), 「譯論: 國際聯盟與日本革命(譯英文滬報), (續)」, 『救國日報』 1918.8.16.~17.; 榴(趙東祐), 「譯述: 臺灣統治之根本問題(譯大阪每日新聞)」, 『救國日報』 1918.8.26.; 雪山(張德秀), 「來稿: 歷史, (續)」, 『救國日報』 1918.9.20.~21. 등 참조. 이외에 「譯論」, 「譯述」란에 실린 많은 무기명 글들 가운데 조동호나 장덕수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57 1918년 7월부터 주필 마학천(馬鶴天)이 쓴 「韓亡慘史」, 「亡國慘狀: 朝鮮見聞錄」를 매일 연재하였고 12월 이후, 특히 삼일운동 발발 이후에는 「韓人獨立消息」 등의 전란을 만들어 많은 관련 기사를 실고 있다.

들여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⁵⁸ 그런 점에서 당시 『구국일보』는 한중연대의 중요한 무대였던 것이니 실제로 이 시기에 상해로 망명해 온 한인 청년들이 도착 직후 상해 지역 한인들과 연락하기 위해 구국일보사를 찾아가는 정도로 한인 활동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다.⁵⁹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난 거국적인 반제(반일)운동인 5·4운동은 기왕의 “국민외교”의 결정적인 폭발이었다. 제1차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 곧 파리강화회의에 이른바 승전국의 지위로 참석한 중국 대표단의 최대 목표는 패전국 독일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 지역의 이권을, 전쟁 중 대독선전(對獨宣戰)을 감행하고 이 지역을 무력 점령한 일본이 차지하도록 두지 않고 중국 측에서 환수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미국, 영국 등 다른 열강들의 동의 아래 일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이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거국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의 3·1운동이 독립 청원을 위해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에 대한 거족적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었다면 중국의 5·4운동은 파리강화회의의 결과에 대한 실

58 李丹陽, 위의 「救國未勘忘啓蒙—『救國日報』研究」, p. 91의 각주 2 참조.

59 예컨대 1차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18년 9월 상해로 망명해 간 김홍일은 상해 도착 직후 자주 구국일보사에 들렀으며 거기서 알게 된 황개민의 소개로 귀주(貴州)의 육군강무학교(陸軍講武學校)에 입학할 수 있었다. 김홍일, 『대륙의 분노—노병의 회상기—』, 문조사, 1972, pp. 51-52. 황개민의 회고 속에도 김홍일(중국명 王雄)을 육군강무학교에 소개해 준 일이 언급되어 있다. 黃介民, 앞의 「三十七年遊戲夢—黃介民回憶錄」, p. 33.

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한 반대와 국가적 독립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두 운동 모두 동일한 맥락의 동아시아 반제운동이었던 것이다.⁶⁰ 앞에서 언급한 구국단과 『구국일보』 또한 5·4운동 기간 동안 전국적 반일운동에 앞장서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황개민의 경우 5월 7일,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회와 중화민국학생연합회총회 등의 집회에 참가하였고 『구국일보』에 주권 회복과 세계 정의, 국민자결 등을 주장하는 여러 편의 논설을 발표하였다.⁶¹

1923년 3월에 일어난 일본의 여순(旅順) 대련(大連) 환수 거부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 내 주요도시에서의 반일운동 또한 기왕의 국민외교 운동을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원래 1898년 3월 러시아에게 할양되었던 요동반도(遼東半島)의 여순 대련 지역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 다시 점령당했는데 원래의 할양 연한인 1923년이 왔음에도 일본 측이 (동북 지역에서의 일본의 특수 이익을 명시한) 21개조 협약을 내세우며 반환을 거부하자 기왕의 반일운동에 더하여 전국적인 항의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특히 1923년 3월 상해에서는 상해총상회(上海總商會)와 각 동향단체(同鄉會), 학생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대

60 배경한, 「동아시아 역사 속의 5·4운동-반제운동으로서의 5·4운동 연구의 검토와 제언-」, 『중국근현대사연구』 83집(2019).

61 李丹陽, 위의 「“慷慨悲歌唱大同”-關於中華民國時期的大同黨」, p. 34.

적인 반일운동은 이어서 전국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다.⁶² 당시의 반일운동을 시민단체로 조직한 것이 상해대일외교시민대회(上海對日外交市民大會)였고⁶³ 다시 그것을 확대하여 전국 규모의 반일운동 단체로 만들어진 것이 7월에 창립된 국민대일외교대회(國民對日外交大會)였다.⁶⁴ 국민대일외교대회에는 창립 당초부터 임시정부 측 한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1924년 3월 중순에 출판된 일주년 기념 특간에 들어 있는 회원명부 가운데 간사부 선전팀(宣傳股) 안에 김희산(金希山), 김홍취(金弘聚), 백기준(白基俊), 김구(金九), 이경현(李敬賢), 손정도(孫貞道) 등 6명 한인의 이름이 들어있다.⁶⁵ 아마도 전국적인 반일 조직 구성에 한국독립운동 측 내지 임시정부 인사들과 연합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국민대일외교대회의 조직을 주도하고 회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중한호조사의 창립에 앞장섰던 친한파 서겸(徐謙)이었으니⁶⁶ 중한호조사 조직을 통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

62 3월 25일에 있었던 市民反日大會에는 160여개 단체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하였고 일치하여 對日經濟絶交를 주장하였다. 「空前之對日遊行大會」, 『時事新報』 1923.3.26., p. 9; 「國民對日遊行大會」, 『新申報』 1923.3.26., p. 10.

63 「本會組織之緣起」, 『上海對日外交市民大會二周年彙刊』(1923.5.9.), p. 11.

64 「本會成立始末記」, 『國民對日外交大會組織大綱』, 『五九月刊』 第1期(1923.7.).

65 「本會職員題名錄」, 『國民對日外交大會周年特刊』(1924.3.16.), p. 40. 이들 가운데 손정도를 제외한 5명의 주소란에 “이상 5분은 모두 韓僑로서 중한호조사로 전달(以上五位均係韓僑由中韓互助社轉交)”이라고 적혀있다. 김홍취는 김홍서(金弘敍)의 오기인 것 같으나 이경현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66 「本會第一週年大事記略」, 『國民對日外交大會周年特刊』(1924.3.16.), p. 33.

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대일외교대회의 성립 이후 간행되기 시작한 기관잡지 『오구월간』의 편집을 책임지게 된 인물은 서한신(徐翰臣)이었고 주제광(周霽光)은 연설부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었다.⁶⁷ 주제광은 1924년 6월에 발간된 『오구월간』 5기부터는 총편집을 맡게 된다.⁶⁸ 회장 서겸은 널리 알려진 기독교 신자이면서 사법 개혁가로서 손문(孫文)의 측근으로 광동호법정부(廣東護法政府) 외교부장으로 활동하다가 파리강화회의 참석 차 파리를 방문 활동하였다. 서겸은 1920년 10월, 상해로 돌아와 자신의 휘하에서 호법정부 외교차장을 맡았던 오산(吳山)과 함께 중한호조사를 만드는 데에 적극 나섰던 인물이다.⁶⁹ 따라서 박은식이 서겸을 알게 된 것은 늦어도 중한호조사가 만들어지던 1920년 가을 이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황개민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에 박은식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황개민이 쓴 박은식에 관한 전기 속에서는 여운형의 소개로 박은식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⁷⁰ 주제광이 박은식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쓴 만사 가운데에서 황개민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고 그 문장의 뛰어남을 보고

67 『五九月刊』 第1期(1923.7.), 뒤표지.

68 『五九月刊』 第5期(1924.6.), 뒤표지.

69 金昌淑, 「曄翁七十三年回想記」, 心山思想研究會 편, 『金昌淑文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9, pp. 219-220; 배경한, 『20세기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2024, pp. 300-301.

70 黃覺, 「朴殷植傳贊」, 『五九月刊』 12期(1926.7.), pp. 86-89.

『오구월간』의 명예찬술에 초빙했다고⁷¹ 했으나 주제광 또한 1920년 9월, 워싱턴회의 참여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신규식이 광주(廣州)의 호법정부(護法政府)를 방문했을 때 그 후원을 위해 조직된 중한협회의 기관지 『광명(光明)』 잡지에 축하휘호를 싣고 있었던 사실이나⁷² 신규식이 주관하여 1921년 1월에 발간한 『진단(震旦)』 제14기에 안중근에 관한 만사를 싣고 있었던 점⁷³ 등에 비추어 한국독립에 대한 지원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제광이 1921년 5월에 만들어진 상해중한호조총사의 중국 측 참가 인사로 들어 있었던 점이나⁷⁴ 1922년 8월 22일에 열린 중한호조사 회원 추가모집을 위한 회의에서 회의 진행자(주석)로 추대되었다는 점⁷⁵, 또 1923년 3월 2일에 상해 청년회관(YMCA)에서 열린 중한어학강습소 경비 마련을 위한 예술공연(遊藝大會)의 준비를 주제광이 맡고 있었던 점⁷⁶, 그리고 1924년 초에 당시 박

71 周霽光, 「輓朴白岩先生并序」, 『五九月刊』 第11期(1926.5.), pp. 133-134.

72 周霽光, 「光明月刊創刊紀念—光復四方, 明星輝煌, 國魂喚起, 民氣發揚…」, 『光明』 第1卷第1號(1921.12.1.).

73 周霽光, 「輓韓義士安重根先生」, 『震旦週報』 第14期(1921.1.9.), p. 7.

74 조덕천, 앞의 『중한호조사와 한중연대』, p. 234. 중국 측 참가 인물 중 주검추(周劍秋)가 곧 주제광이다. 1923년 9월의 第3屆 이사회에서 周霽光은 중한호조사 중국 측 이사에 선임되었다. 「中韓互助社三屆年會記」, 『時事新報』 1923.9.2., p. 11.

75 「中韓國民互助社開會記」, 『時報』 1922.8.13., p. 10. 이 회의 말미에, 그 다음 날 廣州에서 상해로 오게 되어 있는 孫文을 환영하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중한호조사 명의의 “환영편지”를 4명의 대표들(周霽光, 沈仲俊, 金弘紱, 申翼熙)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76 「中韓互助社理事會記」, 『民國日報』 1923.1.28., p. 11; 周霽光, 「中韓互助社語學講習所經過情況紀略」, 『中韓語學講習所遊藝大會特刊』 1923.3.2., p. 4.

은식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도로월간』의 발간 기관인 전국도로협회에서도 연강부 주임(演講部董事)를 맡고 있었음을⁷⁷ 고려할 때 주제광이 훨씬 더 일찍 박은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은식이 국민대일외교대회의 집회에 직접 참가한 것은 1925년 3월 15일 상해 사마로(四馬路, 현재의 福州路)에서 열린 창립이주년(創立二周年) 기념대회였다. 국민대일외교대회 직원, 각 단체 대표, 내빈 등 5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당시 북경(北京)에서 활동하고 있던 회장 서점을 대신하여 주제광을 새 회장으로 뽑았고 이어서 내빈 자격으로 참석한 박은식이 나서서 한국어로 연설을 했다고 한다.⁷⁸ 함께 참석한 한인 학생 이범홍(李範洪)이 중국어로 통역했는데 이 연설에서 박은식은 “한국의 삼일운동과 중국의 오사운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지식전쟁이든 경제전쟁이든 중한 양국 인민들이 항일에 공동으로 힘쓰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여순 대련을 돌려 받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⁷⁹ 대일외교대회 2주년 기념식 참여와 내빈으로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당시 박은식이 이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77 「本會各部職員玉照」, 『道路月刊』 第8卷 第2號(1924.1.15.), p. 8.

78 「對日外交會二週紀念」, 『時事新報』 1925.3.16.

79 「對日外交會二週紀念會記」, 『申報』 1925.3.16., p. 15. 박은식의 이날 연설 내용은 상해지역 일본고등경찰 보고서에 보다 자세하게 들어 있다. 「僭稱假政府大統領代理朴殷植ノ弔辭及演說ニ關スル件(高警第1052號, 1925.3.21.)」, 『日本外務省文書』(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소장문서 참조.

을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5월 30일에 발발한, 상해 소재 일본 방직공장에서의 중국인 노동자 박해 사건과 그에 이은 영국 조계 당국의 중국인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과 다수의 사상자 발생 사태는 전국적인 규모의 반제(반일, 반영)운동으로 번졌으니 이른바 5·30사건(五卅事件)이 그것이다.⁸⁰ 기왕에 반일 시민운동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던 국민대일외교대회는 5·30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는 한편으로 국민대영일외교대회(國民對英日外交大會)로 명칭을 확대 변경하고 집회와 시위를 통한 대일 대영 항쟁에 앞장섰다. 특히 1925년 6월 중순에 발간한 『오구월간』은 “5·30사건특별호”로 5·30사건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관련 집회, 선언문 등을 집중적으로 싣고 있었다.⁸¹ 앞에서 언급한 『상해화보』의 경우에도 5·30사건 발발 직후인 6월 6일에 창간되면서 창설자 필의홍의 평소 주장과는 달리⁸² 창간호부터 5·30사건에 대한 사진 보도에 집중할 정도로 당시 상해는 반일 반제 분위기로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⁸³

80 鄭師渠, 「從“五卅”到“三一八”的中國知識界—以北京,上海爲中心」, 『歷史研究』 2016年 第5期 참조.

81 「五九月刊五卅事件特號目次」; 徐謙, 「國民對英日外交大會宣言」, 『五九月刊五卅事件特號』 (1925.6.15.) 참조.

82 畢倚虹 자신은 통속소설 작가로서 반제운동과 같은 민중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上海畫報』을 창간하고 기자 활동을 하면서 작품 속에 사실성을 강조하게 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柯樺珍, 『論報人生活對畢倚虹小說創作的影響』, 2015年青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pp. 16-19.

83 「(照片)學生在華界沿道自由講演—一心攝」, 『上海畫報』 第1期(1925.6.6.), p. 2. 그러나 『申

5·30사건 당시 상해에 있던 많은 한인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각 대학에 유학하고 있던 한인유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의 집회나 시위에 적극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5월 9일, 중국인 거주지역인 남시(南市) 서문외(西門外) 체육장에서 열린 시민대회에는 약 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여기에 조소앙, 여운형, 윤자영, 손두환 등 30여 명의 한국인이 참여하였고 이 집회에서 안공근은 내빈 연설에 나서서 “중국이 외관 상 독립국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독립운동이 필요하며 중국인들이 5월 9일 국치일을 기억하듯이 한국인도 8월 29일 국치일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의 2천만 인민과 중국의 4억 인민이 연합하여 함께 일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⁸⁴ 또 5월 30일 최대 번화가인 남경로(南京路) 일대에서 열린 학생시위에는 동제대학(同濟大學)에 유학 중인 최병락, 김규희, 장병삼 등 13명의 한국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주요한, 주요섭을 비롯한 호강대학(滬江大學)의 한국 학생 12명도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⁸⁵ 당시 윤자영 등이 조직한 좌익 청년단체 청년동맹회의 회원 백수십 명 또한 5·30사건과 이후의 반일 시민운동에 적

報』, 『新聞報』 등 일부 대형 일간지들의 경우 五卅運動의 실상을 왜곡하거나 심지어租界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馬光仁 主編, 앞의 『上海新聞史』, pp. 543-545 참조.

84 「國恥紀念日之上海」, 『民國日報』 1925.5.10., p. 14.

85 「上海事件ニ對スル不逞鮮人ノ後援狀況ノ件(1925.6.23., 在上海總領事→外務大臣」, 『日本外務省文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소장.

극 가담하였으니 이들은 학생 시위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상해학생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들의 시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일부 한인학생들은 강연에 참여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⁸⁶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으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박은식도 『오구월간』 “5·30사건특집호”에 5·30사건에 대한 일본 신문들의 논조를 비판하는 논설을 실음으로써⁸⁷ 상해 지역의 고조된 반일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박은식은 1918년 유일학생구국단의 조직에서부터 본격화하여 5·4운동, 5·30운동을 거치며 고조되고 있던 상해 지역 반일 반제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박은식은 국민대일외교대회와 그 기관잡지 『오구월간』 측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거나 잡지에 논설을 기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반일을 목표로 하는 “한중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4. 『오구월간』 게재 논설 5편의 내용과 의미

박은식이 『오구월간』에 직접 참여한 것은, 그의 첫 번째 논설이 이 잡지

86 孫安石, 「上海的民族主義運動與朝鮮人—五卅運動剖析」, 『史林』 1999年第3期(上海社會科學院), pp. 79-80.

87 朴殷植, 「關東報之無理造謠」, 『五九月刊』 8期(五卅特號), pp. 26-28.

에 실린 1924년 5월 전후가 아닐까 여겨진다. 이후 『오구월간』에 실린 박은식의 논설은 모두 5편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오구월간』에 실린 박은식의 논설 5편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 논설 「중국에 거는 나의 희망(我之希望於中國者)」은 1924년 5월 9일자로 발간된 『오구월간주년기념호(五九月刊周年紀念號)』에 한교백암(韓僑白岩)이라는 필자명으로 실린 것이다. 말 그대로 1923년 7월에 창간된 『오구월간』 창간 1주년 기념 특집으로 1924년 5월 9일을 기해 발간된 특별호에 실린 글이다. 원래 『오구월간』은 월간 잡지로 시작되었고 창간호부터 제4기까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간행되었다. 창간호는 1923년 7월에, 제2기는 8월, 제3기는 9월, 제4기는 10월에 각각 간행되었던 것이다.⁸⁸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시기의 『오구월간』 총편집은 국민대일외교대회의 총간사를 맡았던 진유신(陳維新)이었고 문서과(文書股)를 맡고 있던 황진아(黃震亞), 서한신(徐翰臣), 김익문(金翼文) 등 3명이 『오구월간』의 편집을 맡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창간 후 얼마 가지 않아 진유신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사임하였고 다른 위원들도 대거 사임하는 사태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불안정한 재정 상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⁹ 결

88 『五九月刊』 1期~4期(1923.7.~10.) 각호의 뒤표지 참조.

89 「本會成立始末記」, 『五九月刊』 1期(1923.7.).

국 1923년 10월에 출간된 4기 이후 간행이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1924년에 가서 『국민대일외교대회주년기념특간(國民對日外交大會周年紀念特刊)』(3월 간행)과 『오구국치기념호(五九國恥紀念號)』(5기로 5월 간행)를 내기는 했으나 1925년 1월에 6기를 낼 때까지 『오구월간』은 1년 이상 출간 중단 사태가 이어졌던 것이다. 다만 위의 두 가지 특간과 6기 이후의 경우 모두 주재광이 총편집을 맡고 있었고⁹⁰ 초기의 잡지 편집이나 국민대일외교대회의 회무에 간여하지 않던 황개민이 일부 글을 기고하고 있음도 눈에 뜨인다.⁹¹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박은식의 글이 『오구국치기념호』에 실리게 된 것은 황개민과 주재광,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황개민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짐작케 된다.

「중국에 거는 나의 희망」에서 박은식은, 중국이 자신의 두 번째 조국이라고 말하면서 마관조약(馬關條約)의 회복과 21개조의 철폐, 여순 대련의 환수를 중국인 못지않게 간절히 바란다고 서두를 꺼낸 다음, 이러한 희망은 오직 중국이 개혁되고 강해짐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최근 중국이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희망)을 두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면서 (1) 최근(오사운동 이후) 국민 각자의 각오가 날로 강해지면서 그 가

90 주재광은 『五九特刊周年紀念號』에 실린 「本會第二屆職員題名錄」에 의하면 당시 북경에 가 있던 徐謙이 위원장의 뒤를 이어 총간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五九月刊』의 명예총편집은 서겸이, 편집주임은 주재광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本會第二屆職員題名錄」, 『五九特刊周年紀念號』(1924.5.9.).

91 界民(黃介民), 「對日感言」, 『國民對日外交大會周年紀念特刊』(1924.3.15.).

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대일 경제절교운동(일본상품 보이콧운동)을 통하여 21개조요구의 철폐와 여순 대련의 환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평민교육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일반 국민의 지식을 높이는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결코 구미 열강에 못지 않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온 국민의 각오가 더욱 강해지고 일치단결함으로써 그 힘을 대외에 드러내야 한다. (2)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건설 사업 운동과 그 결과를 볼 때 오늘날 중국 경제발전에 커다란 희망을 가지게 된다. 중국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경제절교운동에 적극 찬성을 표한다. 중국(大陸)의 교통과 경제가 발달한다면 섬나라(島國, 일본)를 압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희망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국민적) 자립과 단결, 경제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희망(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논설의 핵심이다. “국민적 각오”의 문제는 박은식이 신해혁명 직후 혁명의 회복,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민적 각성”, 곧 민기(民氣)라고 주장했던 점을 떠올리게 한다.⁹² 또 경제적 자립과 발전 문제는 박은식이 『도로월간』에 실었던 논설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던 경제 발전 가능성을 떠올리

92 「民氣」, 『香江雜誌』第1號(1913.12.1.), pp. 26-30. 이 글에서 박은식은 “공화국의 존망은 민기의 강약에 달려있다(國之存亡決於民氣之強弱)”고 하였다.

게 한다.⁹³ 이를테면 이 논설에서 박은식이 말하고자 하는 중국의 가능성(희망)은 그가 오랜 동안 주장해 오던 정치적 각성과 경제적 발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었다. 물론 중국의 장래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희망)의 강조는 어디까지나 중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제 발전의 가능성과 함께) 군벌이나 관리의 부패와 국민 개개인의 무책임한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 측면 또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었음⁹⁴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논설은 1925년 1월에 발간된 『오구월간』 6기에 한교백암 박은식(韓僑白巖 朴殷植)이라는 필자명으로 실린 「세 나라의 국치 기념(三方之國恥紀念)」이라는 논설이다. 그 내용은, “최근 천진(天津) 쪽의 보도를 보니 일본인들이 미국의 일본인 이민금지법을 제정한 7월 1일을 국치일로 지정하고 그것을 항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일제가 강요한 합병조약이 통과된 8월 29일을,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21개 조요구를 원세개정권이 수용한 5월 9일을 각각 국치일로 삼아 기념해 오고 있다. 국치의 내용을 볼 때 일본의 국치는 한국이나 중국이 겪은 국치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데도 일본은 그 설욕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마

93 「路政之興廢關係國之治亂民之文野」, 『道路月刊』 第5卷 第1號(1923.3.15.), pp. 10-13. 배경한, 앞의 「박은식과 ‘中韓互助’-『道路月刊』 게재 논설 6편의 내용과 의미-」, pp. 215-220 참조.

94 白巖 朴殷植, 「革命後 12年間の 中國-中國에 대한 觀察」, 『開闢』 39(1923.9.1.) 참조.

땅히 자신들의 설욕을 주장하기 이전에 다른 나라, 곧 한국과 중국의 일본에 대한 설욕 주장을 살펴보자 설욕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국치와 설욕만 주장한다면 이후에 닥칠 재난이 재작년의 대지진(관동대지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민 금지법을 비판하며 그 제정일을 국치일로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은, 그에 앞서 자신들이 훨씬 더 심한 국치를 만들어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일본의 침략으로 당하게 된 한국과 중국의 국치를 나란히 제기함으로써 동일한 국치를 해결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그 배경에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논설은 1925년 3월 15일 자로 간행된 7기에 실린 「중국의 오사운동-동아일보 번역(中國五四運動-譯東亞日報)」이라는 논설이다.⁹⁵ 이 논설은 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박은식 자신의 저작이 아니라 동아일보에 게재된 논설을 번역한 것인데 그 2주 전인 3월 2일자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중국오사운동」이라는 논설의⁹⁶ 번역으로 확인된다. 『동아일보』의 원래 논설과 박은식의 번역본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일부 자구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충실하게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

95 「中國五四運動-譯東亞日報」, 『五九月刊』第7期(1925.3.15.), pp. 20-23.

96 「中國五四運動」, 『東亞日報』 1925.3.2., p. 1.

체적인 내용은 “한국의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중국에서 일어난 5·4운동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과 그에 저항하는 중국인들의 반일인식에서 비롯되었다. 21개조요구와 여순 대련 반환 거부 등으로 이어진 일본의 침략은 중국인들의 반일시위, 경제절교운동, 일본인들에 대한 생필품 공급 금지, 일본인과의 교류 금지로 확대되어 왔다. 최근 일본에서는, 민중(群衆)에 의하여 수립된 새 러시아를 승인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중국과 또 다른 피침략국에 대한 정책도 환골탈태하여 침략을 멈추고 그 독립을 승인하여 동아시아의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이 논설의 필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같은 시기 동아일보의 논설반 멤버로서 막 중국 출장에서 귀국한 조동호가 아닐까 추측된다.⁹⁷ 조동호는 1914년 여운형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남경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한 다음 상해로 옮겨 황개민 등이 주도하고 있던 『구국일보』와 『중화신보』에서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고 같은 시기 박은식, 이광수와 함께 『독립신문』의 편집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다.⁹⁸ 그런 만큼 박은식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상해 활동을 접고 1924년 5월 한국으로 돌아온 조동호는 일제 경찰에 의한 얼마간의 조사,

97 『東亞日報社史』 1권(1920~1945), 동아일보사, 1975, pp. 245-246.

98 이현희, 『趙東祐抗日鬭爭史』, 청아출판사, 1992, pp. 참조.

구금 후에 『동아일보』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후 과격한 논조로 일제의 주목을 받던 중 10월 중순 동아일보 측의 배려로 봉직전쟁(奉直戰爭) 취재차 심양(瀋陽)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면서⁹⁹ 상해까지 갔다가 1925년 초쯤 귀국한 것으로 짐작된다.¹⁰⁰ 그런데 앞에서도 인용한대로 1925년 10월 25일 상해에서 열린 중국제난회(中國濟難會) 성립대회에 조동호가 직접 참가하여 연설을 행한 것으로¹⁰¹ 본다면 박은식 서거를 전후한 시기에 조동호가 다시 상해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중국오사운동」 논설의 내용 또한 당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간행 금지 등 일제의 직접적인 탄압을 각오했을 정도로 “과격한” 내용이었다는 점으로 본다면 조동호의 글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동아일보』의 논설에 대한 박은식의 입장은 그 논조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것을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점은 『오구월간』에 실은 번역글의

99 「本社特派員趙東祐發電-奉天軍不利」, 『동아일보』 1924.10.16., p. 1; 「北京에서 特派員趙東祐-孫中山을 환영」, 『동아일보』 1924.12.7., p. 1 등 참조. 조동호는 19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戰地行-本社特派員 趙東祐」라는 제목으로 奉直戰爭에 관한 현지 취재기를 『동아일보』에 싣고 있다.

100 「歸途에 臨하여-上海에서 趙東祐」, 『동아일보』 1925.1.28. 조동호는 귀국 직전인 1924년 12월 北京과 天津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天津에서는 북상 중에 와병으로 일시 머물러 있던 孫文을 문병하였고 北京에서는 북경대학 교수 胡適을 방문 취재하였다. 「孫中山問病記」, 張繼氏도 往訪-天津에서 趙東祐; 「今年에 朝鮮訪問: 中國과의 史的 關係를 考察-北京大學教授 胡適氏談」, 모두 『동아일보』 1925.1.1., p. 21 참조. 따라서 1925년 1월말 북경에서 다시 상해로 온 다음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101 「韓人贊助濟難會演講」, 『新申報』 1925.10.27., p.10. 또 위의 각주 21도 참고.

말미에 박은식이 붙이고 있는 “역자의 말(譯者謂)”에서 잘 나타난다. 박은식은 “한국인의 3·1운동과 중국인의 5·4운동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본인의 태도,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강도에게 의연금(義金)을 구하는 것이나 백정에게 부처의 자비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일본에게 이러한 공상(空想)의 희망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3·1)독립선언에서 말한 것처럼 최후의 한 사람까지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¹⁰²

네 번째 논설은, 1925년 5월 9일, 『오구월간』의 특별판으로 발간한 『오구국치십주기념특간(五九國恥十周紀念特刊)』에 박은식이라는 이름으로 실린 「조선과 만주 문제가 3차대전으로 이어질까(朝鮮滿洲問題將成爲第三回大戰乎)」이다.¹⁰³ 이 글에서 박은식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경과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두 전쟁에서의 쟁점이 조선과 만주라고 보았다. 이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만주는 그 다음 침략 대상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과 만주는 동북아 정세의 최대 쟁점이 되어 왔다고 할 텐데 최근 일본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영국의 견제가 예상되고 있다. 그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계 최대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

102 앞의 「中國五四運動—譯東亞日報」, pp. 22-23.

103 朴殷植, 「朝鮮滿洲問題將成爲第三回大戰乎」, 『五九國恥十周紀念特刊』(1925.5.9.), pp. 12-16.

다. 따라서 이대로 간다면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게 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이어서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계 열강의 반식민지(半植民地)로 주권을 상당 부분 상실한 중국으로서는 철저한 각오와 거국일치의 결투가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사민보』나 『도로월간』 등에 실린 글들을 통해서도 국제정세에 대한 박은식의 해박한 지식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서¹⁰⁴ 본다면 이 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어내고 있는 박은식의 넓은 국제정세 인식에 굳이 놀랄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식민지화와 일제의 만주 침략을 연결해서 이해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영국, 미국을 포함한 서구열강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갖는 “정확성”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 글이 발표된 지 16년 뒤인 1941년 12월에 발발한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전쟁은 박은식의 예견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다섯 번째 논설은, 『오구월간』 제8기(5·30事件特號)에 박은식이라는 필자명으로 실린 「일본 신문의 무리한 유언비어를 비판함(關東報之無理造謠)」이

104 배경한, 「박은식과 ‘中韓互助’-『道路月刊』 게재 논설 6편의 내용과 의미」, 『진단학보』 130(2018), pp. 216-217.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이 노동자를 박해 살상하고 그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영국 조계경찰(英捕)이 발포하여 여러 명이 살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 동맹휴업(罷課), 철시(罷市), 파업(罷工)이 일어나 국민적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시종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 여론 또한 비등하여 러시아, 독일, 미국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한 비판과 (중국인에 대한) 동정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쪽 언론의 보도나 논설들을 보자면 그 황당함에 그대로 직시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 학생들을 무장한 폭도로, 그리고 정당한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폭도들이 일본인학살단을 조직하여 일본인 가정을 습격, 여러 명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외무장관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공산 러시아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언비어들은 재작년 동경대지진 시기에 일본 정부 측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인들에게 혐의를 씌워 불만을 가진 조선인들의 방화로 인하여 사태가 악화되었다며 재난의 책임을 한국인들에게 돌린 것과 같은 일이다. 당시 이러한 유언비어로 인하여 청년자경단(靑年自警團) 같은 조직에서 만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하였고 중국인도 수백 명 희생당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이러한 유언비어 유포에 나서지 말고 즉각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중지해야 한다. 또 중국의 대응 문제를 말하자면 현재의 파업과 철시는 응급

적인 대응으로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측에도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절교와 같은 전국민적 대응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⁰⁵ 이 논설을 통해서 박은식은 5·30사건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보도와 일본 정부 당국이 만들어내고 있던 유언비어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중국인들의 장기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오구월간』에 실린 박은식의 논설 5편을 정리 소개하였다. 요컨대 박은식의 5편 논설은, 1923년 3월에 일어난 여순 대련에 대한 일본의 환수 거부사태를 계기로 하여 만들어진 국민대일외교대회와 그 기관잡지로 같은 해 7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오구월간』이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던 반일운동의 조직, 고양에 맞추어져 있었고 그때그때 떠오르고 있던 반일운동의 방향을 지지하는 데에 논점을 맞춘 내용들이다. 동시에 이러한 논설들의 배경에는 고조되고 있던 중국의 반일운동과 한국의 항일, 민족해방운동 간의 호조 내지 연대 주장이 깔려있었음은 물론이다.¹⁰⁶

이와 동시에 앞서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1925년 1월에 발간된 제6기

105 「關東報之無理造謠」, 『五九月刊』 第8期五卅事件特號(1925.6.15.), pp. 26-28.

106 박은식은 『독립신문』에 실은 다른 글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中國各界와 한 국민중이 일치 연합해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白公, 「中國人民對倭之經濟侵略宜急圖一致對抗」, 『독립신문』 1923.2.17.; 白巖, 「우리도 中國各界의 運動과 一致로 하자」, 『독립신문』 1923.3.14. 참조.

부터 5·30사건 발발 직후인 6월에 발간된 제8기까지 박은식은 『오구월간』의 편집위원(撰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은식이 이 시기에 논설위원을 맡았던 것은 같은 시기 논설위원에 이름을 올린 황개민과 총편집을 맡고 있던 주재광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었음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박은식의 서거, 장례, 추도와 관련하여 당시 상해 지역 언론들에 실린 기사들을 살펴봄으로써 박은식의 병환과 서거, 장례의 구체적 정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박은식은 1925년 5월 경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그 때문에 논설위원을 맡으며 활동하고 있던 두 가지 잡지, 곧 『도로월간』과 『오구월간』에서 물러나 요양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7월 7일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는 7월 17일 이후 인후염, 천식, 소화불량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급기야 8월 25일, 공제의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11월 1일 오후 7시 공제의원에서 서거했을 당시 장례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 특히 장지(葬地)나 장례일 등이 제대로 정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

는 주로 재정적인 부족에 있었다고 보인다. 11월 3일 상해 지역 주요 일간지들에 서거 기사가 게재된 직후 조문소를 방문 취재한 『상해화보』의 방문기사는, 이러한 준비 부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1월 4일 오후에 치러진 장례식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한인들 이외에 황개민(黃介民), 주제광(周霽光) 등 대동학회 및 국민대일외교대회(혹은 『오구월간』) 측 중국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들과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추적해본 결과 서점, 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한호조사와 황개민이 주도하고 있던 대동당(뒤에 대동학회) 중심의 아시아 지역 반제연대 활동, 그리고 1923년 3월 이후 전 중국에서, 특히 상해 지역에서 고양되고 있던 반일운동의 핵심 조직인 국민대일외교대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은식이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보이는 이들 개인이나 단체들은, 같은 시기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적극 성원하고 있던 중국인 그룹이 누구였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1919년 4월 임시정부의 성립 이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었던 “중국인들의 지원 획득”이나 “중한호조”의 모색이 갖는 실상을 나름 확인해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박은식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1920년대 전반기 상해 지역 한인독립운동가들의 대중국인 네트워크의 실상은, 192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가 신년특집 안에 주제광(周霽光)이 따로 크게 소개되고 있고 「외국인사(外國人土)와 조선」이라는 전란(專欄) 속에 오산(吳山), 황개민(黃介民), 황중한(黃鍾

漢), 황개민(黃介民) 을 중심인물로 싣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¹⁰⁷

이런 가운데 박은식은, 반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던 『오구월간』 잡지에 논설들을 기고하고 특히 19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이 잡지의 논설위원을 맡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같은 잡지에 실은 5편의 논설들은 한결같이 반일운동의 정당성과 그 방향을 논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를 통하여 박은식이 “마지막 1년” 동안 사력을 다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박은식은 5·4운동 이래로 점차 고조되고 있던 중국인들의 반일운동의 진전 상황을 바로 그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한국 독립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데에 최후의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107 「全國學界聯合會主席理事 周霽光氏—新年祝賀揮毫」, 『동아일보』 1925.1.1., p. 13; 「外國人士와 朝鮮」, 『동아일보』 1925.1.1., p.25 참조. 이 특집(「外國人士와 朝鮮」)은 상해특파원 조덕진이 구상, 취재했을 것이므로 엄격하게는 조덕진의 대중국인 네트워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박은식의 경우와도 거의 그대로 겹치기 때문에 한국독립운동가들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그 안에 周霽光, 吳山, 黃介民, 黃鍾漢 등과 함께 唐紹儀, 章炳麟, 馬君武, 江亢虎 등이 들어있고 이들이 보낸 축하 휘호나 엽서도 들어있다. 아울러 상해 영자신문 『大陸報(The China Press)』의 편집인 파월(J.C. Powell)과 『密勒氏評論報(Millard's Review)』의 정치면 주간이던 인도인 사쓰츄리(H. P. Shastri) 등이 함께 들어 있다. The China Press와 Millard's Review는 Shanghai Gazette(『滬報』)와 함께 당시 한국독립운동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영문 언론으로서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기사나 일본의 대외 팽창정책에 대한 비판기사를 자주 싣고 있었다. 1920년대 상해 지역 독립운동을 연구할 경우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1925년, 박은식과 중국의 반일시민운동」 토론문

조건(동국대학교)

이 글은 박은식의 서거 당시를 중심으로 선생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깊이 천착한 연구입니다. 평소 배경한 선생님의 글을 멀리서나마 배우고 공부해 왔는데, 오늘과 같이 뜻깊은 자리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만, 저는 박은식을 비롯하여 한국독립운동사나 관련 사상사에는 문외한인 까닭에 이번 학술대회 토론자로 적합지는 않은 듯합니다. 평소 궁리하는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박은식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에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박은식 선생의 학문과 독립운동의 면모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경한 선생님의 글에 대해 제가 논쟁점으로 여기거나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저 글을 읽은 소감과 의문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의 역할을 가름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에 ‘반일시민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처음 글을 받을 때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었는데요.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정작 본문 중에는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반일연대운동’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별한 까닭이 있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1925년을 중심으로 박은식의 행적과 서거 경위를 추적하고 있지만, 본문 내용은 1924년 어간부터 관련 배경과 행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제목에 1925년만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제2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 천착하신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1925라는 시점을 명시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대상 시기를 넓히고 1923년과 1924년, 즉 선생 말년의 상황을 부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제2장의 장례 및 추도식과 관련하여 추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본문에는 장례를 급하게 준비하느라 여러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 기술하셨는데, 그럼에도 각계의 애도와 추도의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본문에도 급작스럽게 준비되긴 했으나 장례, 운구, 안장이 엄숙한 가운데 규모 있게 치러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을 비롯한 조선 내에서는 일제 관헌에 의해 추도식이 금지되었지만,¹ 상해나 남경 일대에서는 추도 행

1 「白巖追悼式禁止」, 『동아일보』 1925.11.19. 5면.

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경 재류 동포들을 중심으로 11월 14일 추도식이 거행되었고, 서거한 지 1개월이 지난 12월 1일에는 상해 지역 8개 단체가 모여 추도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추도식은 김규면의 사회 아래, 안공근, 조덕진, 윤자영, 김상덕 등의 추도 연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함께 정리가 된다면 당초 제2장의 구성 취지가 더욱 돋보일 것 같습니다. 박은식이라는 인물이 갖는 한인사회 내 위상과 더불어 그의 서거로 인한 ‘공백’이 어떠한 의미였을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 박은식이 국민대일외교대회의 집회에 직접 참가한 것은 1925년 3월이 처음이라고 기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1924년 5월 『오구월간』에 「중국에 거는 나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고, 1925년 1월에도 글을 실은 바 있는데요. 집회에 직접 참가한 것 외에 국민대일외교대회와 처음 접점을 가진 것은 언제쯤일지 궁금합니다. 이후 행적을 보면 이미 창립 당시부터 활동을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데요. 제3장의 중반까지 국민대일외교대회의 창립 배경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이 과정에서 박은식의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1923년 국민대일외교대회 창립 당시부터 박은식이 어떠한 경로로든 관계를 맺었을 개연성이 커보입니다만 그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번째, 제2장에서 박은식의 사망 사유와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하이에서 발행되었던 신문과 잡지 등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병환-서거-장례-추도 상황을 복원한 뒤 뒤이은 제3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한중연대와 내용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구성상 사망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사망 직전 국민대일외교대회와 관련된 행적을 궁구하고 계셔서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거와 장례, 추도를 먼저 배치하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럼에도 시간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좀 더 독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 본문 내용 중에 오류라고 읽힐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독해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구월간』의 발간 시점이 1923년 6월인지 7월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창간 1주년 기념호는 1924년 5월에 나왔는데요. 각주 88)에 따르면 발간은 1923년 7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구월간』 편집위원을 역임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는 논설위원으로 기재된 곳도 있습니다. 편집위원의 임기도 5월까지인지 6월까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글을 읽고 난 소감 정도입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박은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大同과 彈劾

조규태(한성대학교)

1. 머리말
2. 독립운동 통일기관과 임시정부 수립 활동
3.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직후의 대동 촉구 활동
4. 임시대통령 취임 후 이승만 탄핵 및 개헌에 대한 조치
5. 임시대통령 사임과 민족통일 遺囑
6. 맺음말

박은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大同과 彈劾

조규태
한성대학교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박은식은 언론인·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역사학자이며,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대한제국기에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서북학회월보』의 주필과 기자로 활동하며 애국계몽사상을 고취하였고, 한성사범학교 교수와 서북협성학교 교장 등으로 활동하며 신지식을 갖춘 국가적·민족적으로 각성한 학생의 양성에 진력하였다. 국망 후 해외로 망명하여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의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여 『천개소문전』·『명림답부전』·『발해태조건국지』·『대동고대사론』·『단조사고』·『동명성왕실기』 등을 발간함으로써 고대 한국의 雄渾한 기상을 널리 소개하고,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발간함으로써 국망의 원인을 석명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해 독립의 쟁취를 염원하였다. 더

육이 그는 신학혁명당 · 대동보국단 · 대한국민노인동맹단 등의 독립운동 단체와 대한국민의회 · 한성정부 ·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의 임시의회와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박은식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이 높음에 따라 지금까지 박은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¹ 그리하여 그의 생애, 대동사상과 양

-
- 1 김용섭, 「박은식의 역사학」, 『한국현대사』 9, 신구문화사, 1971. 나절로, 「백암선생의 업적과 회고」, 『나라사랑』 8, 1972. 윤남한, 「박은식선생의 유교사상」, 『나라사랑』 8, 1972. 홍이섭, 「박은식선생과 독립투쟁사」, 『나라사랑』 8, 1972. 윤병석, 「백암 선생의 생애」, 『나라사랑』 8, 1972. 신일철, 「박은식의 국혼으로서의 국사 개념」, 『한국사상』 11, 1974. 신용하, 「박은식의 교육구국사상에 대하여」, 『한국학보』 1, 1975. 이만열, 「박은식의 사학사상」, 『숙대사론』 9, 1976. 신용하,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양명학론·대동사상」, 『역사학보』 73, 1977. 신용하, 「박은식의 역사관(상·하)」, 『역사학보』 90, 91, 1981. 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서울대출판부, 1982). 김기승, 「백암 박은식의 사상적 변천과정=대동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14, 1987. 박성수, 「박은식의 혈사에 나타난 3:1운동관」, 『윤병석교수화갑한국근대사논총』, 1990. 김창수,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에서의 박은식의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4. 유준기, 「박은식의 대동사상과 유교구신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4.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박은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4. 한영우, 「1910년대 박은식의 민족주의사학」, 『한국민족주의역사학』(일조각, 1994). 姜徳相, 「朴殷植その人」, 『朝鮮獨立運動の群像』(靑水書店: 東京, 1998). 박정심, 「박은식 대동사상의 이념과 현실적 구현」, 『동양철학연구』 27, 2001. 박결순, 「백암박은식전집 제6권 독립운동관련자료 해제」,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집위원회, 『백암박은식전집』 6, 2002. 김순석, 「박은식의 대동교 설립운동」, 『국학연구』 4, 2004. 손염홍, 「박은식의 중국 망명시기 활동」, 『백암학보』 1, 2006. 박결순, 「박은식의 역사인식과 대동사관」, 『국학연구』 11, 2006.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김기승, 「박은식의 민족과 세계 인식-경쟁과 공생의 이중주-」, 『한국사학보』 39, 2010. 김현철, 「한말 조선의 대외관과 영토 인식-박은식 신채호의 자강사상과 고대사 인식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2, 2011. 정진석, 『두 언론 대통령 이승만과 박은식 -언론을 통한 항일·구국투쟁-』(기파랑, 2012). 노관범, 「대한제국 말기 동아시아 전통한문의 근대적 轉有-박은식의 『고등한문독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4, 2013. 김현우, 「양계초와 박은식의 '신민설'과 '대동사상'에 관한 연구: '개인', '국가', '문화'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2013. 김현우, 「박은식의 양계초 수용

명학사상과 유교개혁론 등이 밝혀졌고, 그의 역사관과 사학사적 특징도 究明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연구²를 통해 『독립신문』을 통한 민족의 대동단결 촉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에 관한 연구-박은식의 유교구신과 근대성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1, 2013. 박광수, 「박은식의 대동교운동에 나타난 공공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8, 2013. 오영섭, 「대한민국임시정부 두 대통령 이승만과 박은식의 관계, 『승실사학』 32, 2014. 박광수, 「박은식의 대동교운동에 나타난 공공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8, 2014. 김현우, 「박은식과 『학구신문』 - 『학구신문』 해제를 겸하여,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24, 2015. 현광호, 「대한제국기 박은식의 서양 인식, 『서울과 역사』 92, 2016. 장신, 「일제하 민족주의 역사학의 유통-박은식과 신채호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44, 2016. 배경한, 「박은식과 '중한호조'-『도로월간』 게재 논설 6편의 내용과 의미, 『진단학보』 130, 2018. 서영희, 「『한국통사』의 근대사 인식, 『진단학보』 130, 2018. 김태웅, 「일제강점기 박은식의 『한국통사』 출간과 필사본의 특징, 『진단학보』 130, 2018. 류시현,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내일을 여는 역사』 73, 2018.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 유교개혁론의 새로운 이해, 『한국사상사학』 63, 2019. 김용달, 「박은식의 독립 『선언서』 연구, 『북악사론』 11, 2020. 조준희, 「박은 『서도여행기』의 민족사적 의의, 『대종교연구』 2, 2020. 박정심, 「근대 동아시아유학 맥락에서 박은식의 대동사상 읽기, 『유학연구』 51, 2020. 장우순, 「백암 박은식과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바라본 만주, 『한일관계사연구』 73, 2021. 박부연, 「박은식의 근대적 심학-『진야』의 구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4, 2021. 김태웅, 「해방후 사이비 『한국통사』의 탄생, 『역사교육』 163, 2022. 김태웅, 「박은식의 한국 근대사 저술과 역사의식의 진화, 『애산학보』 50, 2023. 노관범, 「박은식 『한국통사』의 새로운 이해 맥락: 공간적 복합성과 시간적 복합성, 『진단학보』 140, 2023. 김윤미, 「박은식의 이순신 서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전쟁, 『온지논총』 78, 2024. 안병관, 「20세기 조선 유학사상계에서의 양명학적 성향 대두 및 특징 연구: 박은식과 정인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성광동, 「역사 주체로서의 민중에 대한 박은식의 사유 고찰, 『청계사학』 29, 2025.

- 2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박은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4. 윤대원, 「국민대표회의 이후 개조파의 정국쇄신운동과 국무령제의 성립, 『역사연구』 7, 2000. 한시준, 「박은식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백암학보』 1, 2006. 오영섭, 「대한민국임시정부 두 대통령 이승만과 박은식의 관계, 『승실사학』 32, 2014. 장우순, 「박은식의 포용적 평화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학연구』 23, 2019. 김용달, 「박은식의 독립 『선언서』 연구, 『북악사론』 11, 2020.

개혁과 임시대통령으로서의 개헌 활동 등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망 후 그가 어떠한 민족의 통일기관 및 임시정부를 통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고,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후 어떤 정치세력과 제휴하여 임정의 개혁 및 독립노선의 견지에 기여했는가 하는 점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필자가 「박은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행동과 탄핵」이라는 연구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박은식의 독립운동을 위한 통일기관과 임시정부 수립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 후 대동축구 활동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그의 임시대통령 취임 배경과 취임 후 임시의정원의 이승만 탄핵 및 개헌에 대한 조치를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그가 임시대통령을 사임하면서 남긴 遺囑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계의 변화에 대한 그의 열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독립운동 통일기관과 임시정부 수립 활동

외교권의 상실과 고종황제의 퇴위, 정미7조약과 군대의 해산 등으로 실질적으로 국권이 상실된 1907년 박은식은 미국에서 돌아온 안창호와 신민회를 창설하였다. 즉 그는 독립국이 되려면 한국 민족의 실력양성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안창호의 생각에 공감하여 안창호, 이동녕, 이동

휘, 李甲, 李鍾浩 등과 1908년 봄 서울에서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였다.³

1909년 8월 31일 그는 한성 북부 흥현 李範圭의 집에서 李容植 · 李範圭 · 李胤鍾 등과 大同敎를 발기하였다.⁴ 그리고 9월 11일 임원 선정 시, 그는 대동교의 총장 이용직, 총사 이범규 · 이윤중, 박은식, 교육부장은 元泳義, 편집부장 張志淵, 장재부장 李秉韶, 전례부장 趙琬九, 의사부장 申夏均과 함께 종교부장에 선임이었다.⁵ 이어 그는 大東學會가 공자교로 개칭하고 친일활동을 해나간 1909년 10월 10일(음력 8월 27일 공자 탄일)에 대동교를 개교하였다.⁶ 대동교의 총장 이용직(1852~미상)은 한산 이씨로 1902년 5월 1일부터 1909년 10월까지 궁내부 특진관과 학부대신을 지낸 고관이었다.⁷ 그리고 대동교의 창설을 주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총사 이범규(1874~미상)는 전주이씨로 내부 주사로 활동하였고, 1906년 義親王府

3 「朝鮮民族運動に關する調書報告の件」, 김정명 편, 『朝鮮獨立運動』 I 권 분책(原書房, 1967), 333쪽.

4 『대한매일신보』 1909.9.2., 〈대동교났네〉.

5 『황성신문』 1909.9.14., 〈대동교임원〉.

6 『대한매일신보』 1909.10.12., 〈대동개교〉. 유준기, 「박은식의 대동사상과 유교구신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4, 61쪽. 김순석, 『불멸의 민족혼 되살려 낸 역사가』 (역사공간, 2013), 53-54쪽. 공자 탄신일은 음력 8월 27일로 알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양력 9월 28일로 정함.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료 DB, 〈근현대인물자료〉. 그는 1909년 10월 자작의 작위를 받고, 1913년 중추원 고문, 경학원 부제학으로 활동하는 등 친일의 길을 갔다.

典衛(판임8급)로 활동한 바 있었다.⁸ 그는 1913년 전북 진안군 출신의李康德 등과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경기도와 충남북에서 군자금을 획득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⁹ 이윤중(1865~)은 전주이씨로 광주부윤과 한성재판소(정 3품) 등으로 활동한 고관이었다.¹⁰ 원영익은 한성사범학교교원 등으로 활동하였고¹¹, 유근·장지연과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는 『新訂東國歷史』(1906)와 소학교 교과서 『국조사』를 발간하였고, 일제시대에 보성학교에 근무하면서 항상 어떤 책을 품안에 숨기고 다녔다 한다.¹² 그러니까 박은식은 황실과 관련하여 조직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동교의 총사로서 종교적 결사체를 통해 황실을 보위하고 국권을 수호하려는 활동에 참여하였던 것 같다.

경술국치 후인 1911년 4월, 박은식은 압록강을 건너 환인현 횡도천 윤세복의 집에 거주하며 「동명성왕실기」, 「발해태조건국지」, 「몽배금태조」, 「명림답부전」, 「천개소문전」, 「대동고대사론」 등의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고대사 유적지를 답사하였다.¹³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료 DB, 〈근현대인물자료〉.

9 『매일신보』 1913.1.7., 1.8, 1.10, 2.11, 2.16., 〈전북 진안군 상남면 용암리 이강덕〉.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료 DB, 〈근현대인물자료〉.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료 DB, 〈근현대인물자료〉.

12 국사편찬위원회, 「계몽주의 역사서의 내용과 특징」,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권수호운동Ⅱ, 1987,

13 유준기, 「박은식의 대동사상과 유교구신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4, 65쪽. 박결순, 「백암박은식전집 제6권 독립운동관련자료 해제」,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

1912년 3월 박은식은 활동의 거처를 중국 관내로 옮겼다. 잠시 北京 조성환의 집에서 머무르던 그는 천진을 경유하여 상해로 갔다. 1912년 5~6월 경 상해에 도착한 박은식은 신규식 등과 同濟社를 조직하고 총재에 임명된 후 중국 인사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13년 12월 박달학원을 조직하여 교민의 자제를 교육하였다.¹⁴

박은식은 1915년 3월 상해 영국조계 北西川路 學塾에서 신규식, 이상설, 유동열, 이춘일, 劉鴻烈 등과 新韓革命黨을 조직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생에 영향을 받아 조직된 신한혁명당은 ‘中漢誼邦條約’을 체결하고 중국 인민과 함께 대일항전을 벌이려고 하였다. 무력으로 는, 중국 동삼성 무송현, 왕청현, 통화현 · 懷仁縣 · 집안현 등에서 활동하는 해산병과 포수와 신식 槍彈을 갖춘 군인, 블라디보스톡에 설립된 正都領 이상설과 이동휘 등이 이끄는 대한광복군정부의 대원, 하와이의 대 조선국민군단에서 양성된 군인 등을 활용하려 하였다. 신한혁명당은 독일 및 중국과 연계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려고 하였는데, 두 국가는 제정이므로 공화정치를 표방하는 것이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

회, 『백암박은식전집』 6, 2002, 10-11쪽.

14 김희곤, 「동제사의 결성과 활동」, 『한국사연구』 48, 1985, 173-180쪽. 동제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신규식, 총재 박은식, 주요 임원 신채호 조소양(조용은) 문일평 김규식 박찬익 조성환 신건식 김용호 신철 민제호 민필호 김갑 정환범 김용준 민충식 이찬영 김영무 이광 신석우 한진산 김승 김덕 신무(신상무) 변영만 민병호 윤보선 장건상 정원택 여원형 선우혁 서병호 조동호 홍명희.

하여 고종황제 및 의친왕 이강에게 접촉하여 황족의 명령을 받고, 친황적 인물의 동지를 규합하여 대일항전을 전개하려고 하였다.¹⁵ 주목되는 점은, 사전에 발각되어 거사가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박은식이 황실세력 및 친황세력의 인물들과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던 사실이다.

한편 박은식은 신한혁명당을 조직하였던 1915년 상해에서 양기탁 · 신규식 · 신채호 · 박용만 등과 大同輔(保)國團을 조직하였다.¹⁶ 이 대동보국단은 본부를 프랑스 조계 明德里에 두었는데 시베리아 및 간도 방면의 동지와 조선 내 평안도 평양 거주 韓鎭敎 및 평북 정주 거주 鮮于燦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¹⁷ 박은식은 이 단장에 추대되었다.¹⁸ 대동보국단이란 명칭으로 보아, 박은식은 미주의 大同保國會처럼 보황주의적 입장에서 무력투쟁에 의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한 듯하다.

박은식은 1917년 상해에서 신규식 · 조성환 · 韓震 · 박용만 · 김성 · 신채호 · 조소앙 · 朴基駿 · 李逸 · 申憲民 · 洪煒(洪命熹) · 윤세복 · 申斌 등과

15 「조선 보안법위반사건 검거의 건」(1915.9.27.), 김정명 편, 『朝鮮獨立運動』 I, 1967, 278-279쪽.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 연구』(지식산업사, 1989), 118쪽. 김희곤, 앞의 논문 183-184쪽.

16 「경성민정취보:재외 배일선인 이승만 및 박용만 등의 행위」(1917.10.18.),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3』, 『매일신보』 1920.10.16., 2면, 〈상해가정부의 내막〉.

17 警務局, 「상해재주 불령선인의 행동」(1920.6.),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상해가정부2』.

18 박길순, 「백암박은식전집 제6권 독립운동관련자료 해제」, 『백암박은식전집』 6, 2002, 11쪽.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였다.¹⁹ 이 선언에서, 그는 “용희황제가 三寶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오인 同志가 三寶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기간에 순간도 停息이 無함이라. 오인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彼 帝權消滅의 時가 즉 民權發生의 時오 舊韓 최종의 一日은 즉 新韓 最初의 一日이니 〈중략〉 아 동지난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大統을 상속할 의무가 있다.”²⁰라고 주장하였다. 또 “삼보를 계승한 우리 동지들은 完全한 統一組織을 기다려 비로소 그 권리 의무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²¹라고 하였다. 이어 “제1차의 통일기관은 제2차 통일국가의 연원이 되고, 제2차 국가적 擬製는 마침내 원만한 국가의 前身이다.”라고 선언하였다.²² 아울러 “해외 각지에 현존한 단체들은 大小顯隱을 막론하고 규합 통일하여 유일무이의 최고기관을 조직할 것”을 주장하였다. 민족대회의 혹은 임시의정원 같은 것을 조직하고, 국민주권설에 의한 임시정부와 같은 중앙총본부를 두고 연통부와 같은 지부를 둘 것도 주장하였다.²³

대동단결선언의 주도자 중 중국 거주자들은 대종교 · 동제사 · 신한협

19 「배일선인의 〈대동단결의 선언〉에 관한 건」(1917.11.10.),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서비리아6』.

20 「대동단결선언」(1917.7.), 『백암박은식전집』 6, 2002, 87쪽.

21 「대동단결선언」(1917.7.), 『백암박은식전집』 6, 2002, 88쪽.

22 「대동단결선언」(1917.7.), 『백암박은식전집』 6, 2002, 91쪽.

23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앞의 책, 318쪽.

명당과 깊은 관련이 있어²⁴ 황실세력과 연계에 의한 독립운동을 구상하였다. 미주지역에서 황실세력 혹은 친황세력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던 박용만²⁵처럼 박은식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이 무렵에 이르면 박은식은 주권재민의 공화주의 사상이 보다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은 1918년 6월 상해를 떠나 우스리스크에 와서 대한국민의회의 전신인 전로한족회중앙총회의 기관지 『한족공보』의 주필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는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대한국노인동맹단을 결성하고 활동하였다.²⁶

흥미로운 점은 그가 ‘대한국’의 노인동맹단과 아울러 대한국의 민의회 혹은 국민의회를 위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임시정부와 임시의회는

24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앞의 책, 324쪽.

25 조규태, 「대조선국민군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 2021, 41-46쪽. 조규태, 「20세기 전반 하와이 이주민 박상하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7, 2023. 조규태, 「하와이 이주 한인 정원명의 민족적 활동과 면모(1904~1942)」, 『송실사학』 48, 2022. 미주에서 활동한 박용만은 고종황제의 자금줄인 운산 금광의 통역으로 활동하고, 의친왕 이강과 미국의 로욜라대학에서 유학한 ‘황실의 밀사’로 판단되는 박희병의 조카였다. 박용만은 박희병과 함께 도쿄에 유학하여 慶應義塾에서 수학하였고, 그와 함께 미국에 와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박희병이 사망한 이후 박용만은 1908년 7월 덴버에서 개최된 해외한인대표자대회를 주관하였고, 1909년 네브라스카에서 소년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 일은 황실의 자금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기에, 박용만이 황실의 밀사였던 박희병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짐작된다. 박용만은 1914년 하와이에서 대조선국민군단의 사령관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사업은 그의 발의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통신원의 주사로서 하와이에서 근무했던 하와이지방총회장 박상하의 초청과 大同共進團(1910)의 단장 출신으로 대한민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장으로 활동한 정원명과 안원규 등 하와이지방총회의 친황적 인물의 지원으로 추진되었다.

26 김용달, 「박은식의 독립 「선언서」 연구」, 『북악사론』 11, 2020, 181-182쪽.

국가의 존재가 상정되어야 하는데, 그 국호가 대한제국의 정식 명칭인 ‘대한국’이었다는 사실이다. 국호로 미루어 보면, 대한국민의회는 친황적 인물에 의해서 주도된 임시의회로 짐작된다. 대한국민의회의 의장 문창범은 1911년 내장원경 이용익의 손자인 이종호로부터 1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아 교육과 실업에 진력한 바 있었다.²⁷ 그런데 얼마 후 만주와 연해주지역에서 임시정부의 수립을 추진하던 인사들은 ‘대한국’이란 국호 대신에 ‘대한공화국’이란 국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²⁸ 이것을 미루어 보면, 박은식은 이 시기 황실세력의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공화주의 이념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그는, 1919년 4월 국민대회가 선포한 소위 한성정부에서, 趙鼎九 · 玄尙健 · 韓南洙 · 孫晉衡 · 申采浩 · 鄭良弼 · 玄揆 · 孫貞道 · 鄭鉉湜 · 金晉鏞 · 曹成煥 · 李奎豐 · 朴景宗 · 朴瓚翊 · 李範允 · 李奎甲 · 尹解 등과 함께 평정관에 선임되었다.²⁹ 임시정부는 국가의 존재가 상정되어야만 수립될 수 있는데, 이 한성정부의 국호는 ‘대한공화국’이었다. 한성정부의 평정관에

27 박환, 『문창범 평전』(선인, 2024, 45쪽).

28 「현순에게 ‘비전’된 임시정부의 실체와 대한공화국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2009, 269-270쪽. 현순의 영문 전보와 『신한민보』의 기사에 의하면 만주와 노령지역의 한인들이 ‘대한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소위 노령정부가 수립이 추진되었는데, 이들이 상정한 국가의 국호가 ‘대한공화국’이란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29 「국민대회취지서(1919.4)」,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2006, 6, 48쪽.

선임된 현순은 1919년 4월 4일 이승만에게 대한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 임정의 수립을 전했고, 또 이승만도 1919년 5월 말까지 대한공화국 임정의 국무경으로 행세하였다고 한다.³⁰ 그런데 이 대한공화국은 대통령제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제의 ‘입헌공화국’으로 판단된다. 신채호가 1910년 政體를 君主專制, 立憲共和, 民主共和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듯이³¹ 당시의 지식인들은 입헌군주제의 입헌공화국도 정체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한성정부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이 아닌 황제로부터 권력을 이임 받은 최고의 행정관이란 의미의 ‘執政官總裁’³²로 선임한 것이 하나의 방증이다.

그러니까 박은식은 3·1운동 직후 입헌군주제 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공화국’의 임시의회인 대한국민의회와 임시정부인 한성정부에서 활동하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보면, 그는 피지배층인 ‘민’의 나라라는 인상을 주는 ‘대한민국’이란 국호 대신에 왕족·사족·민의 모든 계층이 공화한다는 의미의 ‘대한공화국’이란 국호를 선호하고, 황실의 역할을 인정하는

30 정병준, 「1919년 이승만의 임정 대통령 자임과 ‘한성정부’ 법통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2001, 206쪽.

31 신주백, 「1910년 전후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정체로 정치이념의 전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 2017, 160-161쪽.

32 한철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국가보훈처, 1999), 129-130쪽. 로마의 집정관은 공화정시대에는 왕권을 대신해서 권력을 장악한 최고의 행정관자였고, 제정기에는 황제의 지명으로 황제권을 대행했던 행정관이라고 함.

임시의회와 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한 입헌군주제의 공화국의 수립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3.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직후의 대동 촉구 활동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1919년 9월 무렵 연해주에서 상해로 왔다. 이 시기 연해주에서 상해에 온 대한국민의회의 원세훈과 문창범 등은 임시의회(議院: 본래 표현)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대한국민의회를 없앤 후 새로 설치하고, 임시정부는 한성정부를 봉대하여 수립한다는 합의안을 기대하였다.³³ 그런데 임시의정원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였고, 새로 수립된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성정부를 봉대한 것이 아니라 상해의 임시정부를 개조한 수준에 머물렀다.³⁴ 즉 한성정부를 봉대한다고 하면서 입헌군주제가 아닌 대통령제의 민주공화제를 출범시키고, 이승만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에 선임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역들은 모두 개신교 신자였다. 대통령 이승만과 국

33 주요한, 「전기편」, 『안도산전서』 상, 범양사, 1990, 218~219쪽. 윤대원, 앞의 책, 44쪽. 金正明 편, 『朝鮮獨立運動』Ⅱ, 37쪽.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록」, 『독립신문』 1920.3.25, 2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Ⅱ).

34 반병률,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 통합정부 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 1988, 109쪽.

무총리 이동휘는 감리교, 노동국 총판 안창호는 장로교 신자였다. 1919년 8~9월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에서 이승만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하는 안이 통과되고, 이승만이 위임통치론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청도의원 신채호·서재철, 함경도의원 姜泰東, 강원도의원 송세호, 전라도의원 김철, 경상도의원 김창숙·윤현진·현정건·이규홍 등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이탈하였다.³⁵

이 혼란한 시기에 박은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을 지지하였다. 그는 1919년 10월 31일 안정근, 김구 등 29명과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니 우리 민족은 영원히 다시 일본의 지배를 受치 아니할지라.”라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³⁶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주권재민의 민주공화 체제를 옹호하였던 것이다.

1919년 11월 박은식은 독립신문사의 사장에 취임하여 『독립신문』의 발간을 책임졌다. 독립신문은 창간 당시 사장이 이광수였으나 이 무렵 박은식으로 교체되었다.³⁷ 당시 독립신문사의 구성은 총무는 옥관빈, 편집 부장은 이광수, 영업부장은 李英烈이었다. 당시 박은식은 중국 우편국에

35 「대한민국임시의정원기사록」,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54쪽.

36 『독립신문』 1919.11.11., 〈선언서〉.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박은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4, 80쪽.

37 이연복, 앞의 글, 82쪽.

信箱 100호 李英烈 명의 사서함을 두고, 우편국이나 조선은행을 통해 자금을 모았다. 그는 국내의 천만의 형제자매로부터 후원을 받아 20만원의 자금을 모으려고 하였다.³⁸ 1920년 2월 안창호 · 이광수 등이 주당 500원, 총 10만원의 자본을 모아 독립신문사를 주식회사로 발전시키자고 발의하자, 박은식은 이동휘 등과 그 찬성원으로 활동하였다.³⁹

박은식은 1919년 11월 상해에서 국민교육, 연구, 유학생 파견의 장려와 지도 등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 대한교육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서무부원은 김정목 옥관빈 김태연 손정도 정인과였다. 그는 김두봉, 이광수, 李漢根과 편집부원으로도 활동하였다.⁴⁰ 그는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기도 조사원으로도 활동하였고⁴¹, 1920년 3월 1일 발간된 신한청년당의 기관지 『신한청년』의 주필로도 활동하였다.⁴²

한편 박은식은 1920년 1월 18일 안창호를 방문하여 중국학생회와 연락을 취하자고 제안하였다. 중국의 유력한 인물과 연락함보다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또 박은식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안창호로부터 중국의 학생

38 「不穩文書發見の件」(1919.12.22.), 『朝鮮獨立運動』Ⅱ, 88쪽.

39 「大韓民國臨時政府系の目される印刷物配布等の件—中韓共手の理由」(1920.2.), 『朝鮮獨立運動』Ⅱ, 108쪽.

40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부, 『朝鮮民族運動年鑑』, 1932, 45쪽.

41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부, 『朝鮮民族運動年鑑』, 1932, 59쪽.

4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2, 143쪽.

회와 연락을 취하고 잡지를 발간하겠다는 응답을 들었다. 1920년 5월 1일 박은식은 안창호를 방문하여 유교의 대동주의를 고취하여 유교의 사상을 변동시키는 것을 제안하여 찬동을 얻었다.⁴³

1920년 박은식은 안창호의 지원을 받아 임시사료편찬위원회에서 수집·제작한 『한일관계사료집』을 활용하여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발간하였다. 1920년 1월 27일 안창호는 박은식을 방문하여 노년의 노고를 위로하고 洋 25원을 제공하고, 2월 28일에도 洋 10원을 주었다. 박은식은 1920년 6월 9일 안창호를 방문하여 초고 작성의 종료를 보고하고 추가자금의 지원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6월 17일, 박은식은 안창호를 방문하여 편찬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보여주었다.⁴⁴

1920년 중반 박용만, 申采浩, 李會榮, 이상룡, 裴達武·金大池·金甲·張建相·南公善, 신숙 등 이 북경에서 軍事統一促成會를 발기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을 비판하는 시기⁴⁵ 박은식은 독립신문사의 사장으로 활동하며 〈나의 사랑하는 청년 제군에게〉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余는 본래 정치계에 자신력이 無함으로 勿論如何時代하고 不仕主義를 가지기로 매양 친애하는 이에게 대하여 차 주

43 안창호, 「일기」, 『도산안창호전집』 4, 2000, 837, 900쪽. 신문은 발간하지 말고 중국의 신문을 이용하라는 답을 들었다.

44 안창호, 「일기」, 『도산안창호전집』 4, 2000, 846, 870, 934, 939쪽.

45 조규태, 「북경군사통일회의의 조직과 활동」, 『

의로써 권면하고 있다. 〈중략〉 人人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사양해야 진정한 共和의 행복과 독립의 지위를 향유할지라.”⁴⁶라고 하며 모든 사람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야 진정한 공화와 독립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내부 분열로 동요하던 1921년 2월, 박은식은 고 일표, 김창숙, 김진우, 김강산, 정인교, 유진호, 유건혁, 유례균, 이민창, 손영직, 안병찬, 최동오, 왕삼덕, 원세훈과 함께 「아 동포에게 고함」이란 글을 발표하고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 글에서 박은식은 그 이유를 첫째 전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통일적 강고한 정부조직을 기획하는 데 있고, 둘째 群策과 群力を 종합하여 독립운동의 최량방침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최초 임시정부를 조직할 당시에 소수인의 擅行으로 각 방면의 뜻을 널리 채집하지 못하고 신시대 신건설에 적합하지 못한 階級과 어둡고 방만한 제도를 건설함으로써 인물을 널리 초치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알력이 생겨 성심성의로 각 방면의 융화와 사업의 진취를 도모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국민의회는 임시정부와 통일의 타협을 힘써 도모하였으나 결국 파열되었고, 간북과 간서는 지난 겨울 참화 이래 일층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 결론적으로 그는 국민대표회를 소집하니 동포들은 이를 찬동하여 실행할

46 『독립신문』 1920.6.17., 〈나의 사랑하는 청년 제군에게〉.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⁴⁷

이러한 거사에 대해, 임시정부 간부인 김규식, 김구, 서병호는 박은식을 초치하여 “너는 이완용 이상의 國賊이라고 매도하였다. 이에 대해 박은식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 들인 박시창에게 말하자 박시창은 김규식의 자택으로 가서 아버지를 매도한 이유를 힐문하였다가 도리어 난타를 당하고 보창로 보강리의 中江醫院에 입원하였다. 이 때문에 박은식은 분개하여 국민대표회 발기인에게 원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⁴⁸

박은식은 1921년 3월 15일 안창호, 김철, 李鐸, 金甫淵과 함께 대한민국민대표회준비촉진회를 조직하고 국민대표회를 준비하였다. 당시 박은식은 대표를 정부측, 미령, 노령, 북만과 간도, 상해 고려공산당에서 각 4명씩 선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늦어도 1921년 6월 중순 이전에 상해에서 국민대표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⁴⁹ 이런 국민대표회준비촉진회의 요구에 대해 임시의정원에서는 임시정부의 제도변경(의원제, 대통령제), 내외 단체의 통일 도모, 임시정부 반향 불평단에 대한 완화책 등을 논의하기도

47 「국외정보 반가정부당의 격문에 관한 건」(1921.2.18.), 『백암박은식전집 제Ⅵ권』, 2002, 450쪽.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276쪽.

48 「상해가정부 국무원 회답에 관한 건」(1921.3.7.), 『백암박은식전집 제Ⅵ권』, 2002, 452쪽.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294쪽.

49 「국민대표회 개최 준비상황의 건」(1921.3.21.), 『백암박은식전집 제Ⅵ권』, 2002, 453쪽.

하였다.⁵⁰

한편 이 무렵 박은식은 상해에 머무르며 독립운동가의 추도식에 참가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1921년 3월 26일, 이승만과 이동휘가 불참한 가운데, 박은식은 250명의 임정 요인과 〈안중근의사 순국 12주기 추도회〉에 참석하여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⁵¹ 또 1921년 4월 11일 박은식 오후 7시 장빈로의 삼일예배당에서 열린 안태국의 추도회에 참석하여 이동휘 · 이동녕 · 이시영 · 안창호 등 10여 명과 함께 참배하였다.

1921년 8월 경 박은식은 독립신문사의 사장직에서 해직된 때문인지 곤궁한 처지에 내몰렸다. 그는 중국신문사의 기자가 되려고 노력하였고, 그의 아들 박시창은 『독립운동지혈사』 수백부를 휴대하고 북경에 가서 팔기도 하였다. 이 무렵 박은식은 일부의 독립운동가로부터 『독립운동지혈사』의 포퓰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받기도 하였다.⁵² 다행스럽게 그는 1921년 8월 독립신문사의 주필로 취임하였고, 1921년 10월 중국신문사 『四民報』의 주필로 활동하였기에⁵³ 곤궁함을 약간 면할 수 있었다.

50 「재상해 독립운동의 행동」(1921.3.3.),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325쪽.

51 「상해정보」(1921.4.9.), 『백암박은식전집 제Ⅵ권』, 2002, 454쪽.

52 「상해에 있어서의 국민대표회 개최 준비와 기타의 건」(1922.6.23.),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343-344쪽.

53 김순석, 『불멸의 민족혼 되살려 낸 박은식』(역사공간, 2013), 166쪽.

1922년 6월 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분열 속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삼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 무렵 국민대표회의 측은 김가진, 안창호, 박은식 중의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⁵⁴ 그는 중국어에도 능통하였기에 그를 중국에 대한 외교 선전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었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은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책임을 맡지 않았다.

1922년 10월 김구와 조상섭 등이 주도하여 장래의 독립전쟁 준비를 위해 군인의 양성과 군사에 관한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노병회를 조직하였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1922년 10월 7일 그는 여운형 김구 김인전 趙東祐 이유필 김홍서 박진우 김현구 최준 조상섭 등과 노병회 조직을 협의하였다.⁵⁶ 그리고 1922년 10월 7일 마르세이유(麥塞爾羅)路 24호에서 김구 양기하 등과 노병회 기초위원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1922년 10월 28일 개최된 발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사와 직원으로도 활동하지 않았다.⁵⁷

54 「상해에 있어서의 국민대표회 개최 준비와 기타의 건」(1922.6.23.),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294쪽. 신익희는 대통령은 필요 없으니 안창호는 하와이와 미국으로 가서 분열한 한인 간에 유세하여 통일을 도모하고 의연금 모아 상해로 송금케 하고, 백준·이동녕·이시영은 서북간도로 가서 각 단체의 통합을 도모하고, 신규식은 광둥에 이르러 손일선에게 교섭케 하자고 제안하였다.

55 「상해재주 독립운동자의 근황」(1921.10.14.),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363쪽.

56 「노병회의 상해정보」(1922.10.20.).

57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부, 『朝鮮民族運動年鑑』, 1932, 170-173쪽.

1923년 1월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박은식은 명예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박은식은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파와 창조파 중 그 어디에 참여하여 활동하지 않았다.⁵⁸

1922~23년 무렵 박은식은 『독립신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대동단결을 촉구하였다. 그는 1922년 6월 24일자 『독립신문』에 〈조속 회개하여 대동단결에 노력하라〉는 글을 실었다. 그리고 1922년 11월 8일자 신문의 〈서비리아 신국면에 대하여 우리 한족 동포에게 고함〉이란 글을 통하여 “일본은 〈중략〉 우리나라 신·구당간에 내분이 일어나고 일본에 원조를 바라는데, 이는 일본이 바라는 바이므로 이에 우리 동포들은 단체결합을 이룬 후에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1923년 3월 1일에는 〈痛告 2천만 동포〉라는 글을 통해 “조국을 광복하고 동족을 구제하려면 일 개인이나 단체보다는 중앙기관을 설치하여 각 방면의 표준을 정하고 대동단결하여야 세계인이 찬동하는 독립자격이 부여되며 각 개인과 단체는 선을 지향하여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⁹ 박은식은 1922년 11월 21일 삼일당에서 개최된 개천절기념식에 참석하여 단군의 역사를 강연하였는데⁶⁰, 이것도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룩기 위한 일환이었다.

58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303-318쪽.

59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박은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4, 83쪽.

60 「상해불령단체 동향 보고」(1922.12.25.).

4. 임시대통령 취임 후 이승만 탄핵 및 개헌에 대한 조치

1923년 1월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가 개조파와 창조파의 분열로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해체된 이후, 그는 상해에서 독립신문사의 주필로 활동하였다. 1924년 2월 당시 그는 주간 金希山, 기자 姜弼周, 편집 申斗植, 인쇄부원 高容煥 趙東祐, 사원 李東烈 崔謹愚 白性郁 柳炳基 羅在玟 張萬鎬 金永澤 金炳九 등과 함께 주필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독립신문』은 노령방면에 500부, 흑룡강방면에 100부, 길림지방에 500부, 봉천성지방에 1,000부, 중국본부지방에 400부, 미령방면에 1,000부, 한국방면에 1,500부 등 총 5,000부가 배포되었다. 그는 주필로서 독립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그는 공산주의운동과 중국에 귀화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뒤에 서서히 광복을 달성하려는 자치운동도 독립에 도움이 되는 외교적인 수단이라 하였다. 개조파와 창조파가 국민대표회의에서 상호의견이 충돌로 拮抗狀態에 빠졌으나, 그는 1923년 9월 무렵 이동녕, 김규식, 안창호 등의 알선 조정에 의하여 양파가 완전히 합동·제휴하기로 합의하고 창조파가 제정한 헌법에 의해 통일하고 ‘대독립당’ 하에서 결속하기로 하였다는 긍정적인 전망의 글을 실었다.⁶¹

61 「독립신문사 지방특파원 김병구 신문 요지」(1924.2.15.),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490-495쪽.

1924년 전반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각료와 창조파의 주역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그는 1924년 4월 출범한 이승만을 지지하던 이동녕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다.⁶² 또 1924년 7월 창조파가 조직한 국민위원회의 고문에 선임되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⁶³ 그렇지만 이 무렵 박은식은 이동녕·이동휘와 함께 상해 거주 한인의 정치적 원로로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데 1924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동녕이 ‘민정식 사건’의 책임을 지고 각원과 함께 동반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경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민영익의 아들 閔庭植이 1924년 4월 처와 지배인 閔炳吉(李載克의 사위)과 李基晩과 함께 상해에 왔다. 그는 민영익이 고종황제를 위해 상해에서 인삼을 팔아 淮豐銀行에 예치한 약 200만원을 찾기 위해 왔다고 하고 안정근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인 이시영과 의열단을 만나 각기 50만원과 2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⁶⁴ 이에 민정식과 그의 수하가 일본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한 의열단원인 윤덕영과 장덕진, 김구와 현정근 등은 민정식의 지배인 이기만을 잡아 일본 관헌과의 내통 여부를 조사하여 즉시 상해를 퇴거하는 조건으로

62 윤대원, 「국민대표회의 이후 개조파의 정국쇄신운동과 국무령제의 성립」, 『역사연구』 7, 2000, 81쪽. 이동녕 내각에는 국무총리 이동녕 휘하 외무부총장 조소앙, 내무부총장 김구, 재무부총장 이시영, 군무부총장 이동녕, 법무부 총장 김갑, 학무부총장 김승한, 노동국 총판 김구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63 「국민위원회공보 제1호」(1924.7.10.),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16쪽.

64 「민정식의 래호와 불령선인의 동정에 관한 건」(1924.5.3.), 『불령단관계잡건-선인의부-재상해5』.

풀어주었고, 민정식의 친척 閔玉記 일행을 처단하려고 하였다.⁶⁵ 게다가 김구와 윤기섭은 민정식 부부를 감금하였다. 민정식 부부는 1924년 12월 10일 프랑스조계 프랑스 경찰관과 상해 일본총영사관의 손에 의하여 구출되었지만, 이 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심각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군사참모총장 盧伯麟이 1924년 12월 11일 李基溶, 文一民, 孫孝植, 金東旭, 安敬根, 李雄, 金龍海, 金泰源, 朱昌丁, 車公信, 李奇淵 등 11명과 회의를 하여 불법행위를 한 김구와 윤기섭 및 국무총리 이동녕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청하였다.⁶⁶ 이에 당일에 이동녕이 내각 전원과 함께 동반사직하였던 것이다.

임시의정원에서 그를 국무총리 겸 임시대통령대리로 발탁하자⁶⁷ 박은식은 이를 수락하였다. 박은식은 후일 〈고별사〉에서 ‘국무총리 겸 임시대통령대리’의 직을 맡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일 현상으로 말하면 대통령대리 이하 일반 각원이 일제 고퇴한 것이 혹은
의원의 공박으로 인하였다 하나 그 실상은 각원 제씨가 다년 葛屨하던 차에

65 「민정식의 래호와 불령선인의 동정에 관한 건」(1924.5.3.), 『불령단관계잡건-선인의부-재상해5』.

66 「민정식 구조에 관한 건」(1924.12.10.), 『불령단관계잡건-선인의부-재상해지방 5』. 「민정식 구출후에 있어서 불령선인의 대책선전에 관한 건」(1924.12.27.), 『불령단관계잡건-선인의부-재상해지방 5』.

67 「임시정부 간부 갱질에 관한 건」(1924.12.27.),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29쪽.

아무리 정부 유지에 충성이 지극하나 구미위원부가 이대통령의 특별 특별기관이 되어 정부의 接齊가 頓絶하매 弩末의 세로 彌縫이 末由한즉 그들을 만류할 수 없어서 드디어 무정부 상태에 陷한지라. 만일 차제에 정부가 중단된다 하면 오족의 낙망과 적의 조소와 세인의 냉평이 여하하겠는가? 국민의무의 사상이 조금 있는 자는 차를 차마 越視할 수 없는 것이오 또 작년 南滿지방에서 불행한 閱牆의 사변으로 아 동포의 사망과 유리의 참화가 차마 형언할 수 없고 후환의 蔓延이 더욱 限景이 없은즉 동포의 정의로도 차를 見하고 聞한하는 자는 골이 썩하고 胆이 裂하지 않을 자 없거늘 하물며 최고기관의 정부란 명의를 있고서 차에 대하여 負責이 無人한가? 그 시 의정원 대표가 여의 就職을 敦請하는 日에, 혹은 여를 위하여 간하는 자도 있고, 혹은 여의 出山을 우려하는 자도 있었는데 여가 좌우로 參量하고 輕重을 權衡하매 정국의 위험과 지방의 비참을 대하여 不忍의 心으로도 금치 못하겠고 일시 공기가 비록 험악하다 하나 다수 동지의 부조가 있었으면 혹 대실수가 없을 듯하기도 사양을 고집치 않고 당돌히 출석하야 〈하락〉.⁶⁸

그는 지금의 사태가 구미위원부가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고, 南滿에서 참의부와 통의부의 투쟁으로 동포들이 죽거나 유리되는 상황에 무정부 상태가 되면 적의 조소를 받고 세상 사람들로 냉정판

68 『독립신문』 1925.10.21., 〈임시대통령 고별사〉.

비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무정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동지의 부조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책을 짊어졌다.

이동녕과 그 내각의 퇴진은 임시의정원의 다수를 점한 개조파가 행한 정국쇄신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였는데, 1924년 12월 11일 박은식이 국무총리와 임시대통령대리에 취임하면서 의정원에 이어 정부마저도 개조파가 장악하게 되었다.⁶⁹

1924년 12월 11일 국무총리에 취임한 박은식은 내무총장 李裕弼, 외교재무총장 李圭洪, 군무교통총장 盧伯麟, 법무총장 吳永善, 학무총장 趙尙燮, 노동총판 金甲을 선정하여 임시의정원에 각원 명단을 제출하고 12월 16일 승인을 받았다.⁷⁰ 다음날부터 박은식 내각이 출범하였다.

국무총리 박은식이 조각한 국무위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약력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69 윤대원, 「국민대표회의 이후 개조파의 정국쇄신운동과 국무령제의 성립」, 『역사연구』 7, 2000, 94쪽.

70 「임시정부 간부 갱질에 관한 건」(1924, 12, 27.),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29쪽.

<표 1> 박은식 국무총리 내각의 국무위원 7 1

이름	생년	출신지	내각 지위	임정 내 경력	기타 경력
李裕弼	1885~1945	평북 의주	내무총장	19.08. 내무부 비서관 21.07. 재무부 재무차장 22.04. 의정원 부의장	07. 신민회 12. 105인 사건 옥고 23.09. 대한교민단 단장, 인성학교 교장
李圭洪	1893~1939	경남 양산	외교재무총장	19.04. 상해에 도항. 19.8~9 경상도의원 24. 재무총장	일본 명치대 법학부 18. 양산에서 협동상업에 종사 21.10. 국민대표회 임시위원회 개최 상해에서 인삼 판매
盧伯麟	1875~1926	황해 풍천	군무교통총장	19.09. 임정 군무총장 20.02. 월로스 비행학교 설립 운영 21.02. 상하이 도착 22.10. 국무총리 취임. 24.04. 국무총리 사임.	95. 경응의숙 수학 98. 일본 육사 수학 05. 참령. 연성학교 교성 대장 09. 해서교육총회 회장 10. 하와이 대동공진단 14. 대조선국민군단 별동대 주임 15. 북경 신한혁명당 활동 19.04. 한성정부 군무총장
吳永善	1886~1939	경기 고양	법무총장	19.04. 경기도 의정원의원 20.09. 국무원 비서관. 이동휘 보좌 22. 이승만 불승인안 제출	00. 배재학당 수학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07. 신민회 14. 이동휘와 나자구 동림무관학교 설립 23. 상해교민단 의원 24.01. 상해교민단의사회 학무위원
趙尙燮	1885~1940	평북 의주	학무총장	19.04. 의정원 21. 의정원 의장	16. 평양장로회신학교 졸업 19.08. 상해 한인교회 목사 24. 인성학교 교장
金甲	1889~1933	경남 동래	노동총판	19.04. 의정원 경상도 의원	19. 동래에서 3.1운동 참여 21.04. 북경군사통일회의 국내노동당대표 22.12. 13도총간부 23.1 국민대표회의 개조파

이들의 약력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이유필 · 조상섭, 노백린처럼 출신지가 평북 · 황해 등의 관서 출신이 많았다. 둘째 박은식과 같은 신민회 출신이 다수였다. 이유필과 오영선이 그렇다. 셋째 노백린은 박은식처럼 신한혁명당 · 한성정부 등 친황적 단체와 기관에서 활동한 인물이 주목된

7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국가보훈처, 『요시찰인 명부(1925.2.)』, 1996.

다. 노백린은 친황적 인물인 정원명 · 박상하 · 안원규 등이 주도하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산하에 조직된 대조선국민군단의 별동대에서 활동하고⁷², 신한혁명당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국무총리와 임시대통령대리 선임에 반대파의 목소리가 높았다. 1924년 12월 19일 임시의정원 의원 조완구는 “새로 선임된 임시의정원 의장 최창식은 음모적 수단을 농단하여 의장에 당선되었고, 의장의 권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감행하고 박은식을 대통령 대리에 선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아 광복운동의 대업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속히 시정하라.”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⁷³ 또 1924년 겨울 이승만은 “현정부 및 의정원의 제반 행사를 부인한다. 아울러 현정부 및 의정원의 행위는 비법이므로 재미한인은 모두 이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박은식에게 보냈다.⁷⁴

1925년 2월 박은식은 이유필 오영선 조상섭 이규홍 노백린 김갑 등의 국무위원과 함께 미주의 최진하에게 서신을 보내어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는 임시정부가 삼일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독립운동의 중심기구이니 정신상 · 의리상 · 형세상 이를 능히 유지하고 능히 운용

72 조규태, 「대조선국민군단의 조직과 활동—주도세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 60쪽.

73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부, 『朝鮮民族運動年鑑』, 1932, 192쪽.

74

하여야 광복사업의 진행이 순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진하에게 정부에 대한 유지와 운용의 방침을 상세히 교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⁷⁵

임시대통령대리 박은식은 1925년 3월 1일 오후 1시 민국로 침례교회에서 개최된 〈삼일기념축하회〉에 참석하여 한인의 독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간부 및 직원 14명과 함께 참가한 박은식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참가한 일동과 함께 애국가를 삼창하고 해산하였다.⁷⁶

1925년 3월 10일 박은식은 국무회의에서 구미위원부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승만 임시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 또는 의정원의 동의를 거쳐 적법으로 설립하지 않았고, 거둔 인구세 등을 임시정부에 보내지 않고, 임정에서 파견한 징세위원을 처벌하고, 심지어 수지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박은식은 미주의 징세업무를 대한인국민회 총회에 위탁하였다.⁷⁷

1925년 3월 14일, 박은식은 이범홍과 함께 중국국민당 상해제3지부를 방문하여 얼마 전 사망한 孫逸仙에 대한 조사를 말하고, “재중국 한인이 거인을 잃은 데에 충심으로 통석하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그는 다음날 15일에는 중국인의 배일단체인 국민대일외교대회의 2주년 기념회에 출

75 박은식, 「임시정부 유지와 운용에 관한 의견 서신」(1925.2.18.).

76 「상해한인독립운동자의 삼일기념축하회 개최의 건」(1925.3.3.),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48쪽.

77 「상해임시정부기관 구미위원부 폐지의 건」(1925.4.9.),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50-551쪽. 「임시대통령령 제1호」(1925.3.10.), 〈구미위원부 폐지에 관한 건〉.

석하여 한중 양국의 인민이 공동일치하여 일본에 대항하여 지식전 · 경제전 · 무력전에 의해 일본을 압도하고 여순과 대련의 회수를 실현하자고 하였다.⁷⁸

한편 1925년 3월 14일 임시의정원의 최석순 문일민 임득산 강경선 나창헌 강창제 김현구 고준택 곽헌 등은 연서로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였다. 탄핵안 제출의 사유는 1) 昨冬 이승만이 임시대통령대리 박은식에 대해 현정부 및 의정원의 제반 행사를 부인한다. 아울러 현정부 및 의정원의 행위는 비법이므로 재미한인은 모두 이에 반대한다고 통지한 일, 2) 이승만이 재무총장 이시영에 대해 각원 전부가 협의 조인한 송금 청구가 있으면 송금할 것이다. 또 인두세는 정부에서 직접 收受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일, 3) 대통령이 임지를 떠나 항상 미국에 체재하여 그 직책을 돌보지 않는 일이었다.⁷⁹

임시의정원은 3월 18일 밤 회의에서 이승만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임시의정원은 위원장 나창헌, 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의 5명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탄핵의 적법성을 다시 심판하게 하였다. 이 심판위원회에서 이승만대통령 면직을 결정하자 임시의정원은 3월 23일 밤 회의에서 이승만대통령

78 「임시정부대통령대리 박은식의 손일선 사망에 대한 조사 및 연설」(1925.3.30.),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49쪽.

79 「임시정부대통령 이승만 탄핵의 건」(1925.3.30.),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50쪽.

탄핵을 공표하였다.⁸⁰

같은 날 임시의정원의 선거 결과 박은식은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⁸¹ 박은식이 2대 임시대통령에 선임된 것은 도산 안창호의 역할이 컸다. 1925년 1월 20일 안창호는 자신을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앉히려는 이유필과 조상섭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을 임시대통령으로 삼으려는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임시정부 명의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백암 선생이나 기타 누구든지 백암 선생과 같이 공정하고 仁愛하는 덕이 있는 이면 만족하오니 명의 보존을 위하여는 특별한 인재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⁸²

박은식은 1925년 3월 24일 임시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같은 날 박은식은 국무총리겸군무총장 노백린, 내무총장겸노동국총판 이유필, 법무총장 오영선, 학무총장겸교통총장 조상섭, 재무총장겸외무총장 이규홍으로 구성된 국무위원회에 대한 동의요구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⁸³

80 「임시정부대통령 이승만 탄핵안 결정의 건」(1925.4.13.),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50쪽.

81 「임시정부대통령 이승만 탄핵안 결정의 건」(1925.4.13.),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50쪽.

82 「안창호가 이유필과 조상섭에게 보낸 편지」(1925.1.20.), 『도산안창호전집』 1, 서한1, 360-409쪽. 이현주, 「임시의정원내 권력투쟁의 추이와 정치체제 변화」,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243쪽.

83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부, 『朝鮮民族運動年鑑』, 1932, 197쪽.

임시대통령 박은식은 1925년 3월 10일 임시대통령령 제1호를 발하여 미주에서 이승만이 운영하던 구미위원부를 폐지하였다.⁸⁴ 그리고 얼마 뒤인 1925년 5월 11일, 그는 崔鎭河를 구미외교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구미의 외교 사무를 주관케 하였다.⁸⁵

이승만 탄핵 직후인 1925년 4월 1일, 박은식은 이승만에게 「우남 인형 태감」이란 제목 하의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박은식은 이승만의 탄핵이 “태좌께서 상해를 떠나 멀리 있으면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몸소 정무를 주관하고 친히 민정을 살피지 못하여 온갖 조치가 그 타당성을 얻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고, 특히 “1924년 남만주사변이 확대된 이후로 정부가 대중의 원망을 받게 되었고, 인심은 날로 과격해져서 모두가 개혁이란 한 길로 치닫게 되었는데 태좌가 이곳에 있어 몸소 위무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 위로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였다.⁸⁶

박은식은, 임시의정원이 1925년 3월 30일 국무령제 중심의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국무회의를 거쳐 1925년 4월 7일 이를 공포하였다. 개헌안의 골자는 임시대통령제의 폐지와 의원내각제에 의한 국무령제의 실시였

84 「상해임시정부기관 구미위원부 폐지의 건」(1925.4.9.),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51쪽.

85 「최진하 구미외교위원장 임명장」(1925.15.11).

86 현대한국학연구소, 『이승만 동문 서한집(중)』(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303-304쪽.

다. 개헌된 헌법에 따르면, 국무령은 임시의정원에서 선출하며,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은 자로 하였다. 신헌법은 대한민국 7년(1925년) 7월 7일부터 발효되기로 규정되었다.⁸⁷

1925년 5월 24일 임시대통령 박은식은 〈임시대통령 선서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서문에서 그는 “余는 일반 인민의 전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은식이 이승만의 탄핵 후 임시대통령으로 선정되고, 구미위원부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기호파의 박은식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다. 당시 임정 내부에서는 이승만을 옹호하는 기호파와 박은식 등의 서한파(관서파) 간의 갈등이 컸었다. 1925년 1월 초순 기호파의 유력자인 김구, 윤기섭, 조완구, 정태희, 조완, 김우진 등은 자파를 옹호할 목적으로 韓血團을 조직하고 반대 활동을 벌였다.⁸⁸ 또 1925년 5월 30일 이천민 연병호 박송병은 연서로 다음의 「矯正書」를 발표하여 박은식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87 「임시헌법개정안 통과 공포의 건」(1925.4.16.),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55-556쪽.

88 「在上海畿湖派不逞鮮人の組織せる한혈단に關する件」(1925.2.12.), 『大正14年情報綴』.

矯正書

대한에 天禍 있어서 反徒 박은식, 최창식 등의 句結造出한 民國 6년 12월 혁명임시정부 변란은 전국 국민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고, 한심의 지극이다. 같은 무리 최창식, 조상섭, 여운형, 이유필 등은 歷年の 반도로서 長德한 국민은 스스로 혁신을 바라고 관용으로 궁구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의정원에 盤踞함에 이르렀다. 국민의 長德을 기화로 좌기의 악사를 행하였다.

제1. 6년도 의정원에서 정당한 의안도 없이 회기의 연기, 휴회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약 1개년간 회기를 무기연기한 것.

제2. 동년 6월 법리에 불합리한 소위 대통령사고안을 작성하고 하등의 고장이 없는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대리를 이동녕으로 지정해야 함을 강제한 것은 憲法행위인 것.

제3. 동년 12월 국무총리 이동녕에 대하여 무조건 퇴직을 강요한 것.

제4. 국무총리 임면권은 대통령에 있고, 의정원은 동의권만을 가지는데 국무총리의 사직을 대통령에 청하지 않고 월궐하여 의정원에 제출하고, 의정원은 이것을 수리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국무총리 이동녕과 請員 최창식 등이 국민을 멸시하여 憲法난정한 것.

제5. 가령 대통령대리를 합법적으로 하였다 하여도 그렇게 하려면 대리 문제는 원대통령에게 故障이 있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장에는 구별을 가지지 않고 (1) 사고, (2) 病氣이다. 그런데도 강요에 의한 고장으로

서도 현 대통령의 고장은 사고와 병기가 아닌 고로 대리의 임명권은 원 대통령에 속하여야 할 것이다. 금번 강제대리의 건에 대하여도 대리자가 사직할 때는 그 사직을 원대통령에게 청해야 하는데 의정원에 제출함은 근거 없는 것이다. 또 의정원에서도 그 사직을 수리해야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은 제출하고 한편은 그것을 수리한 것은 양방 공히 국사를 문란케 한 것.

제6. 가령 대리대통령 사면을 의정원에서 수리하는 것은 순서로 타당하다 하자. 그렇다면 사직자가 구두로써 하고, 수리자가 또 구두로써 수리하여 즉결함과 같이 국가 대사를 구두로써 결정하는 것은 경거망동이다. 또 구두사직을 근거로 한다 하여도 그렇다면 대리대통령과 국무총리 진퇴 문제는 중대안건으로서 당연법에 의하여 즉결하는 것은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를 忌畏하여 사심과 무단으로써 즉결한 것은 국사를 기만하고 작란한 죄가 크다.

제7. 국무총리를 사직한 것은 대통령대리는 사직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원대통령이 사망 또는 사직하지 않음에도 총리 임명과 대통령 대리 임명의 가부권은 대통령에 속해야 하는 것이다. 의정원이 간섭하는 것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이탈하여 대리대통령을 선거한 것은 1국가 1의정원에서 양개 대통령을 선출하고 같은 무리의 국가를 소요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僥倖난국하면 국민을 능욕

하는 행위이다.

제8. 박은식은 80노인으로 昏妄暗愚하여 평일 국민의 양호를 받아야 한다.

본의에 반역하여 비도의 수괴를 즐겨 행하고, 비정부를 조직하고, 대담

하게도 감히 원정부를 盜劫占據한 죄가 매우 크다.

痛呼라! 현금 토왜복국에 竭忠未息하는데 저같은 무리는 이리처럼 작간과 작란을 오로지 일삼는 것은 광복전도를 고의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패의 풍습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전국 동포는 원기와 민족의 인격을 유호하려는 이유로 일치성토로써 弄憲亂政하는 자를 교정하고, 대통령은 법을 지켜 의정원 조완구 등 제씨에 근기하여 임시의정원을 소집하고, 실직 국무총리 이동녕으로써 명령파면하고 국무총리를 지급임명하여 중추원상을 급속히 회복하고 난당 박은식을 나포하여 엄혹하게 국법을 펴고 국강을 바르게 하라.⁸⁹

5. 임시대통령 사임과 민족통일 遺囑

1925년 6월 20일 박은식은 임시의정원 제14회 의회개원식에서 교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9 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 『朝鮮民族運動年鑑』, 1932, 198-200쪽.

余의 湮劣한 才分과 衰癯한 氣質로 千萬意外에 國民의 委托을 바다 過度 期間에 維持할 責任을 가지고 六七個月間에 兢懼를 不堪하난 바이온대 多幸히 賢明忠實하신 諸位의 協心戮力과 政府一致의 贊襄으로 이미 內政整理와 外交刷新과 憲法改正 等の 重要問題를 循序進行하난 中에 來 七月 七日은 新憲法實施가 되는 定期라 從此로 海內海外 人心과 財政과 人才를 모다 統一的으로 中央政府에 集中될 것을 우리가 一致自信하난 바이라. 今에 第十四回 臨時議會를 召集한 趣旨는 法律制度和 選賢任能의 各項을 後繼才望의 期待함이요. 誠力이 忠實하신 諸位로 더부러 光復大業의 精神과 步趣를 日益 增進케 하여 우리의 最後目的을 貫徹하기로 千萬切祝하노라.⁹⁰

이 교서에서 박은식은 7월 7일 신헌법이 실시되니 이 이후로는 해내와 해외의 인심과 재정과 인재를 모두 통일적으로 임시정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민족이 최후의 목적인 광복대업을 관철하자고 간절히 기원하였다.

1925년 7월 7일 임시헌법시행축하식에서 박은식은 國印을 의장에게 전하고 고별사를 남기고 임시대통령의 지위에서 물러났다. 임시의정원이 국무령을 선거한 결과 경상북도 출신으로 서로군정서의 독판으로 활동한 李相龍이 국무령에 선임되었다.⁹¹ 〈고별사〉에서 박은식은 앞서 살핀 임

90 「임시대통령교서」(1925.6.20.), 『독립신문』 1925.10.21., 〈교서〉.

91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1925.7.7., 〈개정임시헌법 시행축식〉. 『假稱上海假政府國』

시대통령대리로 공직을 수행한 배경을 말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임시대통령대리가 된 이후 임시정부와 의정원에서 활동한 동지의 협조로써 남북만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의 통일을 이룬 데 대한 고마움을 표명하였다. 이어 그는 새로 선출된 국무령 이상룡이 舊儒宿德으로 이에 대한 원망이 없고, 만주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므로 지방별·당파별 宿疾을 없애고 국무령을 도와 광복의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였다.

〈고별사〉

당돌히 출석하야 6~7개월 간에 다행이 府院 일치협조로써 기정한 법제개정 정비외 외교쇄신과 적극대항방침이 별로 장애 없이 순행회복하고 과거 幾年間에 攻駁한다 부인한다 하던 남북만 각 의견을 소제하고 정부의 통일 일치옹호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실로 제위 동지의 합심노력한 효과이니 어찌 여의 무능으로 致할 바리오. 이제 新憲 실시의 日은 余의 告退할 期라. 無心而來가 無心而去는 余의 본원일뿐더러 겸하여 推賢讓能의 美名을 취득케 됨은 더욱 公私의 大幸이라. 신국무령 후보인 이상룡씨는 舊儒宿德으로 聞望이 素著하고 在滿多年에 광복사업을 위하여 效勞한 성적이 많은 즉 우리 정국을 유지할 능력이 유한 것을 가히 확신할지며 우리 사회에 소위 지방별이나 당파별이니 하는 宿疾도 금일 차거로 인하여 消釋이 될지니 우리 전도에 이익될 점이 많은즉

務領(舊稱大統領) 更迭に關する件(1925.8.3.), 『대정14년정보첩』.

제군은 아무쪼록 余를 협조하던 충성으로써 신국무령을 협조하여 事事를 원만
히 진행케 하면 오죽 전도에 막대한 행복이라 하노라.

대한민국 7년 7월 7일 임시대통령 박은식⁹²

박은식은 임시대통령으로 근무하던 당시부터 과로로 기력이 쇠약해지고 소화불량과 인후염 등이 발병으로 고생하였다. 1925년 7월 26일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심중해져 결국 1925년 11월 1일 그는 상해의 한 의원에서 사망하였다.⁹³

사망 직전 박은식은 안공근에게 다음과 같은 유촉을 남겼다. 이 유촉을 통하여, 그는 독립운동을 하려면 첫째 민족적 통일이 되어야 하고, 둘째 독립운동을 최고 운동으로 하면서 어떠한 수단과 방략도 활용하고, 셋째 동지간에 애증친소의 구별이 없이 통일을 이루어 독립운동을 수행하기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白岩先生의 遺囑⁹⁴

나의 病勢가 今日에 이르러서는 尋常치 않게 感覺되오 만일 내가 살아난다

92 『독립신문』 1925.10.21., 〈임시대통령 고별사〉.

93 『독립신문』 1925.11.1., 〈백암선생의 환우〉. 1925.11.11., 〈백암선생약력〉. 조규태, 「일제강점기 박은식에 대한 기념과 기억」, 『한성사학』 30, 2015, 31쪽.

94 『독립신문』 1925.11.11., 3면, 〈박은식의 유언〉.

면 이거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同胞에게 나의 몇마디 말을 傳하여 주오

첫째 獨立運動을 하려면 全族的으로 統一이 되어야 하고

둘째 獨立運動을 最高運動으로 하여 獨立運動을 爲하여는 어떠한 手段方
略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셋째 獨立運動은 吾族 全體에 關한 公共事業이니 運動 同志間에는 愛憎親
疎의 別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 貴重한 獨立運動을 期成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첫째 全民族의 統
一을 要求하여야 되겠오.

一. 全族統一이라 함은 말로 主張하기는 쉬우나 實行하기는 勿論 極難한 일
이오. 그러나 第一 먼저 注意할 것은 적어도 우리 光復事業에 獻身하려
고 自處한 健全分子들은 至重한 獨立運動을 目標세운 이상에는 環境의
어떠함을 勿問하고 다 한데 뭉쳐야 되겠오 勿論 어떤 나라에나 각 黨派
의 分別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일을 보는 民族들은 土黨 或은 朋
黨을 짓지 않음이 事實이니 如何턴 우리도 이 點에 크게 注意하여 將來
國家大業에 惡影響을 끼치지 말아야 되겠오.

二. 獨立運動은 우리의 第一 重大한 事業인즉 此를 期成코자 함에는 何等
의 手段이나 方法을 가리지 못하게 됨이 事實이오. 바로 말하자면 즉 우
리 民族의 體面이나 將來의 幸福을 妨害할 만한 危險性을 가진 일이 아
니면 무엇이냐 光復事業에 對하여 一毫라도 利益 있게 보이는 일은 다

實行하도록 注意하여야만 되겠오. 이같이 말함은 다른 뜻이 아니라 즉 우리가 將來 우리 民族을 爲하여 무슨 일을 하던지 第一 먼저 基礎되는 獨立國家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오.

三. 獨立運動의 成敗는 우리 民族全體의 死活問題이니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일에 成功코자 하면 우리가 統一的行動을 하여야 되겠으며 團結되어 일하려면 獨立運動이라 하는 全民族을 살리려는 大事業에 目標을 두고 이 일을 進行함에 私個人 사이에 交分 或은 感情關係의 어떠한을 一切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오. 나의 말한 것 몇가지 일이 實行키에 어렵지 않음은 아니나 하려면 아니될 것은 없고 잘 될 터이오. 이는 다른 말 아니라 우리가 今日까지 무엇이 아니 되니 무엇이 어찌하여 아니 되니 함은 統히 우리가 일을 할 때에 誠意를 다하지 못한 까닭이오. 아니될 수야 어찌 있소.

大韓民國七年十一月一日 (筆記 安恭根)

6. 맺음말

역사학자이며 언론인인 박은식은 국망 후 해외로 망명하여 통일기관과 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는 1915년 신학혁명

당과 대동보국단을 조직하고 황실세력 및 친황세력과 연계하여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다.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 참여한 그는 제권의 상실로 국가를 통치할 권한이 민권에 있으므로, 국민의 합의로 통일기관을 수립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이에 3·1운동 후 그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국내의 한성정부에 참여하였다.

1919년 9월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대한공화국의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정부가 합하여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상해에 온 그는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였다. 그렇기에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도권 장악과 관련하여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가들이 군사통일촉성회, 북경군사통일회의와 보합단 등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을 공격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발간하여 자랑스런 독립투쟁의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독립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리고 독립신문사의 사장과 주필 등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신문』을 통하여 민족의 대동단결과 이를 통한 독립의 쟁취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1924년 말 이동녕 내각이 퇴진하여 임시정부의 존재가 위태롭게 되자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와 임시대통령대리의 중책을 짊어졌다. 그의 발탁은 그의 덕망과 능력 때문이지만 한편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운영에 불만을 품은 유림 등 대한제국 지배세력에 대한 불만

의 해소라는 측면도 있었다. 1925년 3월 24일 이승만 임시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2대 임시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구미위원부의 폐지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비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변경하고,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한 영남의 유림 이상룡이 국무령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소외된 황실세력과 친황세력의 임시정부 참여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한 것이었다.

1925년 11월 1일 만 66세로 서거하는 순간, 그의 마지막 바람은 조국의 독립이었다. 그는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에게 遺囑을 전하여 민족적 통일과 대동단결을 이루고 통일기관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독립을 이루라고 최후의 부탁을 하였다.

토론문

「박은식의 대한민국임시 정부 활동 : 大同과 彈劾」 토론문

박종연(국가기록원)

발표자께서 머리말 첫 부분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박은식 선생은 언론인·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역사학자이며, 독립운동가였다. 대한제국시기부터 1925년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한평생 우리 민족의 단결과 독립을 부르짖었으며, 그렇기에 일제시기 독립운동사를 논함에 있어 그를 빼놓고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치를 가진 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인물이기에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과 저서 등을 통해 소상히 알려져 있기에 발표자께서는 국망 후 그가 어떠한 민족의 통일기관 및 임시정부에 통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고,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 어떠한 정치 세력과 제휴하여 임정의 개혁 및 독립노선의 견지에 기여했는가를 밝히는데 본 글의 의의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 발표문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글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서 생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박은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을 대동과 탄핵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동과 탄핵이란 단어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상대적 단어는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의미적인 부분으로 볼 때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글은 3장과 4장이 메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글은 박은식 선생의 전반적인 생애에 대해 다루고 있기에 제목상의 대동과 탄핵이라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려진 선생의 생애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굳이 2장이 필요한 것인지, 2장의 경우 간략히 설명 등)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경술국치 이후 중국으로 이동한 선생이 친황세력의 인물들과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고 대동보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황주의적 입장에서 무력투쟁에 의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황실세력과의 연계에 의한 독립운동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 무렵 박은식은 주권재민의 공화주의 사상이 보다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황세력, 보황주의와 공화주의는 그 의미가 다른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1921년 독립신문사 해직 이후 정치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선생이 1922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분열 속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삼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은 점과 김구 주도하의 노병회 조직시 참여는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점, 1923년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명예회장에 선임되었지만 개조파와 창조파 중 그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맺음말에서 박은식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와 임시대통령대리의 중책을 맡은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운영에 불만을 품은 유림 등 대한제국 지배세력에 대한 불만의 해소라는 측면도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소외된 황실세력과 친황세력의 임시정부 참여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는 마치 박은식이 말하는 ‘대동’이란 것이 유림, 황실세력, 친황세력 등만을 위한 것이라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